

| 2016 울산학 교양서 |

방어진

그대의 작은 길과

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 2016 울산학 교양서 |

방어진 그대의 고향을 걸다

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발간사

올해로 울산학연구센터가 개소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울산학연구센터는 울산지역의 사회·문화·역사·예술 등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울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도 울산학연구센터에서는 연구논총, 교양서, 자체과제 등을 통해 울산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는 다양한 연구 실적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체과제로 ‘울산학 1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방화, 세계화 시대에 울산학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되짚고, 울산학의 토대를 정비해, 울산이 울산인들에게 어떤 존재감이며,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으며,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울산학연구센터가 걸어온 길을 센터의 연구발간물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2006년도 이후 발간된 센터의 모든 과제를 연도별로 빠짐없이 정리하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지역학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울산학연구센터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울산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연구논총은 4편의 연구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울산의 민속과 아동 문학 지도- 송석하, 정인섭, 서덕출, 오영수, 천재동을 중심으로’, ‘울산의 극작가 범곡 김태근과 그의 연극’, ‘삼국시대 무덤을 통해 본 고대 울

산’, ‘매력적인 도시문화 창조를 위한 브랜드 전략연구- 울산 동구와 크로아티아 자다르의 소리 풍경을 중심으로’ 등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부터 도시브랜드 전략까지 다양한 시대와 주제를 넘나드는 흥미 있는 울산 관련 연구논문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교양서로는 ‘방어진 근대의 길을 걷다’를 수록했습니다. 일본인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방어진은 울산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거리를 다양한 사진과 이야기를 통해 마치 그 시대로 되돌아간 듯 생생하게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학연구센터는 이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울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연구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학연구센터는 울산학연구를 통해 울산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개발하여 울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울산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울산발전연구원장

황시영

‘방어진 근대의 길을 걷다’는 1900년 전후부터 일본이 패망한 1945년까지 방어진의 근대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서 부제로 ‘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라고 붙였다.

방어진은 1910년 전후 일본인 어민의 집단 이주가 시작되어 식민이주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당시 방어진 근해에는 해산물이 풍부했고, 천혜의 항구 조건을 갖추어 일본이 어업의 전진기지로 삼았던 것이다. 일본 이주 어민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장사하기 위한 다양한 업체 및 인원이 대량 유입됐고, 학교, 주재소, 소방조, 우편소, 세관, 어업조합, 금융기관 등의 공공시설 등도 들어섰다. 조선인의 경우 방어진 이외 지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모여들었고, 1890년대 말 160명에 불과한 인구가 1921년경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합쳐 5,000여명에 달했다. 성어기에는 15,000명이 북적거렸고, 파시(波市:고기가 한창 잡힐 때에 바다 위에 열리는 생선 시장)를 이루어 일제강점기 시절 방어진은 ‘남방부고(南方富庫)’라고 일컬었으며,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닐 정도였다.

번성했던 방어진은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쇠퇴했으며, 현대에 이르러 도로의 정비 및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가옥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고, 일부는 화석으로 남아 있어 당시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화석과 기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생산했다.

본서는 총 7부로 구성됐다. 제1부는 방어진 근대의 서막 편으로 방어진 지명의 유래부터 시작하여 방어진이 식민이주 신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을 다루었고, 제2부는 근대 방어진의 공공기관 편으로 학교 조합, 심상고등소학교, 우편소, 소방조, 세관, 면사무소, 어업조합, 금융기관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제3부는 근대 방어진의 건설 편으로 방

어진항과 방파제 축조, 방어진 전기, 울산자동차 방어진지점, 방어진 상설시장 등을 소개했고, 제4부는 방어진의 황제로 군림했던 나카베 이쿠지로(中部幾次郎)의 이야기를 담았다. 제5부는 근대 방어진의 일본 통치 관련 시설 편으로 주재소, 신사, 종교시설, 일본 장군의 동상 등의 이야기를, 제6부는 근대 방어진의 문화와 유흥시설 편으로서 목욕탕, 이발관, 극장, 술도가, 유곽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담았다. 제7부는 근대 방어진의 사업체 편으로서 각종 기업, 여관, 병원, 약국, 상점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화석이 되어버린 방어진의 근대 유산을 통해 본서를 마무리하고, 방어진 근대의 길을 탐방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를 첨부하였다.

필자는 방어진 출신은 아니지만 학계에 있으면서 방어진 근대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년간 자료를 수집했다. 근대 방어진의 길을 걸을 때마다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가 내게 들려왔다. 특히 방어진초등학교 창고에서 방어진의 황제 나카베 이쿠지로의 공적비 조각 일부를 확인했을 때,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의 동상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이를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장군의 동상임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방어진 신사(神祠)의 건립, 찬기옥(讚岐屋:さぬきや)여관의 건립, 촌상(村上:むらかみ)조선소의 건립 시기 등을 문헌에서 찾아냈을 때 방어진 근대의 길을 신나게 걸을 수 있었다.

본서는 첫째, 방어진 근대역사문화를 총서로 담아냈다는 점. 둘째,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문헌을 통하여 상당수 밝혀냈다는 점. 셋째, 기존 방어진 근대역사문화에 대한 일부 오류를 바로 잡았다는 점. 넷째, 당시의 다양한 사진을 곁들였다는 점. 다섯째, 1930년 방어진 지도상에 나타난 건물 81개 모두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서를 통해서 독자들이 방어진 근대의 길을 걷기를 권해본다. 끝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방어진 사람들과 『울산학연구』를 통하여 ‘방어진 근대의 길을 걷다’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해준 울산발전연구원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2016년 12월
연구실에서 저자 이정학 씀

목 차

- 08 일러두기
- 09 근대 방어진 연대기
- 10 1930년 방어진 지도 - 방어진 근대사를 밝혀준다

제1부 방어진 근대의 서막

- 18 방어진 지명의 유래
- 23 울산해전(蔚山海戰) - 일본인 이주의 신호탄
- 26 울기등대 - 울산 최초이자 동해안 최초의 등대
- 33 슬도 - 방어진항을 보호했던 자연 방파제
- 38 벽촌 방어진에 일본인이 이주해오다
- 42 방어진, 식민이주 신도시가 건설되다

제2부 근대 방어진의 공공기관

- 48 방어진학교조합
- 50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
- 55 방어진우편소
- 56 방어진소방조
- 60 세관
- 62 동면사무소
- 65 방어진어업조합
- 71 방어진의 금융기관

제3부 근대 방어진의 건설

- 78 방어진항과 방파제 축조
- 86 방어진, 울산본부보다 전기가 먼저 들어오다
- 89 울산자동차 방어진지점
- 93 방어진 상설시장

제4부 방어진의 황제 - 나카베 이쿠지로 中部幾次郎

- 98 나카베 이쿠지로의 방어진 진출
- 100 나카베 이쿠지로의 활동
- 104 나카베 이쿠지로의 방어진 - 울산 간 철도계획
- 106 나카베 이쿠지로의 악덕 행적
- 109 나카베 이쿠지로의 방어진 관련 주요 연혁

제5부 근대 방어진의 일본 통치 관련 시설

- 112 방어진주재소
- 117 방어진신사와 옹나무
- 112 방어진의 종교시설
- 125 칠생보국(七生報國),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동상

제6부 근대 방어진의 문화와 유흥시설

- 130 목욕탕과 이발관
- 135 상반관 - 신문명의 상징, 울산 최초의 극장
- 140 품평회와 가정요리강습회
- 142 술도가
- 146 연초원매소(煙草元賣所)
- 149 유곽(遊廓)

제7부 근대 방어진의 각종 사업체

- 153 임겸상점(林兼商店) - 방어진 최대의 기업
- 162 조선소
- 168 여관
- 173 병원
- 176 약국
- 181 수산업
- 185 상점

- 200 화석이 되어버린 방어진의 근대 유산
- 204 방어진 근대의 길 탐방 안내

| 일러두기 |

1. 근대의 시기를 개항과 강화도조약이 맺어진 1876년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로 규정했다. 1876년부터 1903년까지 방어진에는 사회 변화의 특별한 사건이 없었으므로 러일전쟁 기간 중 1904년 울산 앞바다에서 벌어진 해전 즉 울산해전을 기점으로 내용을 전개했다.
2. 방어진의 공간적 개념은 당시의 행정구역인 방어리 중심이지만, 내용의 전개상 필요한 경우 일부 인접 지역도 포함했다.
3. 일본 지명은 일본식 발음대로 표기했다.
4. 일본인 인명은 성(姓)만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했지만,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 성과 이름을 모두 표기했다.
5. 그 외의 한자는 우리식 발음으로 표기했고, 필요한 경우 한자와 일본어 또는 우리식 발음을 괄호 속에 병기했다.
6. 인물의 존칭을 생략했다.
7. 1910년 한일 병탄 전후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국호를 조선으로 통일했다.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면서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였고, 모든 관공서 및 언론에서도 조선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당시의 국호에 따른 것이다.
8.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는 괄호 속에 병기했다.
9. 각주에 표기된 참고문헌은 국내 문헌의 경우 한글로, 일본을 비롯한 외국 문헌의 경우 원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근대 방어진 연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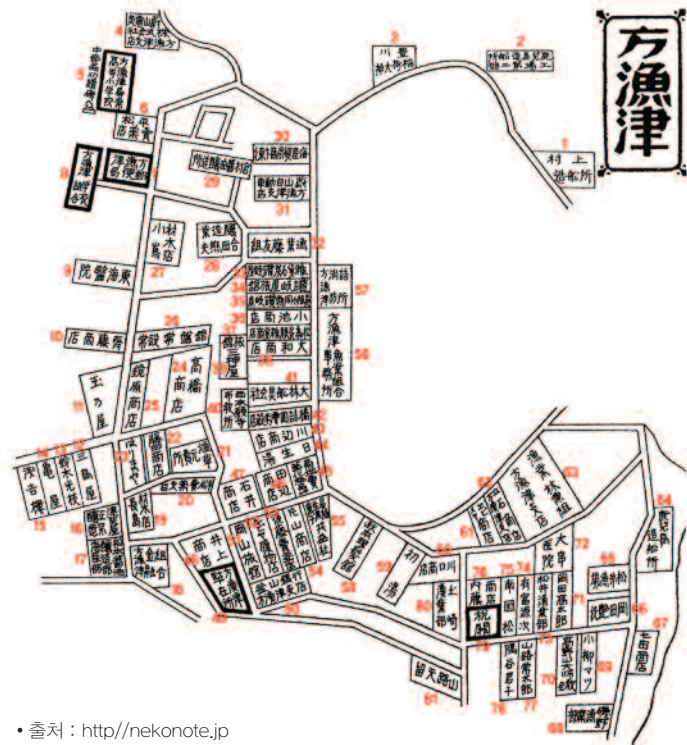
- 1904년 러일전쟁 기간 중 울산해전(蔚山海戰) 발발
- 1905년 방어진 최초 일본인 어부 이주 - 아리요시 가메기치(有吉亀吉)
- 1906년 울기등간 등대 건립 - 울산 최초의 등대이자 동해안 최초의 등대
- 1909년 일본 지방정부의 보조를 받은 어민 29호의 집단 이주
- 1909년 방어진 일본인회 설립
- 1909년 찬기옥(讚岐屋: さぬきや) 여관 창업
- 1910년 울기등대 건립
- 1910년 방어진학교조합 인가
- 1910년 방어진심상소학교 개교
- 1910년 방어진우편소 개국 및 전신사무 개시
- 1910년 방어진주재소 설치
- 1912년 정토종(淨土宗) 방어진 교회소(方魚津 教會所) 건립
- 1913년 정토진종(淨土眞宗) 서본원사(西本院寺) 포교소 건립
- 1914년 방어진소방조 설치
- 1914년 동면어업조합(1933년 방어진어업조합으로 명칭변경) 설립
- 1915년 임경상점 설립
- 1917년 진언종(眞言宗) 고야산대사교회(高野山大師教會) 설립
- 1918년 촌상(村上)조선소 건립
- 1919년 부산상업은행 방어진 지점 설치 허가
- 1920년 상반좌(常盤座) 극장 개관 - 울산 최초의 극장
- 1922년 방어진심상소학교를 방어진 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
- 1922년 울산전기주식회사 설립
- 1923년 방어진우편국에서 전화 교환 업무개시
- 1923년 전등 개통
- 1923년 세관 출장소 신설
- 1924년 방어진금융조합 설립
- 1925년 방어진상설시장 개설
- 1925년 울산군 동면 사무소 방어리 416번지로 이전
- 1926년 상반좌(常盤座)를 상반관(常盤館)으로 확장
- 1927년 방어진 신사(神祠) 건립
- 1928년 방어진항 축조 및 방파제 완공
- 1929년 방어진철공조선소 설립
- 1931년 울산군 동면을 방어진면으로 개칭
- 1934년 방어진공립보통학교(현, 화진초등학교) 개교
- 1937년 방어진읍으로 승격

표1. 방어진 행정구역 변천

연도	울산	연도	방어진
1914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	1910	울산군 동면 방어리
1931	울산면을 울산읍으로 승격	1931	울산군 동면을 방어진면으로 개칭
		1937	방어진읍으로 승격
1962	울산시 승격	1962	울산시에 편입(방어진출장소)
		1985	울산시 중구 방어동
1995	울산시, 군 통합	1988	울산시 동구 방어동
1997	울산광역시 출범	1997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 1930년 방어진 지도

방어진 근대사를 밝혀준다



• 출처 : <http://nekonote.jp>
 • 지도상의 번호는 저자가 설명하기 위해 붙여 놓았음.

위의 방어진 지도는 동경교통사(東京交通社)가 1930년 3월 6일 발행한 대일본직업별 명세도(大日本職業別明細圖) 제194호: 조선남부(朝鮮南部) 편에 소개된 것으로서 방어진 근대사를 밝혀주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도에는 부산부, 동래온천, 해운대, 울산, 방어진, 장생포, 구룡포, 감포, 양산과 물금, 마산, 밀양, 진영시장 등의 거리가 그려져 있으며, 1937년에 발간된 대일본직업별명세도에 재수록 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대일본직업별명세도는 1917년에 키다니(木谷佐一)에 의해 창간된 도시안내도로서 상점의 광고를 겸해 뒷면에는 업종별 색인을 실었으며, 1942년까지 정기 발행됐다. 이 지도의 성격을 일본국립도서관과 일본인 학자 시부야(澁谷鎮明)의 설명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국립도서관의 설명

대일본직업별명세도(상공지도)

상공(商工)지도는 개별 상점이나 회사 이름이 기재된 전전(戰前)의 도시 안내지도이다. 명칭 말기부터 여러 민간 출판사에 의해 출판됐다. 그중에서도 동경교통사(東京交通社)의 ‘대일본직업별명세도(大日本職業別明細圖)’는 전국 주요 도시를 망라했는데 그 범위는 대만, 조선, 구 만주에까지 미치고 있다. 상공지도는 수천 분의 일 정도의 큰 축척으로 그려진 지역도 있지만, 같은 대축척도의 주택지도와 비교하면 기재 대상이 되는 시설은 반드시 망라하지 않았고, 용지 폭에 맞추기 위해 그림 전체가 꽤 데포르메¹⁾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뒷면에는 직업별 목록(광고) 및 상점 등 건물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기도 하다.

2. 시부야(澁谷鎮明)의 설명

이 지도는 축척이 크며, 번지와 공공기관, 사찰과 신사를 비롯해 상점, 회사, 음식점, 풍속 영업점부터 저명인의 저택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의 도시지도와 관제의 지형도에는 없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도의 뒷면에는 업종별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고,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사진도 들어 있다. 단 지도에 묘사할 때 공공기관, 사찰, 랜드

1) deformer: 미술작품에서 자연형태의 사실적 묘사에서 벗어나 어느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변형시켜 표현한 미술기법.

마크가 되는 건축물은 대부분 표현되어 있으나 일반 상점, 회사 등은 반드시 망라하여 모두 묘사되지 않고 취사선택하여 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들 정보를 일정한 크기의 종이에 담기 위해 왜곡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 때문인지 축척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상공지도는 몇 개의 민간출판사가 출판했으나 특히 키다니(木谷佐一)의 동경교통사의 대일본직업별명세도는 정기간행물로서 1937년경에는 전국 주요 도시를 망라했다. 또한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일본이 영유한 대만, 한반도, 중국 동북부(구 만주) 등의 도시에 대해서도 작성됐다.²⁾

이상의 설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 동경교통사의 대일본직업별명세도에 묘사된 방어진 지도도 주요 공공기관,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종교시설 등은 대부분 묘사되었으나 일반상점 특히 개인 상점 등은 총망라되지 않았으며, 저택도 일부만 소개되고 있다. 특히 1929년에 설립한 방어진철공조선소를 녹아조조선소로 표기했고, 1927년에 건립된 방어진 신사가 표기되지 않은 점, 1925년 남목에서 방어진으로 옮긴 동면사무소가 표기되지 않은 점은 다소 의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 방어진학교조합, 방어진우체국, 방어진주재소, 세관 등과 같은 공공건물의 경우 짙은 사각으로 처리했다.

표2. 1930년 방어진 지도에 표기된 건물과 업종

번호	건물명	업종	참고 페이지
1	촌상조선소(村上造船所)	조선업	162
2	녹아도조선소(鹿兒島造船所) 제2공장	조선업	163
3	풍천선하(豊川船荷)	수산물 운반업체	183
4	울산전기주식회사 방어진지점	전기생산	86
5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	학교	50
6	평송매약점(平松賣藥店)	약국	176
7	방어진우편국	우체국	55
8	방어진학교조합	교육	48
9	동해의원(東海醫院)	병원	173

2) 澁谷鑛明(2014), 일제 시대에 작성된 민간도시지도로 본 한국의 지방도시, 제7회 세계한국학대회 발표논문, p.8

10	제등상점(齊藤商店)	선구, 어구, 도로페인트, 로프 등 판매	185
11	옥내옥(玉乃屋)	음식점으로 추정	194
12	삼도옥(三島屋)	유곽으로 추정	151
13	영목광지(領木光枝)	유곽으로 추정	151
14	구옥(龜屋)	유곽으로 추정	151
15	천길루(淺吉樓)	유곽으로 추정	151
16	진가옥(津加屋) 정종양조(正宗釀造)	양조업	142
17	평송장유양조부(平松醬油釀造部)	양조업	142
18	방어진금융조합	금융업	71
19	장도재목점(長島材木店)	목재업	195
20	평송매약지점(平松賣藥支店)	약국	176
21	연초원매소(煙草元賣所)	담배도매업	146
22	등전상점(藤田商店)	미상	196
23	하리마야(はりまや)	미상	196
24	고교상점(高橋商店)	미상	196
25	경원상점(鏡原商店)	미상	196
26	상반관(常盤館) 상설극장	극장	135
27	소도재목점(小島材木店)	목재업	195
28	합진웅부(合田熊夫) 양조업	양조업	143
29	관촌장유양조소(官村醬油釀造所)	간장제조	142
30	해산무역상변동윤(海産貿易商卜東允)	무역업	183
31	울산자동차 방어진지점	자동차 운송업	89
32	어업등우조(漁業藤友組)	수산업	181
33	잡화석탄(雜貨石炭) 찬기옥(讚岐屋)	잡화 및 석탄 판매	168
34	찬기옥(讚岐屋) 여관	여관	168
35	오복소간물(吳服小間物) 찬기옥(讚岐屋)	만물상	168
36	소지상점(小池商店)	미상	196
37	송가오복잡화상점(松嘉吳服雜貨商店)	잡화점	-
38	대화상점(大和商店)	미상	196
39	삼신옥여관(三神屋旅館)	여관	172
40	서본원사(西本院寺) 포교소	일본 종교	123
41	대림선구회사(大林船具會社)	선구(船具) 판매	190
42	교힐회조미곡점(橋詰回漕米穀店)	곡류 판매	194
43	천변상점(川辺商店)	미상	186
44	일생탕(日生湯)	목욕업	131

45	국지매약화장품(菊池賣藥化粧品)	약국	176
46	전변상점(田辺商店)	어로 작업복 등 의류판매	186
47	석정상점(石井商店)	미상	-
48	정상상점(井上商店)	수산업	182
49	방어진주재소	파출소	112
50	부산은행 방어진 지점	금융업	73
51	강산여관(岡山旅館)	여관	172
52	키비아(キビヤ) 이물점(履物店)	신발 판매	188
53	후등매약점(後藤賣藥店)	약국	176
54	편산상점(片山商店)	식품 판매	189
55	오복생과과자공익사(吳服生菓菓子共益社)	의복, 과일, 과자 판매	189
56	방어진어업조합 사무소	조합	65
57	방어진 소방힐소	소방서	56
58	추본이발관(秋本理髮館)	이발관	134
59	초탕(初湯)	목욕업	131
60	천구상점(川口商店)	선구(船具) 판매	189
61	에비스야(エビスヤ)상점	잡화 및 피복류 판매	191
62	입석상점(立石商店) 방어진 지점	석유, 경유, 중유, 카바이드 판매	192
63	임겸(林兼) 방어진지점	수산업	153
64	녹아도조선소(鹿兒島造船所)	조선업	163
65	송정어탕(松井魚湯)	수산업	184
66	강전염지(岡田艶枝)	개인 주택으로 추정	-
67	칠전상점(七田商店)	미상	196
68	기야어업부(磯野漁業部)	수산업	182
69	소류마츠(小柳マツ)	개인 주택으로 추정	-
70	고야산대사교회(高野山大師教會)	일본 종교	124
71	강전고태랑(岡田高太郎)	개인 주택으로 추정	-
72	대곶의원(大串醫院)	병원	174
73	송정어업부(松井漁業部)	수산업	183
74	유부원차(有富源次)	개인 주택으로 추정	-
75	남국송(南國松)	수산업	182
76	내등상점(内藤商店)	미상	196
77	산로상태랑(山路常太郎)	개인 주택으로 추정	-
78	우곡군자(隅谷君子)	개인 주택으로 추정	-
79	세관	세관	60
80	토기어업부(土崎漁業部)	수산업	182
81	산로천유(山路天留)	개인 주택으로 추정	-

표3. 1930년대 방어진 지도상에 나타난 건물의 직종별 분류

직종	수	내용
관공서	4	방어진우편국, 방어진주재소, 방어진 소방힐소, 세관
학교	1	방어진심상고등학교
조합	3	방어진학교조합, 방어진어업조합, 방어진금융조합
은행	1	부산은행 방어진지점
전기업	1	울산전기주식회사 방어진지점
자동차운송업	1	울산자동차 방어진지점
병원	2	동해의원, 대곶의원
약국	4	평송매약점, 평송매약점지점, 국지매약화장품, 후등매약점
극장	1	상반관
목욕탕	2	일생탕, 초탕
이발관	1	추본이발관
여관	3	찬기옥여관, 강산여관, 삼신옥여관
유곽 및 음식점	5	삼도옥, 영목광지, 구옥, 천길루, 옥내옥
종교시설	2	서본원사포교소, 고야산대사교회
조선소	3	촌상조선소, 녹아도조선소, 녹아도조선소 제2공장
수산업관련업	9	임겸 방어진지점, 어업등우조, 토기어업부, 남국송, 송정어업부, 기야어업부, 송정어탕, 정상상점, 풍천선하
무역업	1	해산무역상변동운
양조업(술, 간장)	4	진가옥, 평송장유양조부, 관촌장유양조소, 합전옹부 양조업
목재소	2	장도재목점, 소도재목점
상점	23	제등상점, 등전상점, 하리마야, 고교상점, 경원상점, 잡화석 탄찬기옥, 오복소간물찬기옥, 송가오복잡화상점, 소지상점, 대화상점, 대림선구회사, 전변상점, 전변상점, 석정상점, 키비아이물점, 편산상점, 오복생과과자공익사, 천구상점, 에비스야상점, 입석상점 방어진지점, 칠전상점, 내등상점, 교힐회조미곡점
담배도매점	1	연초원매소
개인 주택	7	오카다(岡田高太郎), 스미야(隅谷君子), 오카다(岡田艶枝), 코야나기(小柳マツ), 아리토미(有富源次), 야마지(山路常太郎), 야마지(山路天留)

제1부

방어진 근대의 서막

- 방어진 지명의 유래
- 울산해전(蔚山海戰)
- 울기등대
- 슬도
- 벽촌 방어진에 일본인이 이주해오다
- 방어진, 식민이주 신도시가 건설되다

방어진
그대의 작은 길라

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방어진 지명의 유래

- 방어진(方魚津)은 원래 방어진(魴魚津)이었다

방어진이란 지명은 조선시대 목장이 방어진에 설치되면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방어진이란 공식적인 지명은 1469년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³⁾ 울산군편에 “군(郡) 동쪽 적진리(赤津里)⁴⁾ 방어진(魴魚津) 목장에는 말이 360필, 목장의 둘레는 47리”라고 소개되어 최초로 등장했다.

이듬해 《조선왕조실록》 성종 1년(1470년)에 “울산 방어진(方魚津)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60두였는데, 사고로 잃은 것이 57두, 간수를 못 하여 잃어버린 것이 11두, 범이 잡아먹은 것이 67두”⁵⁾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 방어진(方魚津)이란 지명은 고유 명칭이 아니라 어류를 잡거나 운송하는 나루터라는 단순 자연지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1775년 비변사⁶⁾에서 임금에게 청원하는 다음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단천(端川)의 교제곡(交濟穀)⁷⁾을 멀리 이성(利城)의 자외창(者外倉)까지 수운(輸運)해야 하므로 왕래할 때 여러 날이 걸리니 본부(本府) 단천부(端川府)의 이진(梨津)으로 옮겨 설치하고, 홍원(洪原)의 교제창(交濟倉)을 함흥(咸興)의 운전(雲田)에 합설(合設)하여 거리가 1백여 리가 되므로 실어다가 바칠 때에 민폐가 적지 않으니 본부(本府) 홍원부(洪原府)의 방어진(方魚津)으로 옮겨 설치하는 일을 묘당⁸⁾에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⁹⁾

3) 1469년 김경광(金謙光)이 왕명으로 편찬한 경상도(慶尙道) 도지(道誌).

4)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 남쪽 지역.

5) 원문: 蔚山方魚津, 元放馬三百六十, 而故失五十七, 遺失十一, 虎攬六十七.

6) 비변사(備邊司) : 원래 국방 문제에 대처하는 임시 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조선 중기 이후 정치·경제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던 관청.

7) 조선 후기에 함경도에 설치한 구휼기관.

8) 비변사를 지칭.

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비변사등록 157책.

여기서 함경남도 홍원부(洪原府)의 방어진(方魚津)이란 지명은 어류를 잡거나 운송하는 나루터라는 의미로 명칭 된 것이다.

1471년 신숙주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에 삼포개항을 소개하면서 염포(鹽浦) 지도에 ‘방어진목장(魴魚津牧場)’을 표기하였고, 1530년(중종 25년) 이행(李荇) 등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증수하여 편찬한 인문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방어진(魴魚津)은 고을 동쪽 33리에 있으며, 목장(牧場)이 있다.”라고 소개했으며, 1786년(정조 10년)의 《울산부여지도신편읍지(蔚山府輿地圖新編邑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객사일기(典客司日記)》¹⁰⁾와 《변례집요(邊例集要)》¹¹⁾에도 방어진(魴魚津)이란 지명을 사용하였으며, 김정호가 1861년에 제작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도 방어진(魴魚津)이 공식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1722년 대마도종가문서에서도 조선의 목장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울산군(蔚山郡) 방어진(魴魚津)으로 소개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방어진(魴魚津)이란 지명이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방어진(魴魚津)은 현재 울산 동구 일대를 일컬었으며, 산천(山川)과 같이 자연지형이 고유지명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상도속찬지리지》와 《울산부여지도신편읍지》에서 방어진(魴魚津)을 무리용산(無里龍山), 태화강(太和江), 동백도(冬栢島) 등과 같이 산천조에 포함시킨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방어진은 배산임수 지형과 온화한 날씨로 인하여 국가의 목장지로서 적합하였던 곳이었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진상마(進上馬)를 얻기 어려운데 울산(蔚山) 방어진목장(魴魚津

10) 1640년(인조 18)부터 1886년(고종 23)에 이르는 250년간의 기록으로 주로 사신과 일본인·여진인 등의 영접, 외방의 조공(朝貢) 및 사여(賜與)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1) 1598년(선조 31년) 겨울부터 1841년(헌종 7년) 2월까지 일본과의 교린 관계를 기록한 책.

牧場)의 말이 좋으니 장기(場基)를 퇴축(退築)하여 방목(放牧)하는 것이 마땅한 듯하고 퇴장(退場)은 내년에 거행할 것에 대해 논의함”¹²⁾이라는 대목에서 방어진에서 길러진 말의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방어진(魴魚津)의 한자는 방어 방(魴), 고기 어(魚), 나루 진(津)으로서 그 뜻은 방어(魴魚)를 잡거나 나르는 나루터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명 방어진(魴魚津)의 유래는 생선 방어(魴魚)에서 유래되었다. 조선시대 동해안에는 방어가 많이 잡혔고,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울산부여지도신편읍지》에 울산의 토산품 중에 방어(魴魚)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 학자 요시다(吉田敬市)도 그의 저서 《조선수산개발사(朝鮮水産開發史)》에서 “방어진은 원래 ‘魴魚津’이었다”¹³⁾라고 기술하였다.

한편 1899년에 편찬된 경상북도 흥해군읍지에는 ‘어량(魚梁) 방어곶(魴魚串)’이란 지형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량(魚梁)은 물살을 가로막고 물이 한 군데로만 흐르게 터놓은 다음 거기에 통발이나 살을 놓아서 고기를 잡는 장치이고, 방어곶(魴魚串)은 방어와 관련된 돌출된 지형을 말한다. 물론 흥해군의 주요 토산품 중에도 방어가 기록되어 있다. 결국 방어곶(魴魚串)과 방어진(魴魚津)은 생선 방어(魴魚)와 관련된 자연·인문지명이었는데, 방어진(魴魚津)은 고유지명으로 고착된 것이다.

이러한 방어진(魴魚津)이 1750년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방어진(方魚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오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특히 전객사일기에도 순조 4년(1804년)과 5년(1805년) 두 차례의 기록에 방어진(方魚津)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방어진(魴魚津)으로 하였고, 그 이후인 순조 6년(1806년)에도 방어진(魴魚津)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12) 승정원일기 효종 5년(1654. 5. 12).

13) 吉田敬市(1954).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p.268.

점에서 당시 집필자에 따른 오기 또는 착오로 보인다.

1875년 운양호(雲揚號) 사건을 계기로 1876년에 체결된 불평등 강화도 조약에 의하여 부산, 인천, 원산항을 개항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암묵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선 내 영사관 등 일본 관공서 등이 작성한 문서에는 방어진(方魚津)으로 표기되었고,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방어진(方魚津)’이란 한자 지명이 공식화되었는데 결국 방어진(魴魚津)에서 방어진(方魚津)의 한자 지명 변화는 일제의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즉 방어는 일본어로 부리(ぶり)라고 하고, 한자로는 ‘魴’라고 표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한자이다. 반대로 일본에서 한자 ‘魴’은 방어라는 뜻도 아니고 다른 의미도 없다. 방어와 유사한 어종으로 부시리가 있다. 방어보다는 좀 더 편평하고 몸 쪽의 황록색 띠가 뚜렷한 생선으로서 흔히 일본어로 히라스(ひらす)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투리이고, 표준어로는 히라마사(ひらまさ, 平政)이다.



1861년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방어진(魴魚津).

이와 같이 일본인이 방어진(魴魚津)의 지명을 처음 접했을 때 ‘방(魴)’자는 생소했을 것이다. 또한 이 무렵 일본인들이 우리 근해에서 잡은 주 어종은 고등어, 청어, 멸치 등이었고, 방어는 그 수가 줄어 어획량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방어진(方魚津)은 그들이 잡은 어종을 일본어로 보내는 나루터라는 뜻으로 방(魴)자를 방(方)자로 고쳐 명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울산해전(蔚山海戰) - 일본인 이주의 신호탄

1904년 8월 14일 이른 아침, 방어진 앞바다에 함포의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러일전쟁기간(1904년 2월 - 1905년 가을) 중 1904년 8월 14일 오전 5시 30분경 일본 측 카미무라(上村) 중장(中將)이 이끄는 제2함대(5대의 전함으로 구성)가 남하하는 러시아 함대(4대의 전함)를 발견하여 포격을 개시한 것이다. 교전 끝에 러시아 측 전함 3대 중 류리크(Rurik)호가 침몰하고, 피해를 입은 나머지 2대가 북방으로 도주했다. 양측의 전투 결과 일본 측 전사자는 45명, 부상자는 71명이었고, 러시아 측 전사자는 323명, 부상자는 565명, 포로는 625명이었다.¹⁴⁾ 이후 러시아 함대의 발호는 그 자취를 감추었고, 해상권은 일본 해군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¹⁵⁾ 일본은 이 전투에서 사기가 드높았던 해전이라는 의미로 ‘울산충해전(蔚山沖海戰)’이라고 칭했으며, 기념엽서도 발행도 했다.

러일전쟁의 발발 이유는 한반도와 중국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쟁취하려던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북진정책이 상호 충돌했기 때문이다. 1904년 2월 8일 밤 중국 여순(旅順)에 대한 일본군의 기습을 시작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각종 전투가 있었는데 주요 해전으로는 1904년 8월 10일 황해해전, 8월 14일 울산해전, 1905년 5월 27일-28일 쓰시마 해전 등이었다. 결국,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의 전 연안이 일본 어민에게 개방되었으며, 합법화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 측은 동해안에 자국 함대의 안전을 위하여 울기등대를 건립하고, 1930년경 전후에는 현 대왕암공원에 군사기지를 만들며, 장생포에 함대를 주둔시키게 된다. 울산 앞바다에서 벌어진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동해안 해상권 장악에 따라 방어진에 일본인들이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

14) Peter Brook(2000). Armoured Cruiser Versus Armoured Cruiser, Warship 2001-2002, Conway Maritime Press.

15) 조선총독부(1922). 심상소학일본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2, 조선인쇄주식회사, p.425.

다. 러일전쟁 직후 방어진 최초의 일본인 이주자는 일부 상인이었다.¹⁶⁾ 이들은 방어진 해상에서 통어를 하던 일본 어민을 상대로 각종 물자를 공급했던 것이다. 곧이어 일본인 이주 어민이 방어진에 들어오게 되었다.

한편 러일전쟁 중 방어진 연해에 침몰된 러시아 함대 류리크(Rurik)호를 인양한다는 신문기사가 1933년에 등장했는데 “1월 23일부터 류리크를 인양하기 위하여 후쿠이(福井) 소장과 잠수부 등은 울산 방어리에 체재하면서 그물로 침몰 부근을 살살이 뒤진 결과 울산을 거점으로 남쪽으로 18해리, 동쪽으로 11해리의 지점과 북위 35도 19분, 동경 129도의 지점에서 함체를 발견하고 인양준비 작업을 마쳤다.”¹⁷⁾라는 내용이였다. “류리크호를 인양하면 수천만 원의 순이익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조만간 작업에 들어간다.”¹⁸⁾라고 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울산해전(蔚山海戰)에서 러시아 측 류리크(Leulic)호가 격침당하는 모습의 기념엽서 (출처:www.wikiwand.com).



울산해전(蔚山海戰)을 지휘했던 일본 해군 제2함대의 기선 출운(出雲)호 (출처:www.wikiwand.com).



울산해전 당시 수뢰정(水雷艇: 어뢰로 적의 함정을 습격하기 위하여 수뢰 발사기를 장비한 작고 속력이 빠른 배) 74호의 일본 해군들(출처:中國軍艦博物館).

16) 神谷丹路(2011). 朝鮮開港から植民地初期における日本漁民の朝鮮漁場への出漁をめぐって—漁業から見た日本と朝鮮半島—. 大阪経済法科大学.

17) 동아일보(1933. 2. 18).

18) 동아일보(1933. 12. 10).

울기등대 - 울산 최초이자 동해안 최초의 등대

우리나라에 근대식 등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2년 3월 인천에 해관등대국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그해 5월에 팔미도를 비롯하여 소월미도, 북장자서, 백암에 등대 건설이 착수되었고, 이듬해 1903년 6월 1일 팔미도 등대가 처음으로 점등을 하면서 신기원을 이루었다. 이후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이때부터 일본 해군은 우리나라 연해에 총 8개소의 등대를 건설했는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 함대를 견제하면서 우리나라 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자국 해군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것이다. 당시 등대의 건설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했지만,¹⁹⁾ 등대의 소유권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제의 통감부에 이관되었다. 당시 8개소의 등대는 다음과 같다.

- 1904년 4월 _ 인천 부도등대
- 1905년 4월 _ 전남 거문도등대
- 1905년 6월 _ 부산 감만동 제뢰등대
- 1905년 11월 _ 전남 신안 칠발도등대
- 1906년 3월 _ 울산 울기등간
- 1906년 3월 _ 제주 우도등대
- 1906년 3월 _ 경남 통영 홍도등간
- 1906년 11월 _ 부산 (절)영도등대

여기서 등대와 등간은 구분되는데, 등대(燈臺)는 항구, 해변의 방파제, 외딴섬 등에 세워 해상교통의 안전과 선박 운항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구조

19) 만세보(1906. 11. 1).

물로서 빛을 움직여 항로표지를 해주는 동형(動形)의 형태이고, 등간(燈竿)은 등대와 같은 목적의 시설이지만 목조 구조물로서 꼭대기에 등불을 단 형태로 서 불만 켜놓는 부동형(不動形)을 말한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동해안 해상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1906년 3월 24일 울산에 울기등간 등대를 세웠는데, 울산 최초이자 동해안 최초의 등대였다. 1910년 6월 25일에는 기존의 등간을 없애고 울기등대를 새롭게 신설했는데 당시 관보(官報)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한국동안(韓國東岸) 경상남도 울기등대(蔚嶠燈臺)의 신설. 융희(隆熙) 4년 6월 25일부터 한국동안 경상남도 울산항 동측 반도의 남단 울기에 건설한 등대에서 매년 일몰부터 일출까지 점등함. 단 전의 등간은 동일 철거함.”²⁰⁾

결국 1906년의 등간 등대는 철거되고 인근에 8각형 모양의 흰색 외벽에 높이 6.1m의 근대식 콘크리트 구조의 등대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10년에 신설된 울기등대 항로표지 간수로 카타야마(片山助一)라는 일본인이 임명되어 1915년까지 근무했다. 이곳의 등대를 울기(蔚嶠)라고 칭하게 된 것은 일본인들이 울산의 끝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울기등대가 있는 대왕암공원에는 아름답리 해송 15,00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사연이 있다. 원래 이곳은 조선시대까지는 말을 방목한 곳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아니라 목초로 덮여 있었다. 이는 1871년에 발행된 《영남읍지(嶺南邑誌)》의 울산목장목지(蔚山牧場牧誌) 편에서 방어진은 “관기(官基)²¹⁾ 남쪽 20리에 있고, 북쪽으로 울산부까지 30리 떨어져 있다. 목장의 말을 방목하여 먹이를 먹이는 곳이며, 앞쪽은 큰 바다에 닿아 있다.”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조선총독부관보(1910. 6. 22).

21) 관아가 있는 지점.

결국 목초 지대였던 이곳에 소나무를 심게 된 것은 2가지 설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러일전쟁 후 1906년 등간등대와 1910년 신설 울기등대를 건립하면서 일본 해군이 이곳에 주둔할 때 은폐를 위하여 심었을 것이다. 일본 해군은 러시아 측의 함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러일전쟁 후 은폐가 용이한 장생포에 함대의 근거지를 만들어 놓았다.²²⁾ 즉 일본해군의 입장에서 적의 관찰을 위해서는 울기등대가 용이했으나 함대는 방어진항보다 더 은폐가 용이한 장생포항을 근거지로 삼았던 것이다.

두 번째는 방어진 사람의 구전에 의한 것인데 1934년 일제가 이곳에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해 이 지역 주민들을 대거 부역으로 동원하여 해송을 이식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소나무의 이식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일본 해군의 은폐와 관련된 분명해 보인다.

이후 해송들이 크게 자라나서 등댓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1972년 11월 등대를 수직으로 3m로 증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댓불이 해송에 지장을 받자 1987년 12월 12일에는 아예 기존의 위치에서 40m가량 떨어진 곳에 높이 24m의 신 등대를 건립함으로써 방어진 근대의 불빛이었던 기존의 등대는 수명을 다하고 '구 등대'로 명칭 하게 되었다.

구 등대는 출입구가 포치(porch)라고 부르는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치는 건물의 출입구를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하여 지붕을 덮은 형태를 말한다. 구 등대는 외관은 물론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대문화유산 제9호 및 등록문화재 제106호로 등록되어 보존되고 있다. 해송이 방해된다고 해송을 잘라내지 않았다는 점, 신 등대를 건립하면서 구 등대를 그대로 두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아름답리 해송과 구 등대는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를

22) 東京交通社(1930年), 日本職業別明細図.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울기등대와 해송이 있는 이곳을 1962년에는 '울기공원'으로 명명했다가 2004년 일제 잔재청산 일환에서 '대왕암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사진 ①(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은 일제강점기 당시 울기등대이며, 사진 ②는 같은 위치에서 찍은 현재의 모습이다. 위의 사진에는 등대 뒤쪽에 소나무가 보이지 않지만 현재의 사진에는 등대 뒤쪽에 소나무가 보인다.



구 등대는 건물의 출입구를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하여 지붕을 덮은 포치(porch)라고 부르는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외관은 물론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대문화유산 제9호 및 등록문화재 제106호로 등록되어 보존되고 있다.



앞쪽은 구 등대이고, 뒤쪽은 신 등대로서 거리는 약 40m 정도 떨어져 있다.



1936년 대왕암공원 나들이객들(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현재의 대왕암공원

슬도 - 방어진항을 보호했던 자연 방파제

슬도(瑟島)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라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瑟島鳴波)’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엮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시루섬’, 거북이 모양 같다고 하여 ‘구룡도(龜龍島)’, 전체가 곰보의 바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곰보섬’, 그리고 ‘지리도’라고도 하는 등 명칭이 다양하다. 슬도의 면적은 990여 평이며, 퇴적된 사암으로 이뤄져 있는데 100만 개가 넘는 촘촘한 구멍은 모래가 굳어진 바위에 조개류 등이 파고 들어가 살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개벽》이라는 잡지에는 “방어진항구에는 슬도(瑟島, 속칭 나마꼬시마)라 하는 풍치적(風致的) 소도(小島)가 있어 풍랑을 보장(保障)하고”²³⁾라고 슬도를 소개하였다. 또한 신문에서도 ‘방어진항만은 반월형으로 동쪽 지형 끝에 면하는 슬도는 자연 방파벽을 형성하여 완전한 피난항이 되었다’²⁴⁾라고 하여 당시 슬도는 아름다운 작은 섬으로서 풍랑을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슬도를 나마꼬시마(なまこしま)라고 불렀는데 나마꼬(なまこ)는 해삼을 뜻하고, 시마(しま)는 섬이므로 해삼을 닮은 섬 또는 슬도에는 해삼이 풍부하여 명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해녀들이 슬도 부근의 바다에서 해삼을 캐기 위해 물질을 하고 있으며, 6명의 해녀가 운영하는 ‘해녀의 집’에서는 해삼을 비롯한 성게, 멍게, 소라 등의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즉석에서 맛을 볼 수 있다.

근대 시기 방어진 연해에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품질이 좋았지만 지역민은 잠

23) 개벽 제38호(1923. 8. 1).

24) 매일신보(1927. 6. 13).

수술이 약해 심해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제주도 해녀들이 1890년대 경부터 울산 연해를 찾아오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매년 해산물을 채취해가자 끝내 지역민과 마찰을 빚게 됐고, 결국 1913년에는 울산 연해 각지의 어업조합이 입을할 때 1인당 4원 30전씩 징수하기로 함으로써 분규가 해결됐다.²⁵⁾

제주도 해녀들의 바깥물질이 본격화된 것은 일제강점기 무렵이다. 1910년대 전반에는 2,500명에 이르던 이동 해녀가 1910년대 후반에는 부산·울산지역의 이동자만 4,000명을 헤아렸다.²⁶⁾ 당시 신문에서는 “부산·울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제주도의 출가 해녀는 4,000명 이상이 되며, 이들의 수입은 한사람이 평균 300원 값어치를 생산함으로 4,000명의 총수입은 실로 120만 원의 큰돈을 생산하여 조선 수산계에 적지 아니한 숫자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작게 말하면 그들의 활동은 제주도의 생명시오 다시 말하면 조선 산업계에 중대한 현상이다”²⁷⁾라고 했다.

이후 제주도 출가 해녀들이 일부 방어진에 정착하고, 방어진 여지들도 수입이 좋은 해녀 직업을 택하면서 삶을 영위했으나 오늘날에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방어동의 현경순(92) 할머니는 “슬도 앞의 무돌은 제주도 화산돌 같지만, 겹지는 않았다. 돌에 구멍이 많은데, 바닷속의 바위 구멍구멍마다 소라 고동이 가득 달라붙어 있었다....대왕암 등대 앞에도 어른 손바닥보다 더 큰 굴이 무진장 많이 붙어있어서 잠녀(潛女) 서너 명이 잠시 잡으면 작은 텐마선(伝馬船)에 가득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옛날에는 청각, 열합, 굴, 멩게 등은 뽐뽐하게 군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씨도 없이 사라져 버린 바다를 보

면 가슴이 쓰리고, 숨이 막혀온다”고 회고하였다.²⁸⁾ 슬도의 황금어장은 방어진 항에 조선소 등 공업시설이 들어서고 양식장이 확대되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슬도에는 6명의 해녀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6명의 해녀 중 제주도 출신이 4명이고, 2명은 방어진 출신으로서 막내 해녀가 67세이며 30여년 물질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후계 해녀가 없어 자신이 마지막 해녀라고 했다. 6명의 해녀들은 슬도에서 직접 잡은 해산물을 판매하는 횃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간판도 없고, 카드는 사절이라고 한다.²⁹⁾

한편 일제강점기 방어진항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이 자주 슬도에 부딪히자 등대의 설치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1937년 지리도에 등대를 설치하라는 기사가 등장했고,³⁰⁾ 1939년에는 등대 미설치로 인한 피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도 했다.

“울산 만 일대에 큰 암초로 유명한 방어진항 입구나마꼬에 또다시 기선 파손 - 지난 5일 부산 대교통(大橋通) 와다(和田周太郎) 소유 가격 약 10만 원의 기선은 시멘트를 만재하여 강원도 묵호 방면으로 항해 중 울산만에 이르자 풍파를 만나 방어진항으로 피난하고자 입항 도중 방어진항 입구에 있는나마꼬 암석에 부딪혀 기관실이 침수되고 만재한 시멘트와 선체 파손 손해액 7만 원에 달하였으며(중략)나마꼬의 암초로 인하여 과거 선박업자의 손해 등도 무려 수백만 원이라고 하는바 일반 선박업자 등은 암초에 등대 설치를 요망한다고.”³¹⁾

현재 슬도의 등대는 1950년대 말에 건립됐고, 1989년 해양항만청이 방파제를 건설하면서 이후 걸어서 섬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해녀들의 애환이 서린 슬도는 풍경이 아름다워 지붕 없는 예술의 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마치

25) 매일신보(1913. 5. 7).

26) 진관훈(2004). 일제하 제주도 경제와 해녀 노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27(1), pp.149-178.

27) 동아일보(1920. 4. 22).

28) 울산매일(2011. 2. 8). 장세동(동구문화원 부설 지역사연구소 소장)의 인터뷰 기사.

29) 2016년 5월 인터뷰.

30) 동아일보(1937. 10. 26).

31) 동아일보(1939. 1. 12).



1920년대의 방어진항 사진인데 어선 너머로 슬도가 보인다(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

현무암의 제주도를 미니추어 해 놓은 것과 같다. 최근에는 드라마 촬영지 및 바다 낚시터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예술제가 열리고 있는데 매년 10월이면 슬도명과 (瑟島鳴波)와 함께 음악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한 차례 만날 수 있다.



1950년대 말에 건립된 슬도 등대



지붕 없는 예술의 섬 - 슬도.



슬도 입구에 있는 해녀의 집. 슬도에서 직접 잡은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 속의 해녀는 막내 해녀로서 나이는 67세이며 30여 년 물질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후계 해녀가 없어 자신이 마지막 해녀라고 했다(사진은 2016년 5월 현재).

벽촌 방어진에 일본인이 이주해오다

조선시대 방어진에는 사복시(司僕寺)³²⁾ 관할의 목장을 두고 감목관(監牧官)³³⁾이 상주했으며, 목자(牧子) 등 말 관련 종사자들이 일부 거주했지만, 내륙과 거의 차단되어 있는 지형에 의하여 한적한 벽촌에 불과했다. 1890년대 말 방어진에는 20호의 가구에 160명이 한마을에 거주했는데 농사를 짓는 가구는 불과 1가구뿐이었으며, 대부분 어업에 종사했고, 많이 잡은 어류는 정어리였다.³⁴⁾

1887년 오카야마(岡山)현 히나세(日生)촌 어부들은 방어진을 비롯한 절영도, 포항, 벌교, 나로도 등지에 어업 근거지를 만들기 시작했고³⁵⁾ 1897년경부터 일본 어부들은 방어진 근해에서 삼치 조업을 하고, 피난을 하거나 물자보급을 위하여 방어진항에 들락거렸다. 특히 1897년 히나세에서는 모리야(森谷貞吉)를 단장으로 총 34가족에 54명이 참가하는 출어단을 보내는 등 방어진을 주목했다.³⁶⁾

1905년 오카야마현 히나세촌의 아리요시(有吉龜吉)는 이미 방어진 근해에는 삼치어업이 유망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현으로부터 200엔의 보조금을 받아 2-3명과 함께 방어진에 이주했는데³⁷⁾ 최초의 일본인 이주 어민이었다. 즉 황금어장 방어진 앞바다에서 생선을 잡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통어 차원이 아니라 이주하여 생선을 잡고 일본으로 반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리요시는 어부로 건너왔지만 유길상점(有吉商店)이라는 잡화점도 개설했고,³⁸⁾ 1914년에는

32) 조선시대 왕이 타는 말, 수레 및 마구와 목축에 관한 일을 맡던 관청.

33) 조선시대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의 무관 벼슬.

34) 伊集院彦吉(1898). 朝鮮漁業協會 第五回 巡邏報告書, 한국근대사자료집성 5권 韓日漁業關係.

35) 加子浦歴史文化館・資料館.

36) 利七屋孫兵衛の日記(2009, 4, 15).

37) 加子浦歴史文化館, 日生町の韓国交流史.

38) 神谷丹路(1998). 日本漁民の朝鮮漁場への植民過程をたどる-岡山縣和氣郡日生漁民を中心として, 青丘學術論集 제13집, pp.104-105.

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 비품비 명목으로 19여 원을 기부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목림(木林)을 하사받기도 했다.³⁹⁾ 유길상점은 1927년 야마시로(山城岩吉)에 의하여 잡화류, 피복 용품, 선구류(船具類) 등을 판매하는 합자회사로 확대됐다.⁴⁰⁾

한편 1909년부터는 방어진에 일본 어민들의 본격적인 집단 이주가 시작됐는데, 후쿠오카(福岡)현 지쿠호(筑豊) 수산조합에서 29호를 최초로 집단 이주 시켰다.⁴¹⁾ 1910년에는 오카야마(岡山)현 40호를 비롯하여 후쿠오카(福岡)현, 카가와(香川)현, 후쿠이(福井)현 등지에서 총 120호의 일본인 가구가 집단 거주하면서⁴²⁾ 식민이주어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내 신문에서는 “한국 해면에는 일본 어선이 3,755척, 일본인 어부가 15,749명, 한국 연해안에 이주한 일본 어민의 호구 수가 1,146호에 4,973명인데,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절영도(237호, 862명)·방어진(125호, 550명)·장승포(120호, 400명) 등지였다”⁴³⁾ 라고 소개했다. 이들의 집단 이주는 일본 지방정부의 보조를 받았는데 후쿠이(福井)현의 경우 1910년 이주 어민에게 이주가옥건축비 800원, 이주보급비 250원, 어선 어구 보급비 500원, 잡비 50원을 지급했다.⁴⁴⁾

1911년 후쿠오카현에서는 방어진 일생조선출어단(日生朝鮮出漁團)을 조직했는데 초대 단장으로는 키시모토(岸本悦二)였고, 통어자의 통일적 활동 및 영업상의 필요에 의해 방어진을 방문했으며, 1914년에는 2대 단장 나스(那須信俊)도 출어단을 이끌고 와서 어로의 한기(閑期)에는 어선을 근거지에 두고 귀성을 하도록 했다.⁴⁵⁾ 이러한 출어단은 일본 각지에서 정책적으로 자기 지역의

39) 조선총독부 관보(1914, 9, 6).

40)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27년).

41) 拓植局(1911). 『植民地ニ於ケル内地人ノ漁業及移民』, p.135.

42) 조선해수산조합월보(1910년). 16호, p.10.

43) 황성신문(1910.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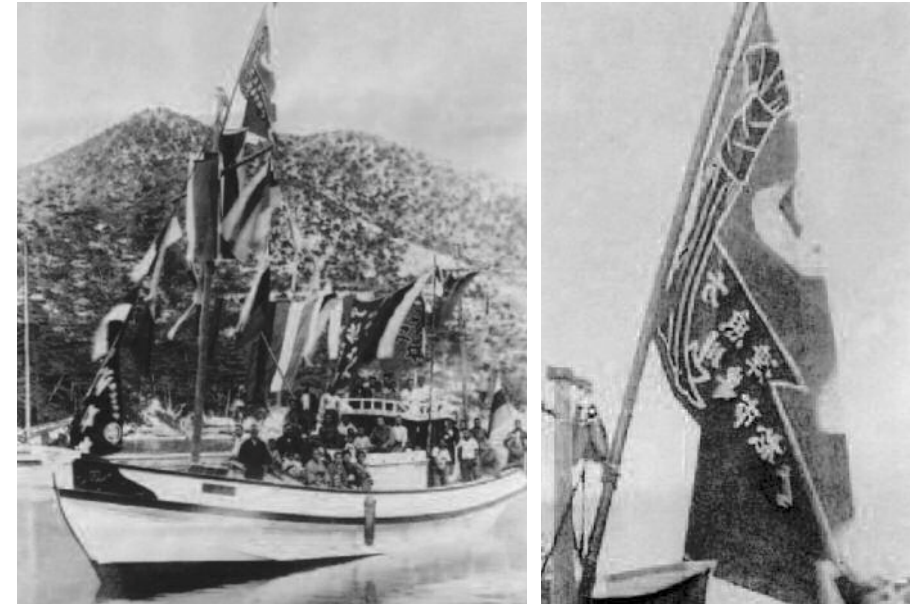
44) 拓植局(1911). 『植民地ニ於ケル内地人ノ漁業及移民』, p.27-28.

45) 日生町の韓国交流史.

어민을 이주시키고 관리하거나 근거지 경영을 통해 이권을 노린 것이었다. 출어단의 구체적인 활동은 어민을 단원으로 하고 단장 및 분단장을 두어 출어지역의 감독뿐만 아니라 근거지 경영을 위해 해마다 현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조선해수산조합 소유지의 땅을 임차받아 어민 숙소를 건축하고, 출어자 중 병자를 위한 약품 공급, 금전 공탁, 본국과의 통신 등 어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반면에 불량 행위도 단속했다.⁴⁶⁾

이와 같이 러일전쟁 후 한적한 벽촌 방어진에 1905년부터 일본인 어부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개벽의 아침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1908년 한일어업협정체결로 인하여 일본은 한반도의 어장을 그들의 손에 넣고 식민지화할 수 있었다. 방어진을 비롯한 한반도 연안에 일본 어민들을 본격적으로 이주시킨 목적은 첫째, 어장을 일본 근해에서 조선 연안까지 확장하고 이주어촌을 건설함으로써 어업의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고, 둘째, 조선연해에서 소형 어선의 통어는 왕복에 많은 일수를 요할 뿐만 아니라 어선의 조난이 증가하자 근거지가 필요했으며,⁴⁷⁾ 셋째, 어획물의 변질 우려 때문에 조선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지도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러일전쟁 승리 후 2년간(1906-1907년) 일본 내에서 만한경영(滿韓經營) 즉 만주와 조선에서의 기업 경영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유행처럼 번진 것도⁴⁸⁾ 한몫을 했다.

따라서 벽촌 방어진에 일본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어업 및 식민정책과 통어 폐해의 보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방어진 출어단. 우측 사진은 좌측 사진 선박의 깃대 상단을 확대한 것인데 한자로 '方魚津'이란 글씨가 또렷이 보인다(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46) 大阪朝日新聞(1914. 3. 13).

47) 吉田敬市(1954).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p.247.

48) 清水文之輔(1997). 論說: 事業選擇の指針を誤る勿れ, 富之朝鮮 1, p.5.

방어진, 식민이주 신도시가 건설되다

일본의 조선해 어업이 통어(通魚)잡이 방식에서 이주 어촌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일제의 식민 정책의 일환이었다. 일본인 이주 어민은 방어진뿐만 아니라 장생포 등 조선 연안의 곳곳에 거주했는데 이들은 공동으로 자치단체인 일본인회를 조직했다. 1909년 12월 16일에는 방어진 독자의 일본인회가 조직되었는데, 141호에 613명(남 303명, 여 310명)으로 구성되었고,⁴⁹⁾ 카가와(香川)현 출신의 이주민 코오다(合田榮吉)가 회장을 맡았다. 코오다는 어업부(漁業部)를 만들어 생선을 어획하여 일본으로 운송하는 업을 하였으나 1923년 부산지방법원울산지청에서 실종선고⁵⁰⁾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해난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10년에는 치안을 담당할 주재소가 설치되었고, 방어진심상소학교의 개교 및 방어진우편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근대 도시로서의 기본 시설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어민들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장사하고자 했던 상인들도 이주하면서 일본인 이주자는 급증했는데 1910년 현재 이주자의 직업별 호수는 어업자 27호, 음식점 및 주점 46호, 이발업 6호, 목욕탕업 3호, 잡화점 등 상점 21호, 유희업 6호, 양조업 2호, 정미업·사진업·목수·석수 각 1호, 기타 5호 등 총 120호였다.⁵¹⁾ 이와 같이 1910년부터 방어진에는 식민이주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청어의 최성기에는 일본 각지에서 방어진에 출어했는데 야간 해상에는 화롯불(篝火叉) 또는 카바이드 와사등(瓦斯灯)⁵²⁾의 등불로 불야성을 이루었으

49)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09).

50) 조선총독부관보(1923. 12. 8).

51) 朝鮮海水産組合(1910). 朝鮮海水産組合月報 16호, p.10.

52) 카바이드 화학물질로 만든 가스등.

며, 어부들은 약 7,500명으로서⁵³⁾ 이들은 방어진을 들락거리면서 어선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술집, 음식점, 유곽 등을 찾았다. 1918년경에는 고등어가 소금들이 없어서 썩힐 지경으로 잡힐⁵⁴⁾ 정도로 방어진은 황금어장이었다. 이 무렵 천여 척의 선박이 항 내를 메워 해륙의 총인구가 무려 6만 명(일본인 호수 500호, 어부 1만 5천 명, 매춘부 3백여 명)에 이르는 등 방어진은 동안(東岸) 최대의 파시적 항시(波市的 港市)가 되었으며,⁵⁵⁾ 어획량이 전국 총 생산량의 10%에 이를 정도로 동해안 최대의 항구였다.

1921년에는 일본인 이주자가 496호에 3,073명으로서 정점을 이루었는데 이 시기 방어진에 거주한 조선인 수는 2,040명으로서⁵⁶⁾ 일본인 거주자가 더 많았다. 일본인 이주자 중에 어업 관련 종사자는 약 25% 정도였고, 나머지는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선어 운반, 조선, 목수 및 석공, 목욕탕, 이발소, 상점, 음식점, 유곽, 여관, 약국, 극장 등이었다. 조선인들은 주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업종에 고용되거나 잡무를 담당했다. 이후 거주 일본인을 위한 종교시설을 비롯하여 도로의 개설은 물론 교통수단과 전기, 전화 등이 들어옴으로써 방어진은 근대도시로 변모하게 됐다.

이와 같이 방어진은 1890년대 말 인구는 160명에 불과했는데, 20여 년 만에 근대적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조선인과 일본인을 합쳐 총 5,000여 명의 식민이주 신도시가 건설된 것이다. 방어진의 인구 유입은 일본 이주 어민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한 다양한 업종의 인원이 유입되었고, 조선인의 경우 방어진 이외 지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53) 福岡日日新聞(1915.10.17).

54) 매일신보(1918. 10. 22).

55) 吉田敬市(1954).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p.74.

56) 慶尙南道(1926). 慶尙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1921.



1917년에서 1920년 사이에 제작된 엽서로 추정. 방어진에는 인구가 2,500명이었고, 어기(漁期)의 인구는 15,00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파시(波市)란 고기가 한창 잡힐 때에 바다 위에 열리는 생선 시장을 말한다
(출처: <http://buyee.jp/item/yahoo/auction>).

한편 1920년대 식민이주도시 방어진에는 일본인과 일부 조선인 유지들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지만 일반 서민들은 고달팠는데 당시 신문에서는 방어진의 생활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방어진 유지 제군에게

(중략) 방어진이라 하면 경제적으로 울산군내 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 굴지의 어업 향으로서 장래 발전이 적지 않은 여망이 있는 곳이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을 보면 우리에게 하등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소위 방어진 주인공이 되는 유지 제군들이 사회적 생활이란 그 무엇인지 추호의 관념도 없이 그저 사리사욕에만 취하여 각기 유아독존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군이여!

우리 방어진의 1,000여 호 중에 400여 호나 되는 일본인을 제외해도 백의동

포는 오백여호나 되는데 본정(本町) 혹은 신정(新町) 등의 주요지에는 일인 상점내지는 요리점이 즐비함에 따라 우리 백의동포는 저 월봉사 앞산으로 점점 쫓기어 가는 동시에 일정한 직업도 없이 다만 저 창해만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다. 아! 무산대중은 어계의 부진으로 호구도 못하고, 기근에 신음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은 배우려고 하여도 배울 곳이 없어 노상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소위 유지라는 제군은 이런 참상을 이문목도(耳聞目睹)하면서 감각도 없이 폭음 탕류로만 소일하니 이것이 어찌 통탄할 바가 아닌가? 제군이여서 속히 맹성하여 허영의 공상을 버리고 멸망하여 가는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 노력할지이다.”⁵⁷⁾

57) 동아일보(1925. 6. 10).

제2부

근대 방어진의 공공기관

- 방어진학교조합
-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
 - 방어진우편소
 - 방어진소방조
 - 세관
 - 등면사무소
 - 방어진어업조합
 - 방어진의 금융기관

방어진
그대의 작은 길라

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방어진학교조합

학교조합은 일제강점기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전 조선 각지에 설립한 공공법인 지방단체로서 1909년부터 1944년까지 지속적으로 설립됐다. 통감부가 1909년 12월 27일 제정한 학교조합령 제1조는 학교조합은 법으로 하고 관의 감독을 받아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교육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사무란 일본인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를 운영했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 지원해주는 것이었다.⁵⁸⁾ 즉 지금의 교육청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한편 1909년 방어진의 일본인회 설립 시 일본인의 호수는 141호, 인구는 613(남 303명, 여 310명)으로 조사됐는데 일본인회의 주 업무 중의 하나가 그들의 자녀 교육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인회는 1910년 6월 4일 방어진학교조합이 설립되면서 해체되었으며, 그 사무를 방어진학교조합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 각지의 일본인회는 전부 해산되고 학교조합으로 합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⁵⁹⁾ 학교조합은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당시 행정관공서 역할도 수행했는데 세금 징수 등 일본인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했다.

1913년 10월 학교조합령이 공포되면서 학교조합이 교육에 관한 사무만 취급하고 나머지 행정업무는 조선총독부가 직접 관장했다. 1914년 4월 부제(府制) 실시와 더불어 학교조합령을 적용할 필요는 없었으나 일본인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사업만은 일본인만으로 조직된 학교조합에서 경영하기 위한 것이었다.⁶⁰⁾ 따라서 학교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내에 소재한 일본인들로 구성됐고,

조합비를 내야 했으며, 운영은 선출된 조합회 의원들이 했는데, 이들은 명예직이었다.⁶¹⁾ 이와 같은 학교조합은 지금의 학부모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방어진학교조합의 관할 범위는 1910년 설립 당시 울산군 동면 내 전하동과 염포동 이남 일대였으나⁶²⁾ 1914년에는 방어진학교조합구역의 변경이 허가되면서 울산군 동면 내 동부동, 서부동, 주전동, 미포동, 전하동, 일산동, 화정동, 방어동, 화암동, 염포동으로 확대됐다.⁶³⁾



1930년 방어진 지도 속의 방어진 학교조합(출처: 대일본직업별명세도, 동경교통사, 1930).

58) 조미은(2004).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교조합 설립 규모. 수선사학회, 22권, pp.43-81.

59) 매일신보(1910. 11. 17).

60) 매일신보(1913. 11. 2).

61) 조선총독부관보(1913. 10. 30).

62) 조선총독부관보(1910. 6. 4).

63) 조선총독부관보(1914. 10. 9).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를 보통학교,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소학교로 구분했는데 소학교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를 말한다. 소학교는 심상소학교와 심상고등소학교(尋常高等小學校)로 구분됐고, 6년제의 심상소학교를 졸업해야 상위 학교인 심상고등소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심상(尋常)이란 보통 평범함을 말하는데 ‘심상찮다’라는 표현은 보통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소학교의 교원을 훈도(訓導)라고 했으며, 1912년에서 1919년까지는 전 교원이 칼을 차고 수업하는 등 그들의 무단정치가 교단에까지 뻗었다.

방어진에 집단 이주한 일본인들은 그들의 자녀가 다닐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1910년 5월 3학급 규모의 방어진심상소학교를 개교했는데 울산군 내 심상소학교로서는 1907년 울산심상소학교(현, 양사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였다. 심상소학교의 경우 학교조합의 부담으로 설립한 것을 공립심상소학교라 하고, 사인(私人)의 비용으로 설립한 것을 사립심상소학교라 했으며, 방어진심상소학교의 경우 방어진학교조합이 운영하였으므로 공립이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관보와 신문기사 등을 종합하면 1910년-1919년 사이에는 방어진심상소학교, 1922년부터는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러한 기록을 유추해 보면 1910년에 방어진심상소학교로 개교했으나 상위학교의 필요에 따라 1922년부터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22년 총독부 주최의 교육관계자로 조직된 북지학사(北支學事) 시찰단에 방어진공립심상고등소학교 교장 오오쓰보(太坪辛十郎)가 포함되어 있는 신문기사⁶⁴⁾에서 확인할 수 있다.

64) 매일신보(1922. 10. 5).

방어진의 조선인 아동들은 일본인들이 다녔던 심상소학교에는 거의 다닐 수 없었고, 1907년에 설립된 사립 개운학교⁶⁵⁾에 다니거나, 1922년 5월에 일산리에 설립된 노동야학의 4년제 사립 보성학교(普成學校)를 다녀야 했다. 1934년 4월에 방어진공립보통학교⁶⁶⁾가 개교되어 방어진의 조선 아동들이 지역의 보통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방어진공립보통학교는 4년제 2부 수업을 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지원 아동의 1/4분도 수용하지 못하자 이에 방어진 유지들이 학관증가와 학년연장기성회를 조직하여 각 방면으로 맹활동을 개시했는데 그 결과 예산 9,000원 중 6,000원이 들어왔고, 부족액 3,000원 중 2,000원은 나카베(中野幾次郎)에게 청원하기도 하였다.⁶⁷⁾

한편 일제강점기 심상소학교에는 반드시 일본인 아동이 다녔던 것이 아니라 조선아동도 다닐 수 있었는데 월사금⁶⁸⁾을 일본인들보다 갑절 이상 내야했고, 일학년에 한하여 이십원 가량의 특별기부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성명과 의복까지도 일본식으로 고쳐야 하는 등⁶⁹⁾ 입학 조건이 까다로웠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 말 식민지 조선인의 전쟁동원을 위해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⁷⁰⁾의 명분으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는 명목 하에 1938년 3월 3일 ‘조선교육령(개정)’을 공포했다. 이때 일본 본토와 동일하게 기존의 보통학교는 ‘(심상)소학교’,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 여자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1년에는 ‘국민학교령’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심상)소학교는 일본인 학교건 조선인 학교건 모두 ‘국민학교’로 통칭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통의 조선인 아동이 ‘심상소학교’라는 명칭의 학교에 다닌 기간은 1938

65) 1920년에 동면공립보통학교로 변경, 현 남목초등학교.

66) 현, 화진초등학교.

67) 매일신보(1936. 10. 31).

68) 학교에 다달이 내는 수업료.

69) 매일신보(1916. 10. 22).

70) 1937년 일제(日帝)가 전쟁 협력 강요를 위해 취한 조선 통치 정책으로서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이며, 조선에 대한 일제 식민 정책의 표어.

년에서 1941년 사이 3년뿐이었다. 국민학교란 명칭은 조선인을 일본국의 신민(臣民), 곧 국민(國民)을 만들려고 했던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이 명칭은 8·15 광복 이후에도 행정편의 등의 사유로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오다가, 1996년 3월 1일부터 일제 잔재의 청산 차원에서 초등학교로 개칭됐다.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 교정에는 이 학교 건립에 헌신한 나카베의 공적비가 한쪽에 있었고, 칠생보국(七生報國)이란 글씨가 새겨진 구스노키(楠木正成) 장군의 동상이 지키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일제강점기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 교문. 학교 간판이 '방어진공립심상고등소학교'라는 글씨가 뚜렷이 보인다(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위 사진 속 교문의 현재 모습. 이 교문은 현재 후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뒤에 보이는 교사는 당시에는 없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는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폐교되었다가 1946년 4월 25일 방어진국민학교로 다시 개교했다. 이후 교정에 있었던 나카베(中 部幾次郎)의 공적비와 구스노키 장군의 동상은 일제 잔재의 청산 차원에서 사라졌고, 1996년 3월 1일부터 방어진초등학교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0년 방어진초등학교는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1930년대 중반부터 광복 직전 까지 이 학교에 다녔던 오카야마(岡山)현 비젠(備前)시의 일본인 미나미(南友江, 78·여)와 가와사키(川崎, 80·남)를 초청했다. 미나미 씨는 “건물도 운동장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변하지 않은 것은 아름답다는 것 뿐이다.”라고 소회했다. 당시 학교 이름은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였는데 학생 수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모두 합해 140명 정도였다. 1945년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으면서 130명의 일본인 학생들은 일본 오카야마현 비젠시로 돌아갔다. 비젠시는 이전의 히나세(日生) 촌으로서 이곳의 많은 일본인들이 1910년대 방어진에 집단 이주하여 살았다는 점에서 방어진과 비젠시의 인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10년 방어진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제막식 때 모교를 방문한 일본인 미나미(南友江·78·여)와 가와사키(川崎·80·남)의 기념촬영 모습(자료:울산광역시 동구청). 가와사키는 1930년 방어진에서 태어났고, 미나미는 히나세(日生)에서 출생하여 1932년에 방어진에 이주했는데 모두 방어진심상고등학교에 다녔었다.

방어진우편소

1930년 방어진 지도상에는 방어진우편국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우편국보다는 규모가 작은 우편소였다. 울산에 우편 관련 기관이 들어선 것은 1905년 5월 울산임시우체소이며, 1910년 10월에는 북정동 동헌 앞에 울산우편국이, 방어진에는 우편사무소가 개국하여 전신사무를 개시했고,⁷¹⁾ 이듬해에는 전화통화사무도 개시했다. 1912년부터 부산 - 방어진 간 우편물 수송은 항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1921년에는 울산 - 방어진 간에 자동차로 우편 배송이 개시됐는데 부산과 경성으로부터 방어진까지 우편물과 신문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⁷²⁾ 그리고 1923년에는 울산우편국과 방어진우편소 간에 전화 교환업무가 개시됐다.⁷³⁾

당시 방어진우편소의 소장은 일본인 이시가와(石川 貞文)로서 그는 1910년부터 사무원으로 근무하여 1920년에 소장으로 진급했는데 1940년까지 약 30년간 근무했다. 한편 1935년 방어진 모 우편소원은 돈을 내줄 사람에게 돈을 안 주고 판 사람에게 주는 바람에 고소까지 당하기도 했는데⁷⁴⁾ 당시 우편소에서 금융 업무도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체통. 방어진우편소에도 이러한 우체통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출처:네이버 블로그/시간과 공간의 향기).

71) 매일신보(1910. 11. 1).
 72) 동아일보(1921. 9. 28).
 73) 동아일보(1923. 5. 11).
 74) 동아일보(1935. 12. 22).

방어진소방조

일제강점기 각 지역에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민간조직의 소방조(消防組)⁷⁵를 설치했다. 즉 의용소방조(義勇消防組) 형식이었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하면서 비상시에 동원되는 상비체제로 운영됐다. 소방조의 조직은 책임자인 조두(組頭)를 중심으로 그 밑에 소두(小頭)를 두었고, 나머지는 소방수(消防手)로서 3계급으로 구성됐다. 소방조의 지휘 및 감독은 경찰이 하였고, 비용은 군·읍·면이 부담했다. 소방조에는 소방장비의 보관은 물론 조원이 대기하고 실 수 있는 대기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힐소(詰所)라고 했다. 1930년 방어진 지도에 표기된 소방힐소(消防詰所)는 소방대원이 대기하는 대기소로서 결국 소방조를 일컫는다.

방어진에 소방조가 설치된 것은 1914년경으로 추정되며 1914년 초기 방어진 의용소방조의 소방수는 하시즈메(橋詰三治郎), 오가와(小川鶴吉), 카가와(香川竹市) 등이었고, 이 중에서 하시즈메는 1932년에 조두(組頭)로 임명되기도 했다. 방어진의 소방조는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각종 해난 사고 시 인명구조의 역할도 담당했다.

이주 어촌 방어진에는 일본식 목재가옥이 밀집하여 화재에 취약했다. 1936년에는 방어진 초유의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신문기사는 화재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생생히 전하고 있다.

“동해안 굴지 어항 방어진항에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요지인 중앙통에 있는 재봉업 고거시태랑(高居時太郎)의 집에서 발화되어 때마침 부는바람에 불꽃은 삼시간에 밀집된 이웃으로 번졌다. 방어진항에서도 중요한 건물들

75) 지금의 소방서에 해당.

이 즐비한 이곳은 상점, 전기회사, 금융조합, 주재소, 어업조합 등이 있는 곳으로써 즉각적으로 방어진 소방조의 출동과 주재소와 청년단의 협력으로 진화에 노력하였으나 불행히도 소방기구에 고장이 생겼고, 방어진 일대를 휩쓸듯 한 기세이므로 울산소방조와 경찰 당국에 급보를 보냈다. 울산서에서는 비상소집을 내려 울산서와 울산소방조, 병영소방조 등 백여 명이 출동하여 진화에 전력을 다한 결과 오후 1시경에 겨우 진화를 보았으나 불과 두 시간의 화재로 인하여 방어진 요처인 주재소 앞 전부를 소진해 버리고 울산군내 소방조의 총출동을 보게 하였으니 화재 현장은 극에 달하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불에 탄 가옥은 36호에 달하는데 그중 전소는 29호, 반소는 7호이며, 총 손해 금액이 8만 원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으나 소년 한 명이 진화하는 현장에서 부상되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화재의 원인은 고거시태랑(高居時太郎)의 집에서 난 실화인 듯하며 상세한 내용은 조사 중에 있다. 금번 방어진 대화는 실로 울산군내의 미증유한 대화로써 방어진 초유의 대참변을 일으켰다(중략). 대가주인 임겸(林兼) 이외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없으므로 피해는 한층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는 다른 장소로 이전할 준비를 한다고 말뚝히 모아둔 현금 2,000여 원을 모두 태우고 어제까지 남부럽지 않을 만큼 상업을 하다가 노상에 방황하게 된 사람도 있으며, 또한 그날그날 고기잡이로 연명하는 어부의 유일한 생명선인 어망을 태워버린 불쌍한 어민도 있다.”⁷⁶⁾

일본은 태평양전쟁 기간 중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을 대비하여 1936년 소방조를 경방단으로 개편했다. 이에 조선에서도 소방조를 개편했는데 방어진은 1939년에 단행되었다. 이에 대한 신문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방어진 소방조 방호단(防護團)을 해체하고 강력한 통일경방단 조직체인 방어진 경방단(警防團) 결단식을 지난 1일 방어진 신사 앞에서 관민 다수와 단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단장에는

76) 동아일보(1936. 2. 28).

오오바이시(大林金次郎), 부단장에는 오오구시(大串) 등이(중략) 임명되었다.”⁷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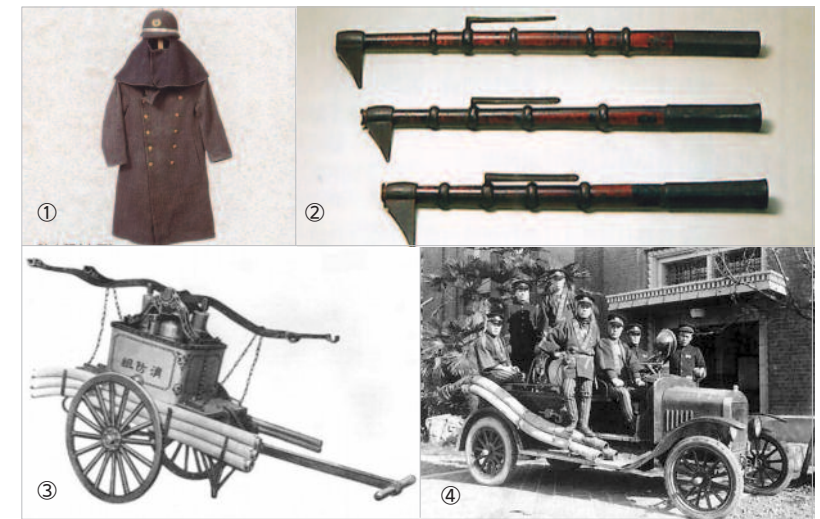
1927년 군산소방조 건물로서 소방차와 소방조원의 모습이 보인다. 방어진소방조는 이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출처: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1927년경 불조심 표어. '바람이 심하니 불을 조심'이라는 내용이 이채롭다(출처: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방어진소방조가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모텔이 들어서 있다(2016년 4월 현재).



소방조의 장비 ① 방화복 ② 불을 끄는 쇠갈고리 ③ 소방호스와 펌프기 ④ 소방차

77) 동아일보(1939. 10. 8).

세관

일제강점기의 세관 시설은 중앙과 지방의 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에는 관세행정 주무관서로 세관과 등대국(燈臺局)을 감독하는 탁지부(度支部)산하의 관세국(關稅局)이 있었고, 지방에는 세관, 세관지서, 세관출장소, 세관과출소, 세관감시서 등 수출입품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관 등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세관시설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세관은 대한제국 시기에 운영되어오던 인천, 진남포, 원산, 부산 4곳의 세관을 계속 유지하여 4세관체제로 운영됐고, 1925년에는 인천, 신의주, 부산의 3세관체제, 1937년에는 인천, 신의주, 나진, 부산의 4세관 체제로 관세행정을 개편하여 운영했다.

1919년경 방어진의 수산물 무역이 활발해지자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 허가, 관세의 부과 및 밀무역 근절을 위한 세관이 필요하게 됐는데 부산세관 소속의 방어진 세관감시서가 설치됐다. 방어진 세관감시서는 1923년에 세관출장소로 신설됐고, 1924년 방어진항은 세관 지정항으로 선정됐다. 세관 지정항이 된 후 우편국은 이입(移入) 우편물이 도착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했고, 우편물을 검사할 때는 우편국 직원이 입회했는데⁷⁸⁾ 이는 우편물을 통하여 일본과 대만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었다.

세관 업무의 양이 과다하자 방어진 세관출장소는 1930년 방어리 341번지로 확장 이전했는데, 그해 11월 방어진 후지타(藤田勝臈)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있었던 세관이 반소 되기도 했다.⁷⁹⁾



세관이 있었던 곳(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78) 조선총독부관보(1923. 3. 28).

79) 매일신보(1930. 11. 19).

동면사무소

1910년 10월 울산군 동면(현 울산광역시 동구지역) 사무소는 서부리(남목)에 있었다. 남목은 조선시대부터 병마를 기르던 목장의 관아가 그곳에 있어서 동면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다. 동면 사람들이 울산부내로 가거나 주전 및 정자 쪽을 가기 위해서는 남목을 거쳐야 했으므로 남목은 교통의 요지였다. 그러나 1910년 이후 방어진에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기 시작하자 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각종 공장과 상업시설들이 밀집하게 되자 인구도 방어진에 집중화되었다. 따라서 방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면사무소가 남목에 있는 것에 불편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면사무소의 이전이 거론되어 1924년 단행을 결정했는데 남목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에 당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면사무소 이전에 따른 면협의원(面協議員)을 소집하고 가부를 결정하였는데 민심이 비등한 원인은 현재 면사무소를 면장이 자기의 주택 근방인 방어리에 이전하고자 하는 야심 때문이었다. 즉 일본인 437호를 위하여 조선인 1502호의 불편을 추후도 생각 없이 가부결정 전일에 면서기를 시켜 찬성문을 조선인 협의원에 회사하여 사기적 수단으로 날인하게 하게 한 것이다. 그 사실이 결정 당일에 폭로되어 가부결정의 그 석상에서 날인한 면협의원으로부터 면장과 면서기가 기만하였으므로 날인한 서면을 파기하라고 분개하였다. 면협의원을 대상으로 가부결정은 거수로 결정했는데 현재 면사무소가 좋다는 거수가 다수임에 불구하고 소수의 거수를 택한 것에 대하여 탄원까지 하였다.”⁸⁰⁾

그러나 동면사무소는 1925년 12월 방어진우편소 옆 방어리 413-1번지로 옮

80) 동아일보(1924. 8. 30).

겨졌다. 당시 면장은 이종태(李鐘泰)였고, 그는 각 리(里)를 순회하여 현재 조선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연하기도 했다.⁸¹⁾

1931년에는 동면에서 면의 이름이 방어진면으로 바뀌면서 방어진면사무소가 되었고, 1937년에는 방어진읍으로 승격되자 기존의 면사무소를 확장하여 읍사무소를 신축 건립하기로 계획했으며, 나카베(中野幾次郎)를 중심으로 15,000원의 공사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광복 후에도 읍사무소로 유지되었으나 1962년 울산이 시로 승격되면서 방어진읍은 울산시에 편입되었고, 읍사무소는 방어진출장소로 변경되었다. 1985년에는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중구 방어진출장소에 편입되었고, 1988년에는 방어진출장소가 동구로 승격함에 따라 동구청으로 사용되었으며, 1995년 동구청이 신축이전하게 되자 방어동동사무소로 사용했다. 그리고 2004년 현대식으로 신축되어 지금은 방어도동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방어1구 동사무소(방어진출장소) 신축준공식.

81) 동아일보(1925. 8. 9).



1988년 방어진출장소는 동구로 승격함에 따라 동구청으로 사용되었다(사진 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1925년 12월 방어진우편소 옆에 건립된 동면사무소는 1931년 방어진면사무소, 1937년 방어진읍사무소, 1962년 울산시 방어진출장소, 1988년 울산시 동구청, 1995년 방어동동사무소, 2004년 현대식으로 신축되어 지금은 방어동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방어진어업조합

일제강점기 울산 연해에는 우뚝가사리와 해초류 등 품질이 양호한 해조류가 많아 매년 제주 해녀 및 일본 미에(三重)현 등지에서 도항하여 1년에 10만원 이상에 달하는 어획물을 채취해 가져 이를 막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1913년 3월 26일 울산지역에 대현면어업조합, 온산·청량면어업조합, 강동면어업조합, 서생외다남면어업조합, 동·하상면어업조합 등 5개 어업조합을 설립했다.⁸²⁾ 방어진은 동면과 하상면을 묶은 동·하상면어업조합에 속했다. 이와 같이 울산 연해의 어업권을 보호하고자 울산지역의 어업조합이 탄생된 것이다.

1911년에 제정되어 1912년에 시행에 들어간 조선총독부의 어업령 제1조는 “어업권이라 함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9조는 “어업조합 및 수산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설립·관리·감독 기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라고 하여 조선의 모든 어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울산군 동면어업조합에게 어업면허를 인가해 주었는데⁸³⁾ 이때부터 독자적인 동면어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수백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다.

1920년대 울산지역의 어업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등 지탄을 받았는데 당시 신문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합원은 무산자로서 위협을 무릅쓰고 분투노력하여 일일연명하고 있다. 어장은 모두 외지인에게 피탈되고 있는데 조합은 자기 이익만 내세우고 있다. 공동판매를 위하여 전무이사를 초빙하여 매월 높은 급료를 주고 있는데 전무

82) 매일신보(1913. 3. 27).

83) 조선총독부관보(1914. 10. 23).

이사는 횡포가 심하여 조합원에게 극한 해가 되고 있다. 어획물 공동판매는 한 사람이 매점하고 있으며, 경매의 형식도 밟지 아니하고 매매의 수량, 가격만 조사하여 수수료만 착취하니 이 무슨 농간인가. 어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조합이 도로 착취기관으로 변하였다. 조합 직원의 급료 지불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선에서 일하는 조합원을 위하여 반성하라.”⁸⁴⁾

1923년 동면어업조합장은 김두헌(金斗憲)이었으며, 농수산물평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30년에는 조합이사가 서기와 공모하여 조합비 만여원을 횡령하는 사고도 발생했다.⁸⁵⁾ 동면어업조합은 1933년에 명칭을 방어진어업조합으로 변경했으며,⁸⁶⁾ 어획물을 배에 싣기 위해 잔교 가설과 수면 매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은 대자본 어업가를 옹호하고, 소어업자들을 위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불평불만을 많이 받았다. 급기야 조합의 총 대의원 선거에서 소어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8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으나 당시 집행부에서는 글을 모르는 조합원은 글을 아는 가족이 대신 투표하는 관행을 문제 삼아 재선거를 시도하려는 소동도 있었는데⁸⁷⁾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933년 12월 방어진어업조합원 300여 명은 상반관 극장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대의원 재선거에 반대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작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후 실행위원 8명을 선출하여 조합당국과 군당국에 전보로 통지한 후 산회했는데 결의문 내용은 방어진어업조합 총 대의원 재선거를 반대하고, 방어진 어업조합 이사 전부를 불신한다는 것이었다. 임시총회 후 조

합원 100여 명은 그 길로 방어진어업조합에 쇄도하여 요시다(吉田)이사를 잡아내어 축출시키려는 상황이 벌어지자 주재소원이 막아 무사하였다. 이영춘 외 8명의 실행위원은 김성한 군수를 방문하여 진정서와 총회에서 결의된 선언서와 결의문을 직접 제출했으며, 조합원일동은 요시다 이사와 조합장 김두헌의 사직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방어진어업조합은 창립이 벌써 20여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동안 조합원은 약 600여명에 달하여 울산군내에서 제일의 조합으로 명성이 높지만, 어업자들은 한조각의 어선으로 바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에 문자를 해석하는 조합원이 10명 중에 한 명 정도로서 그간 수차의 총 대의원 선거에도 항상 자서 불능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족 중 문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리투표를 하였다. 금번 대의원 선거에서도 예년과 같이 조합 관내 각 부락에 선거소를 두고 경찰관과 지명된 조합원 입회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투표한 후 개표한 결과 이영춘 외 8명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동 조합에서는 당선인에게 하등의 통지를 하지 않고, 다시 총 대의원 선거를 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는데 조합원은 괴이한 조합 당국의 행세에 분개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석연치 않은 화답으로 이러한 사태를 야기했다. 이후 면에서는 평소 동 조합의 이사가 대자본 어업가만 옹호하고 소어업자의 이익을 위한 하등의 시설과 노력이 없어 수년간 불평불만이 한꺼번에 폭발되어 사태는 매우 증대되었다고 한다. 각 책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김두헌 : 조합장으로서 미안한 것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생각하건데 금번 선거문제보다는 평소 조합에 대한 불평불만이 근본 원인이므로 깨끗하게 사직할 각오가 되어있다.

요시다 이사 : 책임자로서 석명(釋明)을 미루고, 지금으로써는 아무 말을 못드리니 미안하다.

울산군수 : 조합원 전체 의사라고는 볼 수 없다. 조합원 대의원 재선거를 할까 말까 하는 것은 아직 미정이지만 규약에 위반한 것은 사실이니 규약을 개

84) 동아일보(1926. 1. 11).

85) 매일신보(1930. 6. 29).

86) 조선총독부관보(1933. 8. 29).

87) 경성일보(1933. 12. 3).

선하기 전에는 당선 대의원을 그대로 임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합에서 군당국의 지지도 없는데 대리투표를 오늘까지 행하여 왔다는 것만은 큰 잘못이지만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는 것도 실책이다. 조합원이 평소 불평불만이 많다고 하니 생각해 보겠다.

조합원 이종태 : 어업가의 번창은 방어진의 발전이 되겠으며, 방어진어업조합은 방어진 어업가로 조직된 만큼 조합원 대중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 조합은 평소 대자본가 대어업가의 이익만 옹호하였지 우리들과 같은 소어업자는 하등 문제도 취급하지 않았다. 방어진어업조합이 금일까지 소어업자의 이익을 위한 시설과 노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방어진 어업자들은 생활불능에 이르게 되었고, 방어진 어업자의 부진으로 인하여 방어진 전체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600여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헤치고 있는 동 조합 책임자들은 우리 조합원으로서는 향후 절대로 신임할 수 없다.”⁸⁸⁾

결국 조합원의 의사가 관철되어 분규가 해결되었으나⁸⁹⁾ 요시다 이사는 연임되었고, 이후 조합원의 이익을 반영했다. 1937년 방어진이 읍으로 승격하자 동해안의 왕좌를 점하고 있는 약진 방어진항의 중심기관인 어업조합은 재래의 부지와 건물로는 비좁고 불편하여 요시다 이사의 주도하에 확장공사를 했는데 1000여 명의 조합원과 40여명의 중개상인이 즐거워했다.⁹⁰⁾ 요시다(吉田義男)는 1920년 조선총독부 수산과에 기수로 입사하여 1929년 강원도 수산시험장 산업기사를 거쳐 1930년대 초반부터 방어진어업조합의 이사로 재직했으며, 1939년 방어진을 방어리 391-5지선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의 건을 조선총독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무렵 전후의 조합장은 방어진양조장을 운영했던 윤덕호(尹德鎬)였다.

88) 조선중앙일보(1933. 12. 2).
89) 조선중앙일보(1934. 2. 11).
90) 동아일보(1937. 10. 3).

방어진어업조합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울산수협 방어진 지점으로 바뀌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1939년 방어진어업조합 부근의 방어리 391-5지선 공유수면매립공사 평면도 (출처: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15611).



1935년 방어진어업조합 건물과 임직원(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방어진어업조합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울산수협 방어진지점으로 바뀌어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방어진의 금융기관

방어진금융조합

오늘날 농업협동조합의 모태가 되는 금융조합은 한 말 일제가 지방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1907년 각 지방에 금융조합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지방 금융조합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소액의 농업경영자금을 취급하는 것에 그쳤으나 점점 농촌 및 도시의 주요한 말단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 업무는 물론 일제의 각종 정책 사업을 맡거나 지원하는 등 업무가 확장되었다.⁹¹⁾

1913년 조선총독부는 울산금융조합이 포함된 경상남도 지방금융조합의 업무 개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금융조합에 대한 성격과 취지를 설명했다.

“본기(本期)는 농작(農作) 불량으로 일반경제가 현저히 긴축을 고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근래 일본인의 이주자가 차츰 증가하고 또 토지의 매수가 성행하여 지가의 폭등이 심했으며 특히 동양척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기말(期末)에 있어서의 지가(地價)는 전월말(前月末)에 비해 2배 내지 3배를 넘은 것도 있었다. 이러한 방자(放資)는 지방금융을 잘 조화하여 큰 금융의 핍박을 보지 않고 해를 넘기는데 이르렀다. 그리고 조합의 업무는 해를 거듭하면서 진척하였고 공동구입 위탁판매 등의 업무도 시기에 적합하게 수행되어 점차 양호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⁹²⁾

1914년에는 지방금융조합령을 발포했는데 주요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저금 취급을 업무로 추가하였다.⁹³⁾ 이면에는 일제가 식민지

91) 국가기록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2) 조선총독부관보(1913. 8. 2).

93) 조선총독부관보(1914. 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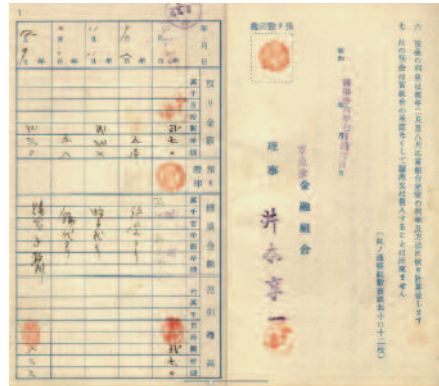
어용금융기관인 금융조합을 통해 한국인에 대한 고리대금 수탈을 더욱 강화하려는 방안이었다.⁹⁴⁾

어쨌든 방어진에도 일본인 이주자를 비롯하여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의 규모가 커지자 1924년 방어진금융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창립일은 다음의 신문기사에서 5월 30일임을 알 수 있다.

“울산군 동면 화정리에 사는 현재 방어진금융조합 급사 김옥윤(24세)은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경에 동리 오불암 입구 고목나무에 목을 매고 죽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평소와 자기 큰형과 사이가 좋지 못하던 중 지난 5월 30일은 금융조합기념일이라 술을 잔뜩 먹고 자기 형과 말다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 길로 나가 술을 사서 밤중에 산신제를 지내고 죽은 것이라고 한다.”⁹⁵⁾



방어진금융조합 출자증서(출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독립기념관 소장). 1925년에 발행된 것으로 당시 조합장 이종태와 이사인 요시다(吉田外喜太郎)의 도장이 찍혀 있다.



1941년 방어진금융조합의 통장(출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독립기념관 소장).

방어진금융조합 설립 당시 조합장은 이종태(李鍾泰), 이사는 요시다(吉田外喜太郎), 감사는 다이리키(大力章二), 김두헌(金斗憲), 이득우(李得雨) 등 3인이었으며, 출자는 일금 10원이었다.⁹⁶⁾ 이후 1927년부터 1933년까지는 방어진 어업조합장을 역임했던 김두헌(金斗憲)이 조합장을 맡았다. 김두헌은 1927년부터 1934년까지 동면 면장을 지냈는데 금융조합장과 면장을 겸직했다고 할 수 있다.



방어진금융조합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모텔이 들어서 있다(2016년 4월 현재).

부산상업은행 방어진지점

1930년 방어진 지도상에는 부산은행 방어진지점으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부산상업은행 방어진지점이다. 본사인 부산상업은행은 1913년 부산에 설

9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조선침략일지.

95) 동아일보(1931. 6. 5).

96) 조선총독부관보(1924. 4. 7).

● 방어진 근대의 길을 걷다

립되었고, 방어진 지점은 자본금 50만 원으로 1919년 설치 허가를 받았다.⁹⁷⁾ 1935년 부산상업은행이 조선상업은행에 합병되자 방어진지점도 조선상업은행 지점으로 바뀌었다.



방어진주채소 건너편 부산상업은행 방어진지점이 있었던 곳은 현재 가정집으로 바뀌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방어진
그대의 고향길라

97) 조선총독부관보(1919. 10. 11).

제3부

근대 방어진의 건설

- 방어진항과 방파제 축조
- 방어진, 울산본부보다 전기가 먼저 들어오다
- 울산자동차 방어진지점
- 방어진상설시장

방어진
그대의 갈은 길라

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방어진항과 방파제 축조

방어진에 이주한 일본 어업자들은 방어진항이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만의 입구에는 슬도(瑟島)가 파도를 다소 막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항만과 방파제만 축조되면 어업전진기지로서 최적으로 판단했다. 이에 1910년 2월 방어진 일본인회 회장 코오다(合田榮吉)는 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축항을 계획하고 허가를 받았다. 보조금 800엔, 총공사비 6천여 엔을 들여 1910년 10월 방파제를 준공했다. 그러나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연장은 불과 80m였고, 6백여 평을 매축하여 유효수면적 11,500㎡를 확보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어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1914년 여름 대 폭풍으로 파손되자 1915년 개수 축조했지만 더 큰 방파제가 요구되었다.⁹⁸⁾



항을 축조하기 전에는 소형 어선이 물자를 날랐다(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

98) 朝鮮水産組合 編(1915). 朝鮮水産組合業務成績一斑, p.103.

1920년에는 방어진 해안에 폭풍경보신호소를 설치⁹⁹⁾하여 재난을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1920년대 전국의 피난항 300여 개소는 천연 상태로 방치되어 매년 인명과 선박의 손상이 과다하여 항만과 방파제 축조가 시급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의 곤란으로 인하여 지방 단체가 항만과 방파제 축조를 축조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요한 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항만과 방파제를 축조하기 위하여 노력했다.¹⁰⁰⁾ 방어진 방파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하게 되었는데 당시 지역의 유지였던 나카베(中部), 히나가(日永), 야마가미(山上) 등을 비롯한 학교조합 유력자 등이 1920년부터 당국에 요청했고, 총독부에서도 필요함을 인정하여 3년 사업에 약 5천 평을 매축하기로 하였으며, 총공비 60만 원 중 반액을 국비로 보조하고 지방비 15만 원, 지역민이 15만 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여¹⁰¹⁾ 1923년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일본인 어부와 수산업자의 입장에서는 방어진에 선박이 정박하여 어류 및 물품조달이 용이하도록 항을 축조하고, 큰 파도를 막기 위하여 방파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1923년 종합잡지 개벽의 기행문에는 방어진 방파제 축조 당시의 방어진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어진은 남방부고(南方富庫). 속담에 울산을 알려거든 방어진을 보라하였다. 이 남방부고 방어진은 울산만 동갑(東岬)의 천연 항으로 동서북 삼면은 구름으로 둘러싸고 남방은 대해(大海)에 면하였다. 항구에는 슬도(瑟島, 속칭 나마꼬시마)라 하는 풍치적(風致的) 소도(小島)가 있어 풍량을 보장(保障)하고 항내는 수심이 심장(深長)하여 선박의 출입이 자유롭게 된 동해연안의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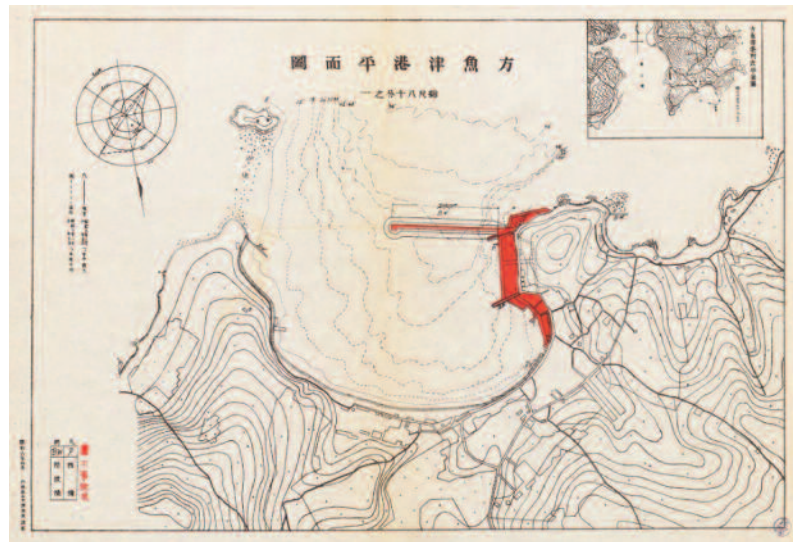
99) 조선총독부관보(1920. 2. 9).

100) 시대일보(1924. 4. 17).

101) 매일신보(1921. 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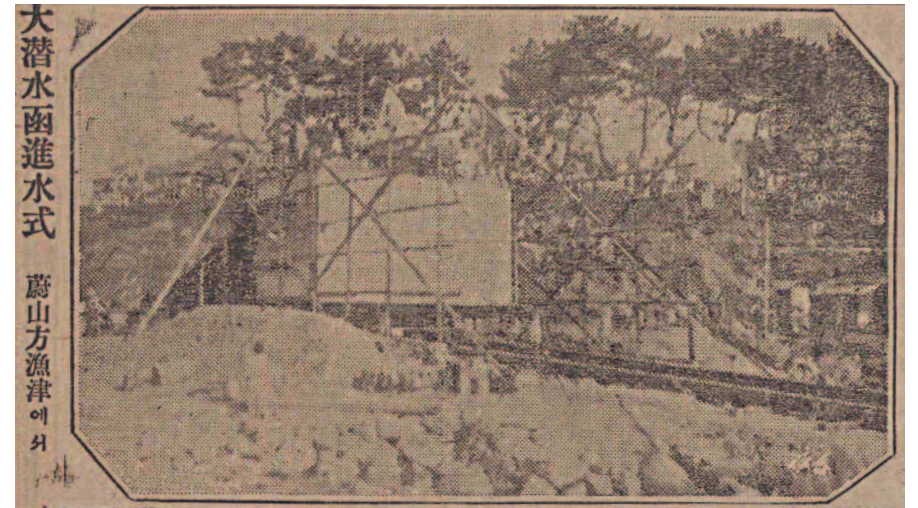
지 피난어항(避難漁港)이다. 근양(近洋)에는 청춘(鯖鱈)¹⁰²⁾ 및 기타 어류의 산(産)이 모두 이곳으로 집산하여 연 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산액(産額)을 얻으며, 매년 성어기에는 해상의 선척(船隻)이 1,500 이상, 인원 3만 명 이상을 초과한다. 항구는 세관 개정과 동시에 지정항이 되어 본 연도부터 5개년간 계속 사업으로 총공비 70만여 원의 거액을 투입하여 방파제를 축조하는 중이다.”¹⁰³⁾

방어진항과 방파제 축조는 1923년 11월 25일에 기공식을 가졌고, 1924년 4월 15일 사이토(齋藤實) 총독이 방어진에 방문하여 공사의 설명을 들을 정도로 관심사항이었다. 1925년 8월 1일에는 방파제 기초를 다지는 대잠수함진수식(大潛水函進水式)을 가졌으며,¹⁰⁴⁾ 총공사비 70여만 원을 들여 4년 5개월만인 1928년 3월 23일에 완공되었다. 방파제의 규모는 전장 280m, 높이 2.64m였으며, 그리고 7.27m의 등대를 설치했는데 항로표지를 3초마다 점멸하였고,



방어진항 평면도(출처:朝鮮總督府內務局(1931), 朝鮮港灣要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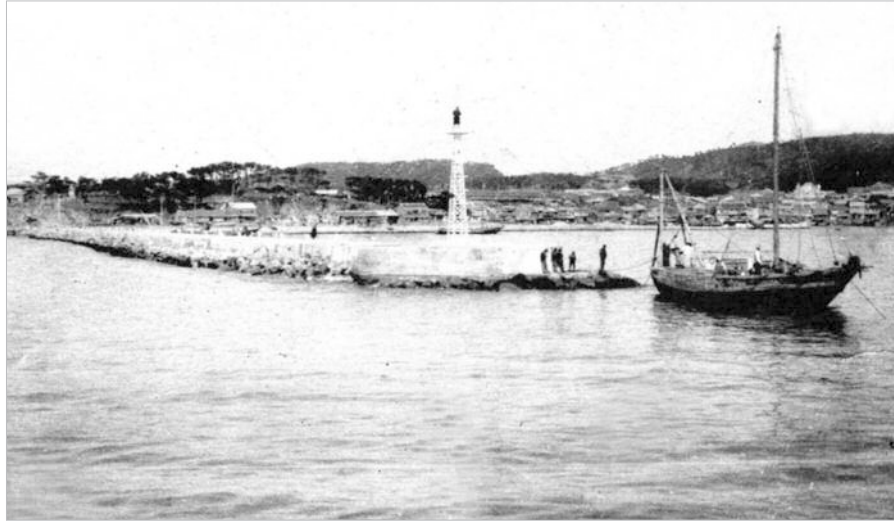
102) 청(鯖)은 청어, 춘(鱈)은 삼치를 말함.
103) 개벽 제38호(1923. 8. 1).
104) 매일신보(1925. 8. 5).



방파제 축조를 위한 대잠수함진수식(매일신보, 1925. 8. 5). 잠수함(潛水函)은 물속에서 사람이 작업하거나 관찰하는 사람을 넣는 철제 상자를 말한다.



1926년 방파제 축조를 위한 대잠수함진수 모습(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



1928년 방어진 방파제의 준공기념 엽서(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

7리의 먼 곳에서도 보이게 하여 항해의 안전을 도모했다. 공사를 위해 연인원 19만 5천여 명이 동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인부가 희생되기도 했다. 방어진축항 준공식은 1928년 3월 28일에 거행되었는데 당시 신문에서는 방어진항을 원산이남 제일의 어항, 남조선 성어지의 중심 어항이자 피난항으로서 완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했다.¹⁰⁵⁾

현재 방어진 방파제 입구에는 높이 240cm, 너비 110cm, 두께 90cm의 '방파제축조기념비'가 남아 있는데 당시의 애환을 말해주고 있다. 이 축조비는 해방 이후 방파제 아래쪽에 방치되어 있었으나 2009년 6월에 현재의 위치에 다시 세웠다. 비문 측면에는 방어진 방파제의 축조 목적 및 공사 개요 등이 일본어로 상세히 적혀있는데 일본 측이 세운 비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 눈에 거슬린다. 그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05) 동아일보(1928. 3. 29).

방어진은 경상남도 동남 연안의 피난항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으나 동해¹⁰⁶⁾ 먼바다의 풍랑이 직접 와 닿아 선박파손 피해가 잦아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됨에 따라 거친 파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를 축조해 항내 유효 면적을 넓혀 많은 선박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항구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방파제 축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전 주민이 합심 노력하여 대정 11년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도비, 기부금 각 1/3씩 부담해도 직영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대정 12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소화 3년에 완공하였다.

공사착수 : 대정 12년¹⁰⁷⁾ 3월 4일

공사준공 : 소화 3년¹⁰⁸⁾ 3월 23일

방파제 연장 : 280m

공사비 : 70만5천 원

공사책임자 : 경상남도 토목기수 스즈키(鈴木高次)

(이하 생략)



방어진 방파제 입구에 설치된 방파제축조기념비(사진은 2015년 9월 현재).



방어진 방파제축조기념비 측면에는 방파제의 축조 목적 및 공사 개요 등이 일본어로 상세히 적혀있다(사진은 2015년 9월 현재).

106) 비문에는 일본해로 되어 있음.

107) 1923년

108) 1928년

한편 일제강점기 항만의 종류는 개항, 지정항, 세관지정항, 지방항으로 분류했는데 1924년 당시 개항은 11곳, 지정항은 20곳, 세관지정항은 10곳이었다.

표4. 일제강점기 항만

구분	내용
개항(11개소)	부산(명치 9년), 원산(명치13년), 인천(명치 16년), 진남포(명치30년), 목포(명치 30년), 군산(1899년), 성진(1899년), 용암포(1906년), 청진(1908년), 신의주(1910년), 웅기(1921년)
지정항(20개소)	법성포, 여수, 제주, 성산포, 감포, 구룡포, 포항, 도동, 마산, 행암(行巖), 방어진, 통영, 삼천포, 용당포, 장전(長箭), 법문진(法文津), 신포(新浦), 서호진(西湖津), 나진, 서수리(西水羅)
세관지정항 (10개소, 1924년)	마산, 행암(行巖), 여수, 성산포, 포항, 도동(울릉도), 통영, 방어진, 서호진(西湖津), 신포(新浦),

출처 : 朝鮮總督府內務局土木課(1925). 朝鮮の港湾, pp.3-6. 참조하여 표로 작성.

지정항의 조건은 항만 내의 매립, 방파제, 기교(機橋), 물양장(物揚場)¹⁰⁹ 축설 등 개축을 해야 하고, 세관지정항은 세관출장소를 설치해야 했는데 1924년 기존의 19개 항 외에 10개의 항이 추가되면서 방어진이 포함되었다.



항이 축조되었을 때의 모습(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



일제강점기 방어진항(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109)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과 부선(靜船·바지선) 등이 접안해 하역하는 접안시설.

방어진, 울산본부보다 전기가 먼저 들어오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온 곳은 1887년 경복궁 건천궁이며, 1898년 서울에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면서 전기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울산에 전기가 처음 생산되고 공급된 곳은 울산본부(蔚山本府)가 아니라 방어진이었다. 1922년 12월 20일 일본인 나카베(中野幾次郎)는 자본금 100,000원으로 울산군 동면 방어리 83의 1의 위치에 전등 및 전력의 공급, 기타 전기용 기계 기구의 제조 판매 및 임대, 이에 관한 공사의 청부 등의 목적으로 울산전기(주)를 설립했고,¹¹⁰⁾ 1923년 5월 8일 전등을 개통했다. 당시 전기 사정은 영구적 전등이 아니라 12시간 동안만 가동된 가물가물한 현기(眩氣)적 전등이었다.¹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 호롱불에 의지하였던 방어진은 전등에 의하여 밤 문화가 만들어지는 등 근대 문물 유입 이전과 이후의 사회가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했다.

1923년 개벽 잡지는 방어진을 소개하면서 “항 내에는 조선인 1,800명, 일본인 1,800명이 되는 균등수의 거민(居民)이 있고, 전등과 전화를 완비하였다”¹¹²⁾라고 소개하고 있어 당시 방어진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방어진의 울산전기(주)는 울산 시구개정(市區改正)¹¹³⁾이 종료됨을 기다려 울산본부에 약 1,200개의 전등을 가설한다¹¹⁴⁾고 하여 방어진에서 울산본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울산본부내에는 1924년 10월 19일 일본인 야스나리(安成千代五郎)가 자

110) 조선은행회사요록(1923년).

111) 조선일보(1923. 5. 28).

112) 개벽 제38호(1923.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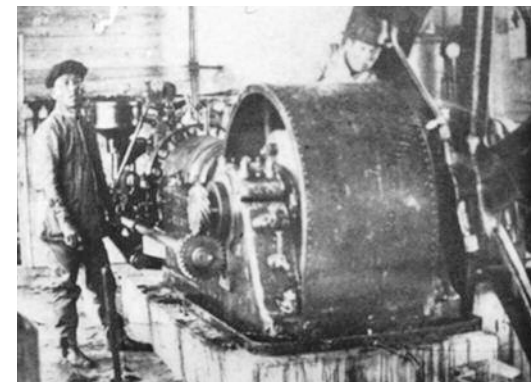
113) 식민지화 초기의 도시계획으로서 1912년에 시작하여 1929년까지 도로의 직선화 및 확장, 신설 등 가로의 정비 사업을 하는 것.

114) 동아일보(1923. 12. 26).

본금 100,000원을 들여 울산면 옥교동 154 위치에 울산본부전기(주)를 설립¹¹⁵⁾하면서 전기회사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울산본부보다 방어진에 전기가 먼저 들어온 것은 방어진이 산업지역으로서 도시의 기반시설이 울산본부보다 더 발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울산의 전기는 자주 정전이 되기도 했고, 시설 전기로 인해 요금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¹¹⁶⁾

방어진과 울산본부 양 지역의 전기회사는 1929년 12월 13일 합병했는데 일본인 코쿠라(小倉武之助)가 자본금 200,000원을 들여 새로운 울산전기(주)를 설립하고, 본점을 울산군 동면 방어리 346-2번지에 두었다.¹¹⁷⁾ 이후 울산전기(주)는 1931년 울산군 범서면, 언양면, 양산군 하북면 등을 전기 공급구역에 편입하고 동 구역에 전기를 공급을 하는 등 구역을 확장했다.¹¹⁸⁾

그러나 사기업이었던 울산전기회사는 설립된 지 15년 후인 1936년 10월 대구전기회사와 합병되어 대흥전기회사로 개칭되었고, 1961년 7월 한국전력이 발족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독립설치 운영되어 왔던 한국의 전기회사는 단일전기회사로 통합되게 되었다.



방어진에 있었던 울산전기주식회사
(출처:울산신문, 2015. 9. 14).

115) 조선은행회사요록(1925년).

116) 시대일보(1925. 8. 26), 동아일보(1928. 2. 16).

117) 조선은행회사요록(1931년). 이 요록에 의하면 1929년 울산전기(주) 합병 설립 당시의 본점은 방어진으로 되어 있으나 1930년 방어진 지도에는 방어진 지점으로 표기되어 있다.

118) 동아일보(1931. 3. 8).



방어진 삼거리에서 내려가는 길 우측에 있었던 울산전기주식회사의 터(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울산자동차 방어진 지점

방어진의 황제 나카베(中部幾次郎)는 방어진-울산-부산 간에 화물 및 여객 운송에 대한 사업성을 간파하고 울산자동차조합을 설립했다. 설립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20년 부산으로 가던 울산자동차회사 소속의 사고 기사¹¹⁹⁾를 볼 때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울산본부 내에 본점과 터미널을 설치하고(현, 중구 성남동 신한은행 자리), 이후 방어진에는 지점을 두었다. 1921년에는 방어진이 어항으로 날로 발전하여 우편물이 증가하자 울산과 방어진 간에 자동차 우편채송을 개시하게 되었는데 경성과 부산으로부터 도착되는 우편물과 신문은 종래에 비하여 하루 빨라지게 되었다.¹²⁰⁾

1923년 개벽 잡지의 기행문에는 “방어진은 육로로는 울산까지 6리, 부산까지 22리의 자동차의 편이며 해상으로는 부산까지 38리 되는 일항(日航)의 선편이 있다.”¹²¹⁾라고 하여 이 무렵 이미 방어진에서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울산자동차조합은 1924년 울산-남창 간 승합차 운행을 개통했다.¹²²⁾ 당시에는 하차(荷車), 우차(牛車), 자전거, 인력거, 자동차 등을 모두 차량으로 분류했는데 1925년 울산에는 총 523대의 차량을 보유했다.¹²³⁾

1929년 조선총독부철도국과 울산자동차조합 간에 여객과 수하물을 연대 운송하기로 하여¹²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여 삼랑진역에서 울산 및 방어진 간을 자동차로 여객과 수하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1931년 2월 19일에는 울산

119) 동아일보(1920. 4. 28).

120) 매일신보(1921. 9. 29).

121) 개벽 제38호(1923. 8. 1).

122) 시대일보(1924. 11. 28).

123) 동아일보(1925. 9. 26).

124) 조선총독부관보(1929. 9. 11).

자동차조합의 운전자 22명이 동맹파업을 하여 각 방면의 교통이 거의 두절되고 파업이 장기화 되었고, 3월 8일 사장대리 나카베(中部謙吉)가 울산으로 와서 운전자 전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자 운전자들은 생계문제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18일 동안의 파업을 해산하기도 했다.¹²⁵⁾ 사장대리인 나카베(中部謙吉)는 나카베 이치쿠로(中部幾次郎)의 아들이었으며, 실질적 운영 지배인은 무라이(村井好雄)였다.

당시의 자동차는 단순 목적지 간의 이동 외에 관광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1931년 8월 15일 동아일보에 ‘시민위안납량회’란 광고가 실렸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방어진자동차로 일산진가서 배를 타고 방어진으로 돌아오는 동아일보 울산지국의 이벤트였다. 회비는 1원이었는데 배삯을 포함하여 점심 및 주류가 제공되었고, 선상에는 예기(藝妓)가 출연하여 흥을 돋웠다. 회비는 실비였으며, 부족분은 동아일보 울산지국에서 부담했다. 비록 근대적 형태였지만 지금의 연안 유람선 관광이었던 것이다.

한편 1932년 울산에서 운송사업을 하고 있던 울산자동차조합과 산양자동차 간에는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경상남도 내에서 주요 노선인 부산 울산 간의 승합요금을 경쟁적으로 인하했는데 종래 부산 울산 간의 2원 40전을 2원으로, 울산 방어진 간은 1원 70전으로 인하했다.¹²⁶⁾ 이에 울산자동차조합은 산양자동차의 경영권을 매수하여 독점을 시도하자 군민들



동아일보(1931. 8. 15)
시민위안납량 광고

125) 조선일보(1931. 3. 20).

126) 매일신보(1932. 8. 2).

이 저항하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을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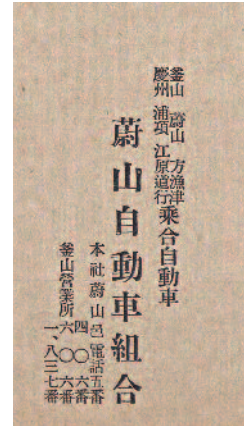
“부산울산간자동차 선로통일에 반대. 김두헌(金斗憲) 씨 외 300여 명이 연서로 경상남도 경찰부에 단선 반대의 진정을 하였다. 현재 부산 울산 간에는 울산자동차조합과 산양자동차의 두 경영자가 정기운전을 하고 있는데 두 회사는 서로 영업에 경쟁을 하여 일반 주민들과 여객에게 운임을 상당히 할인할 뿐 아니라 서비스가 매우 좋아서 여러 가지 편의가 있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울산자동차조합에서 산양자동차부의 경영권을 매수하기로 내약하고 당국에 대하여 선로통일운동을 맹렬히 하는 등 벌써부터 전횡을 하고 폐단이 막대하다. 이는 일반 승객과 지방주민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끼침으로 지방주민들은 당국에 종래의 복선을 그대로 두어서 승객의 편의를 본위로 하는 동시에 교통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도 영업자를 본위로 하지 말고 지방발전과 승객 편의를 위하여 독선통일을 반대하는 진정을 냈다. 지방 당국자의 말을 들어보면 물론 복선으로营业을 경쟁하게 하는 것이 승객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동시에 지방발전에도 유리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경쟁이 격심한 반면에 경영자의 존폐도 문제거니와 사고발생도 적지 아니하니 이점에 있어서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울산선로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중이라고 한다.”¹²⁷⁾

1936년도 울산자동차조합의 운행노선은 울산을 기점으로 동쪽으로는 방어진, 남쪽으로는 부산, 북쪽으로는 경주, 포항, 강원도였다. 울산자동차 방어진 지점 자리는 한때 방어진 시외버스터미널로 활용됐는데 현재는 매표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되었고, 단순 승하차와 기점 및 종점 역할만 하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127) 조선중앙일보(1935. 7. 16).



1935년대 승합자동차. 울산자동차에서 운행했던 승합차도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출처 : <http://aeroexpress.co.kr>).



울산자동차조합의 매일신보 창업 30주년 축하 광고 (1936. 7. 25).



울산자동차 방어진 지점의 터미널 터(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방어진상설시장

1920년대 울산의 주요 지역에는 오일장이 열렸으나 방어진에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에 방어진 주민들이 시장개설을 요구하여 1925년 5월 28일 방어진상설시장이 개시되었다. 이러한 방어진상설시장의 개설은 울산의 다른 지역과 달리 일본인 중심의 식민지 여항으로서 이질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방어진항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즉 일제시기에 조선인을 위한 시장은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오일장의 형태로 신설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일본인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만 처음부터 상설시장으로 신설된 것이다.¹²⁸⁾

당시 상설시장개설 축하식을 가졌는데 수천 명이 운집하였고, 여흥으로서 서편은 각희대회, 동편은 음악회가 있었으며 익일에는 자전거경주대회가 있었다.¹²⁹⁾ 각희대회는 씨름경기로서 3일간 개최되었고, 일등에 농우(農牛) 일필, 2등에 당목(唐木) 일필, 3등에 삼승포(三繩布; 삼색의 굵은 줄) 일필이 상품으로 제공되었다.¹³⁰⁾ 방어진 상설시장은 1933년에는 근대식 건물로 바뀌었는데 허가 당시 방어진 상설시장의 규모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³¹⁾

1. 명칭 : 방어진상설시장
2. 위치 : 울산군 동면 방어리 346번지
3. 면적 : 100평
4. 설비 : 시장가옥은 목조평가(木造平家) 2동에 80여 평
5. 개시일, 휴업일, 개폐시각

128) 허영란(2011). 근현대 울산지역 장기 변동과 지역질서의 재편. 역사와 경제, 81, 63-104.

129) 동아일보(1925. 6. 2).

130) 동아일보(1925. 5. 31).

131) 조선총독부 경상남도고시 제61호(1933. 5. 10).

● 방어진 근대의 길을 걷다

- 1) 개시일 : 매일
- 2) 휴업일 : 없음
- 3) 개폐시간 : 일출에서 일몰까지
- 6. 주요 취급품 : 곡물, 수산물, 포목류, 과일, 채소류, 식료품, 잡화

당시 울산군내 모든 시장이 오일장으로 열렸으나 상설시장은 방어진상설시장이 유일하였다. 방어진에는 항상 어선이 붙었고, 각종 상점과 다수의 일본인이 거주하여 시장을 상설화했던 것이다.



1936년 방어진상설시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노점상의 모습(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



1936년 방어진시장으로 추정되는 곳 앞에서 얼음과자(아이스케키)를 사먹는 모습(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

방어진
그대의 고향길라

제4부

방어진의 황제

나카베 이쿠지로 中部幾次郎

- 나카베 이쿠지로의 방어진 진출
- 나카베 이쿠지로의 활동
- 나카베 이쿠지로의 방어진 - 울산 간 철도계획
- 나카베 이쿠지로의 악덕 행적
- 나카베 이쿠지로의 방어진 관련 주요 연혁

방어진
그대의 강은 길다

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나카베 이쿠지로의 방어진 진출



나카베 이쿠지로
(中部幾次郎; 1866-1946)

1866년생인 나카베(中部幾次郎)는 1873년 8세 때 형의 사망으로 인하여 집안일을 도우면서 장사의 지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16세 때 아버지 리헤이(利兵衛)를 따라 어업에 종사했고, 시코쿠와 큐수 지방의 생선을 오사카 어시장에 반입하는 일을 했다. 그는 당시 매입한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운반 시간 단축에 고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1903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5회 내국권업박람회에서 미국산 발동기가 달린 선박을 보고 이를 선어 운반선에 이용하는 것을 생각했고, 결국 1905년 기존 증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일본 최초의 석유 발동기를 부착한 동력 활어 운반선인 '신생환(新生丸)'을 탄생시켜 근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즉 활어를 신속하게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무렵 일본 어업의 중추가 될 장소이자 대륙 진출 교두보로서 시모노세키를 주목하여 이곳에 어류 유통업인 임겸(林兼; 하야시카네)상점의 거점을 두었다.

1908년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일본인이 조선인과 동등한 어업권을 인정받게 되었고, 1910년 한일합병에 의해 조선 통어(通漁)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자 나카베는 조선연해에 출어한 일본 어부의 생선을 매입하여 시모노세키와 오사카의 어시장에 판매할 수 있었다. 1910년에는 방어진에 임겸상점 영업소를 설치하여 어획된 전갱이와 고등어를 얼음에 채워 일본으로 수송했고, 1915년에는 임겸상점의 근거지를 아예 시모노세키에서 방어진으로 옮겨 사업을 확대

해 나갔다.¹³²⁾ 특히 나카베의 동력 운반선은 조선에서는 방어진항에 처음 입항했고, 방어진이 조선 출어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32) 岸本充弘(2015), 旧林兼商店の創生期を検証する: 中部幾次郎と廣瀬始の軌跡を中心に. 地域共創センター年報, 8, pp.57-65.

나카베 이쿠지로의 활동

나카베는 1913년 부산상업은행이 부산에 본점을 설립하고, 울산, 방어진, 진해, 통영에 지점을 개설할 때 주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1922년에는 울산전기(주)를 설립했고, 1923년 방어진어망반구상회(합자) 설립 시에는 자본을 투자하고 대리 경영을 시켰다. 1924년에는 수산물의 어획, 수산물의 제조, 수산물의 매매 및 운반, 이에 따른 금전 또는 물질의 대부 및 기타 부대사업의 목적으로 임검어업(주)를 설립했고, 그해 기존의 임검상점을 주식회사로 확대하면서 시모노세키에 본점을, 방어진에는 지점을 두었다. 1929년에는 방어진철공조선(주) 설립하면서 그의 아들인 나카베 켄키치(中部謙吉)를 대표로 앉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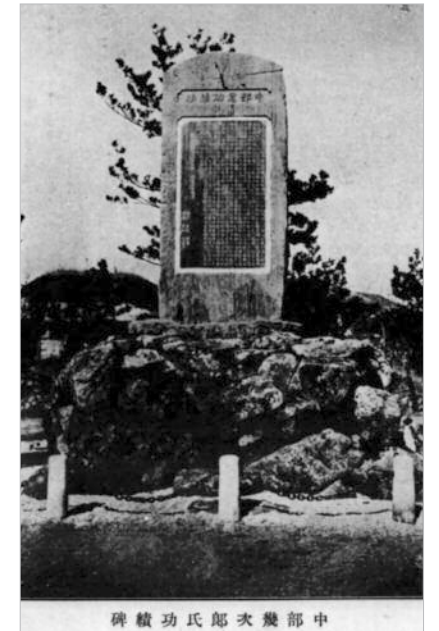
이와 같이 나카베의 모든 사업은 방어진을 근거지로 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방어진에서 사업으로 부를 모은 나카베는 지역 공익사업에도 적극적이었는데 1918년 방어진공립소학교 조합관리자로서 교사 신축비로 2만 3천여 원을 기부했고, 밭 3백여 평, 임야 3백여 평도 기부하여 표창을 수여받았다. 1920년에는 방어진항 축조 및 방파제도 건설을 유도했고 축항비로 8만 원을 기부했으며, 동면 소방조를 조직할 때 거액을 후원하기도 했다. 1925년에는 울산법원지청부활을 위한 기성동맹회조직의 고문을 맡았고, 1927년에는 울산-방어진 간 철도부설촉진기성동맹회 회장을 맡아 철도부설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실현은 보지 못했다.

1930년 방어진에 흉년이 들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1,000원을 기탁했고, 1933년에는 아름다운 회사에 의하여 설립된 조선뇌예방협회에 기부금 1만원 이상을 기부하여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1936년 방어진공립보통학교(현 화진초등학교) 학관증가운동 때는 2,000원을 기부했다.¹³³⁾ 한편 1924년에는 경

133) 매일신보(1936. 10. 31).

상남도 평의원, 1927년에는 경상남도 도의원 등을 지내는 등 정치가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덕행은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에 그의 공적비를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이토 총독은 나카베의 입지적인 성공담과 공적을 크게 인정하여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에 공적비를 세우도록 했다. 비석의 높이는 받침돌을 포함하여 20척(약 6m)에 달했고, 전 조선총독 사이토(齋藤實)가 휘호를 썼으며, 비문은 세키쥬(碩儒長尾), 글씨는 구로다(黒田研堂)의 필체로 모두 한자로 새겼다. 제막식은 1928년 12월 9일¹³⁴⁾ 경상남도 도지사 미나구치(水口隆三)가 참여한 가운데 다수의 군민에 의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나카베 공적비 건설회장 후지모토(藤本新太郎)는 식사를 통하여 “나카베는 수산업에 현저한 공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및 농업을 개척하였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거액을 하사하였으며, 사회공공분야에도 봉사하였다. 방어진은 제2의 고향으로서 소학교 건립에 2만 수 천원을 희사하였고, 토지도 기증하였다. 방파제축조를 주장하여 진행하였고, 수만의 재산을 기부하였으며, 본향을 개척하는 데 공헌하였다. 향민으로부터 덕이 칭송하여 이에 공적비를 건설한다.”¹³⁵⁾라고 했다. 후지모토는



1928년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에 건립된 나카베 공적비(출처:明石市教育会(1941) 中部翁略伝).

134) 부산일보(1928. 12. 11).

135) 明石市教育会(1941). 中部翁略伝, pp.88-89.



임검상점 중역들이 나카베 공적비 앞에서 기념 촬영한 모습. 가운데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나카베(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해방 후 파괴된 나카베의 공적비는 현재 세로 1m 20cm, 가로 25cm 정도의 파편조각만이 방어진초등학교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발동기선(發動機船), 조선(朝鮮), 공익(公益), 등의 한자가 보이는데 나카베의 공적비임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당시 방어진철공조선소 이사를 맡고 있었다.

방어진의 황제 나카베는 1m 60cm의 작은 신장에 특이한 것은 귀가 보통 사람의 곱절이나 됐는데 보행 중에 흔들릴 정도였다. 부인은 나카베보다 신장이 훨씬 컸지만 남편의 신장을 의식해서인지 등을 구부린 자세였다. 나카베가 방어진 거리에 나타나면 일인들은 모두가 길가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렸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마치 천황을 대하는 듯했다.¹³⁶⁾

나카베는 방어진뿐만 아니라 구룡포와 나르도에도 사업을 하면서 각종 지원을 했다. 또한 그의 일본 고향이자 임검상점(林兼商店)의 발상지인 아카시(明石)에도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했는데, 중학교 건설비로 15만 원, 야마구치(山口)현 수산진흥자금으로 10만 원, 아카시 공원 건립에 3만 5천 원, 시모노세키 경찰서 건축비로 1만 원 등을 기부하여 1928년 아카시 시회(市會)는 그를 칭송하기 위하여 메이시 공원 안에 나카베(中部幾次郎)의 동상을 건립했다.



1928년 일본 아카시(明石) 공원에 건립된 나카베 이쿠지로(中部幾次郎) 동상. 그런데 이 동상은 태평양전쟁 중 금속회수 차원에서 공출되었다가 1951년 재건되었다.

136) 천재동(2007).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동아정관, p.38.

나카베 이쿠지로의 방어진 _ 울산 간 철도계획

1927년 3월 조선총독부의 ‘조선철도 12년 계획안’이 일본 의회를 통과하여 조선 전체의 철도 연장 계획이 국책으로 채택되었고, 1927년 이후 12년간 5개 노선에 총 860마일의 신설 노선을 부설할 수 있게 되었다. 5개 노선 중 동해선은 원산-포항, 울산-부산 구간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에서 울산, 포항에서 울산 간 운영되고 있던 사철(私鐵) 경동선(慶東線)은 매수하기로 하였다.¹³⁷⁾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카베(中部幾次郎)는 1927년 6월 울산 방어진간 철도부설촉진기성동맹회 회장을 맡아 경동선의 울산 부근에서 분기하여 방어진까지 9리의 철도를 ‘조선철도 12년 계획’ 동해안선의 분기선으로 부설해 달라고 철도국에 청원하면서 146명의 연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청원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어진항은 어업근거지로서 어획고는 조선 연안의 총 수산액의 1할을 점하고, 방파제가 곧 완성됨에 따라 상항(商港)을 겸비하게 되어 상당한 선박을 수용력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모노세키(下關) 항과는 직통항로를 개설할 계획 중이다. 현재 경동선 중 울산군 하상면 연암리로부터 분기하여 본 항으로 연결되는 철도의 거리는 9리 정도이며, 난공사도 없고 다액의 공사비도 소요되지 않으므로 실시 계획 중인 동해안선의 지선을 부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본 항을 중계로 내지 철도망과 연결하면 어획물 판로가 확장될 수 있다. 즉 시모노세키 방면에만 국한하여 어획물을 유통시키게 되면 잉여 어획물을 도저히 소화시키기 불가능하다. 잉여 어획물은 선도가 떨어져 반액의 저가에 판매되어 어획가를 위협하게 된다. 철도가 연결된다면 어류를 속히 조선 내외

만주방면으로 수출하여 어가를 조절할 수 있다. 동해안선에 의하여 일본에 수출할 곡류와 임산물도 철도를 통하여 본 항으로 연결되면 부산을 경유하는 것보다 약 40리가 단축되므로 운임이 저렴할 수 있다. 다액의 돈을 투자하여 수축한 항만 활용은 필히 지방발전이 될 뿐만 아니라 조선의 산업개발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에 철도부설촉진기성회를 조직하고 청원하는 것이다.”¹³⁸⁾

그러나 김두헌과 변동윤 그리고 일부 일본인 등이 중심이 된 방어진 철도연장운동 교섭위원이 서울에 상경¹³⁹⁾하여 철도부설을 위하여 노력을 했지만 끝내 추진되지는 않았다. 결국 나카베는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방어진에서 시모노세키 및 내륙으로 멀리는 만주까지 철로를 이용하여 유통시키고, 동해안 및 내륙의 곡류와 임산물을 방어진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137) 선문회(2012), 조선교통사 제1권(한국철도문화재단 편찬), BG북갤러리, pp.109-110.

138) 중외일보(1927. 6. 9), 매일신보(1927. 6. 13).

139) 중외일보(1927. 6. 14).

나카베 이쿠지로의 악덕 행적

방어진 출신 천재동의 회고에 의하면 나카베 공적비 건설 회장을 맡은 후지모토는 악덕 일본인이었다.

“어느 해 연말에 대부망(大敷網)¹⁴⁰⁾에 걸려 들어온 방어를 운반선에 실어 보니 불행인지 다행인지 12척이나 되었다, 이 많은 생선을 후지모토(藤本) 라고 하는 일본 수산업자와 후불 신용 구두계약을 맺고 12척 모두를 넘겨주었다. 그들이 일본으로 운반 도중에 현해탄에서 풍파를 만나 모조리 수장되고 말았다.

어장 주인인 이득우 측에서 방어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후지모토 측에서는 계약서가 없는 것을 이유로 고기를 받거나 배에 실은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신용을 완전히 저버리고 사실을 회피하는 바람에 결국 재판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재판이 수년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구두계약 당시 현장에 입회 하였던 증인 이봉구가 거짓 없이 사실대로 진술해 줄 것을 믿고 승소할 것이라 확신하면서 산 증인인 이웃사촌 이봉구를 내세워 마지막 재판 날을 기다렸다.

그런데 후지모토는 평생 생활 보장, 주택제공, 자식 대학공부까지 보장, 등등의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이봉구를 매수했고, 결국 이봉구는 후지모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고 말았다. 이득우는 그동안의 손해 배상까지 물게 되었고, 대부망어장(大敷網漁場)까지 임겸(林兼)상점의 나카베(中部幾次郎)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재판에 패한 어장주 이득우는 한순간에 방어 황금어장과 재산을 임겸(林兼)에게 빼앗기고 집 한 채만 남았을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사람들은 이봉구가 일본인 편을 들어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을 알고 이봉구를 ‘개봉구’로 부르게 되었다.”¹⁴¹⁾

나카베는 농사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어부에게 쌀을 공급하기 위해 김해에 350정보(町步), 울산·동래·경주 등지에도 2,000정보 이상의 논을 소유하면서 소작인을 통한 농업경영을 했다.¹⁴²⁾ 1933년에는 아예 농업 및 농업자금과 물품의 대부하는 목적으로 중부농사(中部農事)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부산에 본점을 두었다. 그런데 그는 관리자를 두고 소작료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악덕 지주로 묘사되기도 했다.

“경주군내에 삼백석 가량 추수하는 울산의 일본인 지주 나카베(中部幾次郎)는 경주에 있는 관리자 이모 씨로 하여금 금년은 특히 수재 및 한재 우박 등으로 인하여 수확이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작료를 칠할 이상이나 받았다. 그중 87석가량은 표면적으로는 소작인의 편익을 돕는다며 소작인의 소작료를 불국사역에서 받는다는데 이상한 것은 예년 울산읍에서 받던 것을 금년은 소작인의 편리를 위하여 출장하여 받는다며, 여비를 매석에 20전씩이나 내라고 한다. 일 년 동안 지은 것도 거의 다 가지고 가면서 여비까지 청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짓이나 혹 소작권이 이동할까 두려워 일반 소작인들은 홀로 탄식할 뿐이라고”¹⁴³⁾

이와 같이 나카베는 방어진의 황제로 군림하면서 지역 경제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그 이면에 악덕 상인과 악덕 지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물이었다.

140)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다. 길게 뻗친 길그물로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길그물의 바깥쪽 끝에 설치된 통그물로 유도하여 잡는 망.

141) 천재동(2007),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동아정관, pp.57-58.

142) 明石市教育会(1941), 中部翁略伝, pp.45-46.

143) 동아일보(1925. 12. 8).



나카베의 김해농장 사무소(사진출처:明石市教育会(1941). 中部翁略伝).

나카베 이쿠지로의 방어진 관련 주요 연혁

- 1910년 임검상점 방어진 영업소 설치
- 1913년 부산상업은행 방어진 지점 주주
- 1915년 임검상점 설립
- 1920년경 울산자동차조합 설립
- 1922년 울산전기(주) 설립
- 1923년 방어진어망반구상회(합자) 설립 시 자본 투자
- 1924년 경상남도 평의원
- 1924년 임검어업(주) 설립.
- 1924년 시모노세키에 임검상점(주)을 설립하고 방어진에 지점개설
- 1925년 울산법원지청부활 기성동맹회 고문
- 1927년 울산방어진간 철도부설촉진기성동맹회 회장
- 1927년 경상남도 도의원
- 1929년 방어진철공조선(주) 건립.

제5부

근대 방어진의 일본 통치관련 시설

- 방어진주재소
- 방어진신사와 용나무
- 방어진의 종교시설
- 칠생보국(七生報國),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동상

방어진
그때의 장소, 길라

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방어진주재소

주재소(駐在所)는 일제강점기 순사(巡査)가 일정한 구역에 머무르면서 사무를 맡아보던 곳으로 조선 각지에 있었던 경찰의 말단급 기관을 말하며, 최고책임자는 주재소장으로 경찰서장이 임명했다. 주재소의 주 업무는 해당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조선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반일 및 항일 행위 등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1910년경에 설치된 방어진주재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1931년 다음의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 방어진주재소에는 지난 9일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들어왔는데 뜯어보니 XXXX만세, XX주의 타도 등의 문구가 나열되어 주재소원들이 그 범인을 수색 중이나 아직 잡지 못하고 지난 14일 울산고등계 김(金)형사가 방어진에 출장 수사 중이다.”¹⁴⁴⁾

XXXX만세는 ‘대한 독립 만세’로 추정되나 일제 치하 당시 신문에서는 이를 표기하지 못했다. 이러한 기사를 볼 때 방어진 지역에도 애국지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35년에는 방어진의 항일투쟁이 절정을 이루었는데, 1935년 5월 1일 메이데이 때 방어진에서 적색 뼈라를 산포한 청년 10여 명이 검거되어 방어진 주재소에서 취조를 받았고, 울산적농(蔚山赤農)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사회운동의 열렬한 투사였던 김영활은 투옥 중 병을 얻어 보석되었으나 자택에서 치료 중 27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그리고 민족주의자이자 항일운동가였던 박학규 외 3명이 방어진 주재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울산경찰서로 이송되기도 했는데¹⁴⁵⁾ 박학규는 성세빈과 함께 보성학교를 설립할 때 건립 기

144) 동아일보(1931. 9. 17).

145) 동아일보(1935. 6. 14).



1960년 방어진파출소. 일제강점기 방어진주재소는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방어진파출소로 사용되었다(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

금은 물론 본인이 직접 교사로도 활동했다. 또한 울산적색노조사건으로 1935년 6월 6일에는 아침부터 울산서원(蔚山署員)과 방어진 주재소원이 협력하여 동면 보성학원을 비롯하여 개인의 가택 수처를 수색한 후 천윤순의 소아 4명까지 울산경찰서로 검거해 가기도 했다.¹⁴⁶⁾



일제강점기 공포의 대상이었던 방어진주재소가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빌라와 모텔이 들어서 있다(2016년 4월 현재). 사진 중앙에 보이는 제당과 소나무 및 측백나무는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있었다.¹⁴⁷⁾

146) 조선중앙일보(1935. 6. 9).

147) 장성운(2013). 인물로 읽는 울산유사, 경상일보(2013. 7. 28).

방어진 지역 항일운동의 배경에는 성세빈과 보성학교를 들 수 있다. 성세빈(成世斌; 1893-1938)은 울산군 동면 일산리(현 동구 일산동) 230번지에서 태어나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고, 1922년 5월에 노동야학의 4년제 사립 보성학교(普成學校)를 일산리에 설립했는데 동면 지역의 무산 아동을 위한 교육의 터전이었다. 같은 일산리 출신의 서진문(1901-1928)은 성세빈의 외사촌으로서 보성학교에서 함께 교편을 잡았는데, 그는 곧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에 매진하였고, 1928년 일본 천황의 암살을 위해 활동하던 중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 끝에 생을 마감했다.¹⁴⁸⁾

이와 같이 성세빈과 서진문은 민족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항일 및 독립정신을 심어주고 문맹 퇴치를 위해 노력했다. 일제는 성세빈을 비롯한 동면지역의 사회운동가들이 보성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항일의식 등 민족정신을 일깨워주는 요람구실을 하자¹⁴⁹⁾ 폐교를 당했고, 성세빈과 교원들은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 상황을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울산군 동면 일산리 사립학교 보성학원에 대하여 지난 2월 18일 경남도지사로부터 폐교 명이 내렸는데 원래 보성학원은 그를 낳은 일산리가 빈농이요, 창립자 성세빈 씨도 집안이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 지금으로부터 9년 전부터 당국의 인가를 얻어 그동안 갖은 곤란을 겪어가며 금일까지 졸업생 230여 명을 내는 한편 6학년 2백5명의 생도와 4명의 교원을 가지고 꾸준히 내려오는 역사가 있는 학교로서 교장 성세빈 씨가 폐쇄 명령장을 볼 때 그의 놀라움은 형언할 수 없었다. 동면 남쪽에 있는 공립보통학교 생도가 부족함으로 그와 같은 처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생도들은 혹은 울며, 혹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서로 동무의 집을 왕래하는 등 학부모들은 극도의 불평을 하

였다. 규칙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를 모조리 없애려는 취지가 아닌 이상 제반 설비가 불충분하다면 이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교원들의 사상이 좋지 못하다면 그 교원의 경질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남목공립보통학교의 생도가 부족하다고 하나 그 학교와는 거리가 2리나 되어 보성학원이 없어진다고 남목학교로 갈 생도가 몇 명이 될는지 의문이다. 성세빈 씨는 좋은 말로 이를 위안하며 선후책을 강구 중인 바 일반인은 이를 주목한다더라.”¹⁵⁰⁾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보성학교의 폐교 근본 원인은 일제 측에서 “교원들의 사상이 좋지 못하다”는 것인데 성세빈의 항일의식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결국 성세빈은 교단을 떠나게 되었고, 학부형과 유지들은 그에게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식을 거행했는데 그에 대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다.

“울산군 동면 일산리 사립 보성학원은 성세빈 씨의 성심성력으로 창립되어 수백 무산 아동을 교양하여 오던바 부득이 군 당국으로부터 교장변경처분을 받고 사랑하던 교문을 떠나게 되었는데 지방 학부형과 유지일동은 성세빈 씨의 공로를 감격이 생각하여 5월 5일 강당에서 표창식을 거행하였다.”¹⁵¹⁾

성세빈은 보성학교를 운영하면서 1925년 동아일보 울산군 동면 분국장 및 울산청년위원회(蔚山靑聯委員會)위원, 1926년 중앙의 사회운동단체인 정우회(正友會) 집행위원, 1928년 신간회(新幹會) 울산지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보성학교를 떠난 후에는 1932년 방어진소비조합 전무이사 및 방어진양조회사

148) 울산광역시(2014), 울산의 인물, p.94.

149) 울산광역시(2014), 앞의 책, p.96.

150) 조선일보(1929. 3. 2).

151) 동아일보(1929. 5. 8).

전무 등을 역임하다가 1938년에 별세했다.

한편 강제 폐교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보성학교는 1929년 성세빈의 뒤를 이어 그의 동생인 성세룡이 학교를 재인가받은 후 단과형식의 보성학원으로 바꾸면서 일제에 굴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했으며,¹⁵²⁾ 1932년에는 윤덕조(尹德兆)가 원장을 맡아 운영을 하다가 1945년 해방을 앞두고 일제에 의해 폐교되고 말았다.



1929년 3월 1일 보성학교 전경과 성세빈(오른쪽 상단 원안). (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수 100년).

152) 울산광역시(2014), 앞의 책, p.95.

방어진 신사와 용나무

신사(神社)는 일본 고유의 자연종교인 신도(神道)들의 사원을 말한다. 1910년 한국 병탄(併呑)¹⁵³⁾ 이후 신사는 조선총독부의 보호 아래 관·공립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문화침략 내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설치됐다. 즉 일제강점기 일제는 천황을 신격화하고 일본 자국민의 정신적 지배는 물론 군국주의적 침략정책 및 식민지배에 이용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신사를 건립했고,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참배를 강요했던 것이다.

신사는 사격(社格)에 따라 일본 천황과 왕실의 조상을 기리는 신궁(神宮)과 규모와 격에 따라 신사(神社), 신사(神祠)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의 신궁은 1920년 공사에 들어가 1925년에 완공된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이 있었고, 일제 패망 1945년 기준으로 전국의 신사(神社)는 82개소, 신사(神祠)는 1,062개소였다.¹⁵⁴⁾ 일본에 있는 신사는 주로 숲으로 둘러싸여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반면에,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사들은 도시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구릉에 입지하고 일본인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데 이는 통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⁵⁾ 이와 같은 신사는 해방 후 방화와 파괴의 표적이 돼 대부분 사라졌다.

울산에도 북정동, 방어진, 장생포 등 3곳에 신사가 설치됐는데 모두 격이 낮은 신사(神祠)였다. 이 3곳에 신사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울산은 행정 중심의 울산읍, 어업과 조선산업의 방어진, 포경산업의 장생포 등으로 지역이 구분됐고, 거주자가 이곳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 3곳에 설치된 신사는 모두 구릉이

153) 남의 재물이나 영토, 주권 따위를 강제로 제 것으로 만들.

154)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45).

155) 최진성(2006). 일제강점기 조선신사의 장소와 권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pp.44-58.

나 언덕위에 위치해 해당 지역을 잘 관찰할 수 있었다. 방어진신사는 1927년 6월 30일¹⁵⁶⁾ 옛 방어진철공조선소 앞 언덕 위에 건립됐으며(현, 용왕각), 사호(詞號)는 신명신사(神明神祠)였는데, 신명신사는 천황의 가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태양의 여신인 천조대신(天照大神)을 제신(祭神)으로 모시는 신사를 말한다. 조선총독부의 황민화 정책으로 인하여 천황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신격화와 서민적 종교의 제신을 배제하려는 차원에서 신명신사로 명명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당시 방어진의 일본인들은 이 신사의 제신을 에비스(えびす)신이라고 믿었다.¹⁵⁷⁾ 에비스신은 예부터 어업의 신으로 간주됐는데 이는 방어진 어민들의 생업과 관련하여 수호신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총독부는 1936년 8월 1일 천황의 칙령으로 조선신사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모든 신사(神社·神祠)가 사격(社格)에 따라 도(道)·부(府)·읍(邑)·면(面)으로부터 신찬폐백료공진(神饌幣帛料供進)¹⁵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신사에 대해서는 사격을 높여 더욱 신사의 관·공립적 성격을 강화했으며, ‘1면 1신사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각지에 신사의 건립을 장려했다.¹⁵⁹⁾

한편 일제는 1930년대 후반 전쟁에 동원할 지원병을 전국적 모집에 혈안이 됐는데 방어진에서 1938년 하루에 3명이 지원하여 주재소원과 군읍당국이 놀라기도 했다.¹⁶⁰⁾ 방어진 신사에 관한 기록은 신문기사 2건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38년 6월 2일 방어진읍 권동학의 아들 권환덕 군이 왜병 지원병 시험에

합격해 훈련소에 입소하게 됐는데 권 군을 보내는 방어진읍민 3,000여 명이 방어진 신사에 모여 성대한 전송식을 가졌다.”¹⁶¹⁾

“방어진 소방조(消防組) 방호단(防護團)을 해체하고 방어진 경방단(警防團) 결단식을 1939년 10월 1일 방어진 신사 앞에서 관민 다수가 모여 성대하게 거행하였다.”¹⁶²⁾

방어진의 최산암(崔産岩)은 일본군 지원병으로 남지나(중국의 남쪽지방)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전사하여 장례를 방어진읍장(方魚津邑葬)으로 치루었는데¹⁶³⁾ 그 장소도 신사 앞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일제는 지원병이라는 명목 하에 방어진의 젊은이들을 강제 징병하였고, 주요 의식을 방어진 신사에서 거행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결혼식도 신사에서 거행됐다. 신랑은 국민복이라 하여 군복 비슷한 차림이었고, 신부는 가장 화려한 차림으로 장엄한 식장에서 하객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베라는 것을 입고 우리 민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본 신사 앞에서 서서 신주(神主)가 흰 종이를 붙인 대나무를 두 사람의 머리 위에 휘휘 저어 흔들며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결혼을 성사시켰다.¹⁶⁴⁾

해방 후 신사의 건물은 사라지고 용왕각으로 바뀌었으며, 돌계단만이 남아 있다. 용왕각(龍王閣) 돌계단 옆에는 수령 400~500년으로 추정되는 높이 7.5m, 둘레 4.2m의 일명 ‘용나무’를 볼 수 있다. 나무의 껍질이 마치 용의 비늘 처럼 생겼고, 마치 용이 하늘을 비천하며 날아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용나무는 과거부터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는 수호신이었고, 1994년 지방 보호수인 당산목(堂山木)으로 지정되는 등 형상의 비범함을

156) 동북아역사재단(2009), 근대 한·일 간의 상호 인식, p.274.

15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11), 일제강점기 울산 방어진 사람들의 삶과 문화, 채륜, pp.332-333.

158) 신에게 음식이나 물품을 바치는 것.

159) 매일신보(1936. 8. 2).

160) 동아일보(1938. 2. 5).

161) 동아일보(1938. 6. 7).

162) 동아일보(1939. 10. 8).

163) 매일신보(1939. 1. 21).

164) 천재동(2007), 아른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동아정관, p.75.

볼 때 전국의 천연기념물 소나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지만, 1990년대 후반 콘크리트 등으로 외과 수술을 받은 흔적이 남아있고, 보존 상태가 불량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용나무는 곱솔로서 곱솔은 일반 소나무의 잎보다 억센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고, 바닷바람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 주로 바닷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해송(海松)이라고 하며, 줄기 껍질의 색깔이 일반 소나무보다 검다고 하여 흑송(黑松)이라고도 한다.

한편 용왕각(龍王閣)이란 산신각(山神閣)과 마찬가지로 수호신을 모신 전각을 말하는데 산신각은 산신(山神)을 모시는 까닭에 산에 위치하고, 용왕각은 바다의 용왕(龍王)을 모시는 까닭에 바닷가에 위치하는 것이다. 용왕각과 산신각은 마을신앙과 관련되어 있는데 대체로 1평 정도 크기의 건물에 탕화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산신각은 불교 밖에서 유입된 신을 모시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殿)’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각(閣)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 불교 특유의 전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방어진 제당. 방어진 신사의 자리로서 오른쪽 비각 속에 큰 돌(地神)을 세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출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



현재의 방어진 신사 터. 당시의 계단과 용나무는 남아 있으나 지신 돌(地神)은 보이지 않는다(사진은 2015년 9월 현재).

방어진의 종교시설

일본 불교의 종파는 크게 천태종(天台宗), 진언종(眞言宗), 정토종(淨土宗), 정토진종(淨土眞宗; 진종이라고도 함) 등으로 구분되며, 각 종파에도 계파가 존재하는 등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종교는 ‘정치와 서로 상부상조하며 국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¹⁶⁵⁾는 것을 신조로 삼을 정도로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일본의 종교는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침탈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정책을 적극 선전하고 참여했으며 물자 공출을 강권했다.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의 만행은 2012년 9월 전북 군산시 동국사(東國寺) 경내에 건립한 일본 불교의 대표 종단 조동종(曹洞宗) 소속 스님들이 일제의 만행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사문(참회와 사죄의 글)비’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비는 한국어 번역문과 일본어 원문으로 된 두 개의 비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동종은 명치유신 이후 태평양전쟁 패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해외 포교라는 미명하에 당시의 정치권력이 자행한 아시아 지배야욕에 가담하거나 영합하여 수많은 아시아인의 인권을 침해해왔다.(중략)

특히 한반도에서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라는 폭거를 범했으며 조선을 종속시키려 했고, 결국 한국을 강점함으로써 하나의 국가와 민족을 말살해버렸는데, 우리 종문은 그 첩병이 되어 한민족의 일본 동화를 획책하고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되었다.(중략)

조동종을 비롯한 일본 종교는 국가와 언어는 물론 민족문화에 기반을 둔 이름까지 빼앗는 만행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맡았고, 중국 등지에서는 민중에 대

한 선무공작을 담당했으며 그중에는 자진해서 특무기관에 접촉, 첩보활동을 한 승려도 있었다.(중략)

불법을 국가 정책이라는 세속적 법률에 예속시키고, 타민족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침탈하는 두 가지 잘못을 함께 범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

방어진에도 일본인 거주가 늘자 그들을 위한 종교시설도 함께 들어섰다. 방어진 최초의 종교시설은 1912년 정토종(淨土宗) 방어진 교회소(方魚津 教會所)였고, 이듬해 진종 본원사파(眞宗本願寺派) 방어진 포교소(方魚津 布教所)가 들어섰다. 한편 일본 정토진종의 총본산을 본원사(本願寺)라고 하는데 본원사는 서본원사(西本願寺)와 동본원사(東本願寺)로 구분된다. 원래 교토에 있는 진종본원사파(眞宗本願寺派)가 본산인데 진종대곡파(眞宗大谷派)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파를 동본원사로 칭하였고,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본산을 서본원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특히 동본원사는 한국인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



대림선구회사(大林船具會社) 뒤쪽에 있었던 서본원사(西本院寺) 포교소 터는 현재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165) 大谷派本願寺 朝鮮開教監督府(1922). 朝鮮開教五十年誌, 東京, p.18.

하여 대거 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¹⁶⁶⁾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방어진에는 서본원사 포교소가 1913년에 건립되었다.

그리고 1917년에는 일본 불교 진언종(眞言宗) 각파를 연합한 고야산대사교회(高野山大師教會)의 방어리 지부가 건립되었다.¹⁶⁷⁾ 조선총독부는 1932년 고야산대사교회의 방어리 지부 포교담임자를 호리(堀智猛)에서 요코다(横田博之)로 변경시켰는데,¹⁶⁸⁾ 종교의 담임자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방어진 출신 천재동은 1944년 결혼식을 할 때 신사(神祠)를 피해 고야산 절을 택했고, 주례는 주지 승려가 맡았으며, 주지 승려는 당시 야구코치를 맡기도 했다.¹⁶⁹⁾

166) 매일신보(1910. 10. 6).

167) 조선총독부관보(1917. 6. 8).

168) 조선총독부관보(1932. 6. 7).

169) 천재동(2007).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동아정관, pp.75-76.

칠생보국(七生報國),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동상

일제강점기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 교정에는 칠생보국(七生報國)이란 글씨가 새겨진 대 위에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장군의 동상이 있었다. 칠생보국(七生報國)이란 사자성어인데 일곱 번 거듭 태어나도 주군에게 보답하겠다는 뜻이다. 이 성어는 고다이고(後醍醐; 1288-1339) 천황을 지키고 있었던 구스노키(楠木正成) 장군이 적군에 패해 동생과 아들 모두 함께 할복했을 때 맹세 한 말에서 유래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은 쇼군(將軍)의 통치체제였다. 1185년 가마쿠라(鎌倉) 막부 이래 무사정권 시대였으므로 천황의 존재는 희미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었다. 고다이고(1315년 즉위) 천황이 왕정복고를 결행한 것이다. 고다이고는 가마쿠라 막부 타도에 나섰는데 이때 오사카 지방의 무장 구스노키가 충성을 바쳤다. 1331년 거사는 실패하고, 고다이고는 오키섬에 유배되었다. 그 후 고다이고는 섬을 탈출하여 막부를 무너뜨렸다. 1334년 고다이고의 중흥 시대가 열렸지만 3년 뒤 권력은 분열했다. 아시카가(足利尊氏, 무로마치 막부 창건)가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구스노키는 수호에 나섰지만 아시카가 군대에 패배하자 칠생보국(七生報國)이란 말을 남기고 자결했던 것이다.

칠생보국은 이후 황국(皇國)에 보답하겠다는 의미 또는 일곱 번 살아남은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태평양 전쟁 때 유명한 가이텐(回天)¹⁷⁰⁾과 가미카제(神風)¹⁷¹⁾ 대원의 머리띠에도 적힌 문구였다.

170) 일본 해군이 어뢰의 명중률을 높이고자 어뢰에 조정 장치와 스크류를 달아 조종사가 직접 어뢰를 몰고 적함에 들이받게 하는 전술.

171) 일본 공군이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함에 충돌하는 전술.

구스노키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천황을 지키고자 했던 무장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은 그를 존경했으며, 일제는 그의 정신을 새기는 동상을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 학교에도 건립했다. 결국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에 구스노키의 동상을 건립한 것은 어린 학생부터 이러한 정신을 주입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구스노키에 대한 전기는 일본 교과서에 소개됐는데 1922년 “재미일본인 소학교의 교과서에 구스노키의 전기를 금지하여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한 신문 기사¹⁷²⁾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인들도 그의 전기를 많이 읽었다. 1939년 민족주의자 남익환(南益煥)이 상록회에서



1936년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 졸업반 기념 촬영. 뒤의 칠생보국(七生報國)이란 글씨가 새겨진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장군의 동상 배경으로 찍었으나 이 동상은 해방 이후 철거되었다(출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172) 동아일보(1922. 4. 16).

활동하다가 춘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중략) 우리들 조선청년을 보니 저 일본의 구스노키(楠木正成)와 카토오(加藤清正)를 알고 있어도 이순신(李舜臣)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실례는 많이 있지만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조선민중이 얼마나 민족의식이 빈약한지 알 수 있다.”¹⁷³⁾ 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에 있었던 구스노키 동상은 나카베의 공적비와 함께 해방이 되면서 철거되었다.



현 일본 천황이 거처하는 황거(皇居) 앞의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동상.



1930년대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는 업서와 돈에 문양으로 사용될 정도로 일본에서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173)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6권, 상록회사건 재판기록 2, 남익환 신문조서.

제6부

근대 방어진의 문화와 유흥시설

- 목욕탕과 이발관
- 상반관 - 신문명의 상징, 울산 최초의 극장
- 품평회와 가정요리강습회
- 술도가
- 연초원매소(煙草元賣所)
- 유곽(遊廓)

방어진
조여의 갈매기길

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목욕탕과 이발관

목욕탕 _근대 도시문화의 지표

일본의 공중목욕탕이 정착된 것은 메이지시대의 문명개화 바람에 힘입은 1880년대 전후이다. 일본어로 목욕을 ‘후로(風呂)’라고 하는데 수증기를 가지고 한증을 한데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후로가 일반화된 것은 돈을 주고 입욕하

는 공중목욕탕인 전탕(錢湯; せんとう)이 보급되면서부터이다.

일제강점기 초 방어진에 목욕탕이 존재했다는 것은 1910년 조선해수산조합의 조사에서 알 수 있는데, 일본인 이주자의 직업별 현황을 소개하면서 목욕탕업이 3곳이라고 밝혔다.¹⁷⁴⁾ 당시 방어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호수는 140여 호, 인구는 600여 명이었는데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야시카네 목욕탕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장수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2016년 4월 현재).

174) 朝鮮海水産組合(1910). 朝鮮海水産組合月報 16호, p.10.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의 유교 문화에 의하여 몸을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목욕탕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일제강점기 초기 일본인들이 공중목욕탕을 건립하려고 할 때 여러 명이 함께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인들 때문에 공사를 쉽게 착수할 수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1915년 방어진에는 목욕탕업이 9곳으로 증대되었고, 당시 공중목욕탕은 도시 문화지표의 하나였다. 1915년 방어진에 설립된 나카베(中部幾次郎)의 수산회사 임겸(林兼)은 인근에 8세대가 거주하는 팔현장옥(八軒長屋)의 사택도 지었다. 자연스럽게 이들을 위한 공중목욕탕도 사택 인근에 설치했는데 이른바 하야시카네(林兼) 목욕탕이었다. 그런데 이 목욕탕이 사택 거주자의 복지용인지 일반 주민도 입욕료를 내고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야시카네 목욕탕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장수탕'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1992년에 개축된 것이라고 한다.

1917~8년경 방어진에는 일본 후쿠오카현 히나세(日生) 촌의 이주가가 100여 호에 달했고, 이들은 잡화상, 목욕탕(風呂屋; ふろや), 어구상(漁具商)업을 하거나 기선운반선을 가지고 선어운송에 종사했다.¹⁷⁵⁾ 히나세 촌 출신의 카와나베(川辺)가 운영했던 목욕탕은 1930년대 방어진 지도에 일생탕(日生湯)이란 상호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는 일본 히나세에서도 대중목욕탕인 전탕(錢湯; せんとう)을 운영하기도 했다.¹⁷⁶⁾ 또한 이 지도에는 초탕(初湯)도 등장하는데 1930년대 방어진에는 2개의 목욕탕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혼도시 차림으로 목욕탕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인의 모습은 또 다른 구경거리였다.¹⁷⁷⁾

175) 加子浦歴史文化館, 日生町の韓国交流史.

176) 利七屋孫兵衛の日記(2010. 2. 9).

177) 전재동(2007).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동아정관, p.36.



일생탕이 있었던 곳에는 현재 플러스마트가 들어서 있는데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초탕(初湯)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현재 이용원이 들어서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한편 울산 본부에는 공중목욕탕이 없었다. 이에 대해 당시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계읍장(桂邑長) 담(談).

울산과 같은 넓은 지대에 밀접한 인구를 가진 곳으로써 아직 완전한 공중목욕탕이 없다는 것은 저 자신도 매우 의아하며, 유감천만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여론이 방어진 같은 곳에도 훌륭한 목욕탕이 두 개 이상이 있다는 것은 읍당국의 무성의가 아니냐고 질문하는 인사도 있습니다마는 저로서 기탄없는 말을 한다면 방어진과 울산은 과연 모든 점으로 비할 바 아닙니다(중략).”¹⁷⁸⁾

“인구 1만7천을 포용한 대 울산에 목욕탕 하나 없다는 것은 읍민 보건 상 중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읍 당국은 이 문제를 수년 방임하고(중략)”¹⁷⁹⁾

이 기사를 보면 당시 방어진 사람들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목욕탕에 갈 수 있었지만 울산읍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1940년 이후 울산 지역 사람들은 울산읍에 2개의 목욕탕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하나는 옛 동헌 건물 아래 금융조합 건물(현 농협 자리) 맞은편에 있었는데 이 목욕탕은 일본인이 경영해 해방과 함께 주인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라졌고, 중앙시장 입구에 있었던 울산목욕탕은 해방 후에도 영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울산사람들 대부분이 목욕문화를 익힌 것이 울산목욕탕을 통해서라고 증언하고 있다.¹⁸⁰⁾



당시의 전형적인 일본식 목욕탕의 모형도. 일제강점기 방어진의 목욕탕도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8) 동아일보(1937. 10. 5).

179) 동아일보(1940. 4. 5).

180) 경상일보(2013. 9. 22).

이발관

이발관은 목욕탕과 더불어 대표적인 도시의 공중위생업소이자 생활의 필수 코스였다. 1918년에는 이발관이 5곳이었고, 여성의 머리를 묶는 것이 직업인 여자도 5명이나 되었다.¹⁸¹⁾ 1930년 방어진 지도에는 추본이발관(秋本理髮館)만이 표기되어 있다.



추본이발관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개조되었지만 당시 건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181) 조선시보(1918. 9. 2).

상반관 – 신문명의 상징, 울산 최초의 극장

일제강점기 초기 방어진에 일본인 이주자 및 근로자들이 늘어나자 그들의 문화 욕구와 오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극장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방어진 출신 문화예술인 천재동(1915~2007년)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 3~4년 전 방어진에 대정관(大正館)이란 극장이 있었다고 하면서 “급하게 날림 공사로 지은 나머지 출입구가 있는 정면을 제외한 3면의 벽이 불에 까맣게 타서 간술 구멍이 송송나 있는 판자를 붙여서 만든 것이다. 공연이 있을 때에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그 구멍을 통해 무대 공연을 보려고 서로 다투기도 하였는데 모두들 얼굴에 까맣게 숯가루가 묻어 서로 마주 보고 놀려주면서 즐기기도 하였다.”¹⁸²⁾라고 회고 했다.

천재동의 회고에 의하면 대정관이란 극장은 1911년에서 1912년 사이에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참고로 경성에 신식 건물의 대정관(大正館)이란 극장은 1912년에 개관했다. 또한 그의 회고에 의하면 시설적인 측면에서 극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부하다. 따라서 천재동이 회고한 대정관은 업소라고 할 수 없는 간이 극장으로 추정된다.

방어진에 설립된 공식적인 극장은 상반좌이다. 상반좌(常盤座; ときわざ)는 1887년 10월 1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 공원에서 개업한 극장으로서 일본 전국에 각 지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에는 1908년 목포에 상반좌(常盤座)가 개관했다. 한편 1910년 전후 부산에 극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부산 최초의 극장으로 알려진 행좌(幸座)는 1915년 활동사진 전용관으로 개편하면서 이름을 행관(幸館)으로 바꾸었다. 극장의 대표였던 사쿠라바 후지오는 1924년 7월 일본

182) 천재동(2007). 아흔 고개를 넘으니 할 일이 더욱 많구나. 동아정관, p.186.

마키노 영화사와 조선·만주 지역 배급권 계약을 맺어 영화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1924년 사쿠라바(樓庭)는 국내에 외국 영화를 배급하면서 전국적으로 극장도 경영했는데, 특히 울산 방어진의 상반좌(常盤座), 대구의 대송관(大松館), 대전의 대전관, 목포의 희락관(喜樂館), 군산의 희소관(喜笑館), 이리의 이리좌(裡里座), 원산의 원산극장, 해주의 해주좌 등은 직영 순업부로 계약 운영했다.¹⁸³⁾

이 내용에 의하면 방어진 상반좌(常盤座)는 1924년 이전에 건립된 것은 확실하고, 천재동은 자신이 여섯 살 때(1920년) 이 극장이 개관했다고 회고했으므로 방어진 상반관은 1920년에 개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극을 볼 수 있거나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를 좌(座) 또는 관(館)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일본은 가부키와 같은 극을 볼 수 있는 극장을 좌(座)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그것은 신을 벗고 다다미 바닥에 앉아 보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따라서 좌(座)는 신을 벗고 앉아서 극을 보는 극장을 의미하고, 관(館)은 좌(座)보다 규모가 크고 의자를 갖추었으며, 영화를 상영하는 근대식 극장이라고



사진은 현재 일본에서 운영중인 상반좌 내부 모습. 방어진 상반좌의 내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183) 홍영철(2009), 부산근대영화사, 산지니, p.58.



방어진 상반관에서 상연된 1926년 아리랑 영화 포스터(출처: <http://nekonote.jp/pusan.html>).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부산 최초의 극장인 행좌(幸座)가 1915년 활동사진 전용관으로 개편하면서 이름을 행관(幸館)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920년경에 건립된 방어진 상반좌(常盤座)는 울산 최초의 극장이었다. 1926년부터는 언론에 상반관(常盤館; ときわかん)으로 소개됐는데 시설변경과 활동사진 즉 영화를 상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방어진 상반관은 일

본의 전국주요영화관편람 대정후기(大正後期 13-15年)에도 소개되었는데 대정 15년은 서기 1926년에 해당된다. 상반관에서는 1926년에 개봉된 나운규의 '아리랑', 1928년에 상영된 무성영화 '낙화유수', 1932년에 개봉된 '임자 없는 나룻배' 등의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¹⁸⁴⁾

그리고 1926년 당시 신문에도 방어진 상반관에 관한 기사가 등장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일간 대영화(大映畫) - 울산군 동면 사립 보성강습소는 준수한 성적으로도 유지가 극히 곤란한 바 방어진노동친목회의 간부 제씨와 강습회 당국자는 지방유지와 합하여 후원회를 조직하고 26일부터 5일간 예정으로 방어진 활동사진관을 250원에 가매하여 입장권 3천 매까지 방매할 예정으로 인근 각 동에 행매한다.”¹⁸⁵⁾

184) 천재동(2007), 앞의 책, p.188.

185) 조선일보(1926. 3. 31).

“방어진 소방조(消防組)에서는 방화(防火) 선전과 사원 위안 영화대회를 본 월 16일 밤에 상설 상반관에서 개최했는데 주간에 동 조원이 배부한 방화선전 삐라와 영화안내에 의하여 조원과 가족 기타 일반관중은 석양 때부터 운집하여 무려 일천여명에 달하였으며, 동면장 김두현 씨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오카베(岡部)소장의 방화상에 대한 주의와 타카쓰메(高詰設) 조장의 소방 책임에 대한 소감 연설 등이 있는 후 영화를 감상하고 성황리에 오후 10시 폐회하였다.”¹⁸⁶⁾

1927년에는 적포단(赤包團)의 소인극(素人劇)이 상반관에서 상영되어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다.¹⁸⁷⁾ 소인극(素人劇)이란 일본식 용어로서 전문적인 배우가 아닌 사람들이 출연하는 일종의 아마추어 연극을 말한다. 이후 방어진어업조합대회가 상반관에서 개최되었고,¹⁸⁸⁾ 약 10년간 운영되었던 상반관은 협소하여 확장하게 되는데 당시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방어진 상반관 확장 - 방어진항의 유일한 오락기관 상반관(常盤館)은 울산군내 유일의 극장으로 그 존재를 알렸으나 읍 승격 이후 대방어진 약진상으로 비추어 손색이 있다하여 작금 현관주 고힐(高詰)씨는 단연 확장 공사에 착수하여 일반 읍민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게 하리라 한다.”¹⁸⁹⁾

1924년경부터 영화는 물론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방어진 상반관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목재건물이었는데 1941년 3월 22일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됨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한편 울산 읍내에 극장이 들어선 것은 1932



방어진 상반관 화재 기사(매일신문 1941. 3. 23).

년 전후 구 역전의 울산극장인데 독창회와 연주회 그리고 연극이 등이 개최되었지만 창고와 같은 시설에 간이 형태여서 극장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1937년 9월 1일에 비로소 근대식 울산극장이 개관하여 문화에 목마른 울산지역민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상반관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아파트와 3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2016년 4월 현재).

186) 중외일보(1926. 11. 20).

187) 중외일보(1927. 8. 21).

188) 동아일보(1933. 12. 3).

189) 동아일보(1937. 10. 3).

품평회와 가정요리강습회

1923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농산물과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면 품평회가 3일 동안 개최되었다. 관람자는 5천여 명에 이르렀고, 출품 총수는 434점이었으며, 1등 수상자 14명, 2등 수상자 27명, 3등 수상자 48명, 4등 수상자 120명 등 총 209명이 상을 받았다. 1등 수상자 14명이 출품하여 포상을 받은 물품을 보면, 누에, 면화, 현미, 대맥, 소두, 대두, 포, 감자, 김, 멸치, 절인앵두, 간고등어 등이었다. 동면 품평회는 당시 면장 이종태와 어업조합장 김두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데 민민의 칭송이 자자했다.¹⁹⁰⁾



1937년 동아일보 주최 울산 제2회 가정요리강습회 광고. 강사는 경성 임병수(林丙秀)씨라고 소개되어 있다(동아일보, 1937. 7. 19).

한편 1937년 11월에는 방어진주조회사의 루상에서는 동아일보 방어진 분국 주최 제1회 가정요리강습회가 3일간 개최되었다. 참가 인원은 30여 명이었으며, 강사 임병수(林丙秀) 씨의 독특한 교수에 흥미를 더했고 성황리에 마쳤다.¹⁹¹⁾ 임병수는 7월에 이미 울산 통도사 포교당에서 한차례 강습회를 가진 바 있었다. 그리고 울산부내의 경우 방어진보다 1년 앞선 1936년에 처음 가정요리강습회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요리강습회는 1930년대 초반부터 조선요리강습회와 가정요리강

습회 등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요리강습회는 처음에는 조선요리의 재인식에서 출발했으나 점점 실용적인 요리를 강습하는 방향으로 변모했으며, 또한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조선음식에 머물지 않고 중국요리, 일본요리, 서양요리, 과자, 음료수 등 메뉴가 다양화되었으며, 언론사가 후원사에서 주최사로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이 때 언론사의 요리강습회 사업 파트너로서 전국을 순회하는 전문 음식교육업체인 경성 베니야 상회도 출현한 것이다. 울산과 방어진에서 가정요리를 강의한 임병수는 경성 '베니야 상회' 요리연구부 소속이었는데 1935년부터 1939년 사이 각종 제과법 및 요리법을 전국적으로 강습한 스타 강사였다.

일제강점기 품평회와 가정요리강습회는 근대 신식문화의 계몽과 선전의 장이자 여가의 공간이기도 했다.

190) 동아일보(1923. 12. 9).
191) 동아일보(1937. 11. 11).

술도가

공식적인 방어진 최초의 양조장은 1922년 11월 25일 일본인 나카즈카(中塚 助一郎)에 의해 술, 간장 양조, 토지 매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진가옥(津加屋)이다. 설립 당시 주소는 방어리 173번지였으나 1922년부터는 방어진 359번지로 옮겼으며, 주로 일본의 정종(正宗)과 같은 청주를 양조했다. 이곳에서 양조된 술은 어부들이 즐겨 찾는 술집 및 음식점 그리고 유곽 등에도 공급됐고, 이주 일본인들은 이 술을 통해 향수를 달랬을 것이다.

술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일본인 히라마츠(平松秀夫)는 1928년 방어리 363번지에 방어진양조(합자)를 설립했으며, 이듬해에 방어진 주조주식회사로 확대하고 서부리 133번지에 지점을 두었다. 이때 조선인 김영민(金永敏)과 윤덕호(尹德鎬)는 이사, 한때 보성학교 교장이었던 성세빈(成世斌)은 감사에 등록됐다. 히라마츠는 1929년 간장·일본 된장·양조 매매 등의 목적으로 방어진장유(方魚津醬油) 합자회사를 또 하나 설립했다. 장유(醬油)란 일본식 간장을 말한다. 1930년 방어진 지도상의 평송장유양조부(松醬油釀造部)는 방어진양조와 방어진장유회사를 하나로 합쳐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진가옥과 평송장유 외 간장을 양조했던 업체로는 관촌장유양조소(官村醬油釀造所)가 있었는데 1927년 설립됐고, 카와구찌(川口新市)가 대표였다.¹⁹²⁾ 방어진에 간장 공장이 3곳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간장이 기초 식재료로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양조장이 대부분 간장 양조를 겸했는데 이는 재료와 생산 방식이 유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쓰모토(松本新左衛門)는 1927년 진가옥과 평송장유 주변에서 이들 업체가 만든 일본 된장 및 간장을 판매하는 송본상

192)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29년).

점(松本商店)을 열기도 했다.¹⁹³⁾

진가옥과 방어진양조 외에 합전옹부(合田熊夫) 양조업도 있었는데, 대표였던 고오다(合田熊夫)는 양조업뿐만 아니라 1924년에 조선해륙물산(朝鮮海陸物産) 주식회사를 설립(방어리 376)하여 농수산물 매매 위탁업을 하기도 했다.¹⁹⁴⁾ 그는 1924년 당시(30세) 가택침입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죄명으로 대구복심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공소취하로 풀려나는 등¹⁹⁵⁾ 성품이 불량했다.

이와 같이 초기 방어진의 술 양조는 일본인이 주도했는데 이는 일제의 정책에 힘을 입은 것이었다. 즉 한 말 이후 식민지 초기까지 우리나라의 주조(酒造) 시장은 주조에 전업을 하기 보다는 음식점 등에서 술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빚었고, 일반 소비자들도 가정에서 빚어 먹는 경우가 많아서 가내용과 판매용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가내공업 수준이었다. 일제는 이를 양성화하여 소비세 재원으로서 주세(酒稅)를 확보하고자 1909년 주세법을 제정 발표했다. 주 내용은 납세의무를 주류제조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납세에 부담을 느낀 영세업자는 서서히 퇴출되고 그 대신 대자본에 의한 양조업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주세를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16년 주세령(酒稅令)을 발표하면서 주조업의 면허조건을 강화했는데 주종별로 1년 동안 청주(淸酒)는 100석 이상, 맥주는 500석 이상, 조선주가 아닌 탁주는 50석 이상, 조선주 소주는 2석 이상, 그리고 탁주 및 약주는 5석 이상을 주조해야 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소규모 영세 주조업에 대한 강제적 정리 작업이었고,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나 자금 조달이 유리한 일본인과 일부 조선인 부유층의 양조업을 장려하기 위함이었다.

193)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31년).

194)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25년).

195)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한편 방어진주조(주)는 울산에서 주식회사로 운영했던 유일한 양조장이었는데 1932년에는 이사였던 윤덕호가 6000여 원을 들여 전부 매수하고 대표자가 됨으로써 비로소 조선인이 운영하게 됐다.¹⁹⁶⁾ 방어진주조(주)의 술은 1932년 울산군 조선주 품평회에서 관내 다수 주조회사의 술과 함께 2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덕호는 1934년 일산리에 방어진정미소(합자회사)를 운영하는 등 방어진의 유력 실업가로 성장했는데 당시 신문에서는 그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일류사업가 방어진 윤덕호(尹德鎬)씨. 윤덕호 씨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자랑의 대어항 방어진 일선인실업계(日鮮人實業界)에 있어서 단연 두각의 유력자이며 실업가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지방 발전의 공로자로서 윤 씨의 다혈적 성질은 어떠한 사업이고 착수하여 성공을 보지 않고는 일보도 퇴각할 줄 모르는 노력가이다. 현재 윤 씨의 사업은 다방면으로서 정미업, 운수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에서도 방어진 사회의 제1인자로서 만에 가까운 금액을 교육사업에 희사하였으며, 작년에는 춘궁기에 수백 명 어민의 양식을 부담하여 면민(面民)의 칭송이 자자하다. 현재 공직으로는 동면협의원(東面協議員) 동면보교학무위원(東面普校學務委員) 등 중직에 있다.”¹⁹⁷⁾

윤덕호의 교육사업은 보성학원으로서 그의 친동생인 윤덕조(尹德兆)가 운영했다. 한편 1929년 울산군에서는 조선주양조업자를 집약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각 면에 구역을 정하여 각각 회사를 창립하게 했는데 유독 동면에 한하여 당국에서는 방어진 일본사람이 경영하는 양조회사를 옹호하여 구역 밖의 주요한 부락인 일산, 화정 두 마을을 방어진에 편입하고자 한다는 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¹⁹⁸⁾ 술 제조 및 판매는 예나 지금이나 이권 다툼이 심했던 모양이다.

196) 동아일보(1932. 11. 6).
197) 동아일보(1937. 7. 25).
198) 동아일보(1929. 5. 19).

예전부터 술을 빚어 만들어 판매하는 집을 술도가라고 했다. 도가(都家)는 도매로 물건을 파는 장사 또는 그런 가게나 장수를 말한다. 변변한 산업시설이 없었던 시절 술도가는 동네 최고의 부자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술도가에서 술을 거르고 난 뒤 남은 곡물 지게미를 얻어 배를 채웠다. 영양분은 없었지만 굶는 것보다는 나았다. 아이들은 이 지게미를 먹고 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취하여 선생님에게 매를 맞기도 했다. 한때 방어진을 풍미했던 술도가는 도로가 나고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중앙의 여왕노래방 건물의 위치에 평송장유양조부가 있었으며, 그 앞쪽에 진가옥(津加屋) 정종양조(正宗釀造)가 있었으나 우측 신도리가 나면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사진은 2015년 9월 현재).



관촌장유양조소(官村醬油釀造所)가 있었던 곳에는 가정 주택이 들어서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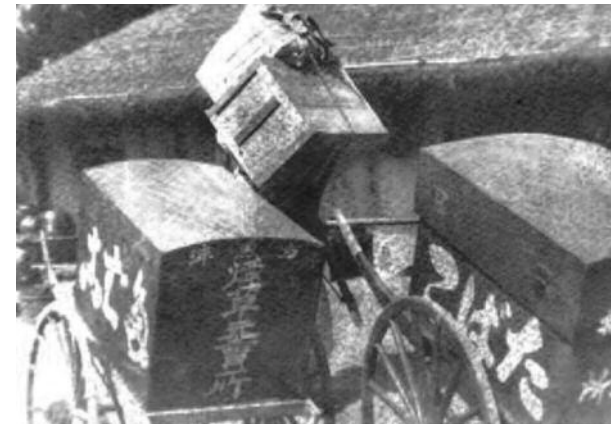
연초원매소(煙草元賣所)

연초(煙草)란 연기가 나는 풀 즉 담배를 의미하고, 원매소(元賣所)는 도매업체를 말한다. 즉 연초원매소는 전매국으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아 소매점인 각 상점에 판매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1924년 방어진 연초원매소는 부산연초전매국 출장소 관할이었는데 연간 매상고가 전년도에 비해 2,668원이 증가한 74,856원에 달했다는 기사를 볼 때¹⁹⁹⁾ 방어진 연초원매소는 1922년 전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1932년 신문에는 방어진 삼택(三宅) 담배점에 위조화폐 1매가 발견되었다는 기사²⁰⁰⁾가 있는데 삼택(三宅) 담배점은 방어진 연초원매소의 관할하의 소매점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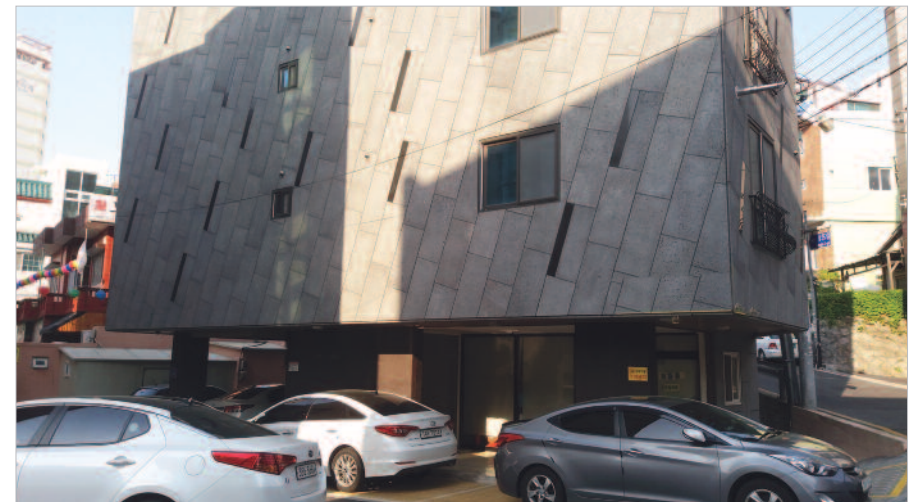
한편 일제는 1909년 주세법(酒稅法)과 더불어 연초세법(煙草稅法)을 공포했는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주 내용은 연초경작자와 연초판매업자는 정부의 면허를 득하고, 각각은 연초경작세와 연초판매세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초판매는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였다. 1914년에는 연초세령(煙草稅令)이 시행되어 연초제조자와 연초판매자는 각각 제조장과 점포 1개소마다 면허를 득해야만 했다.²⁰¹⁾ 이후 조선총독부가 1920년 홍삼전매령을 공포한 후 1921년 연초전매제를 실시하여 연초업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자 조선인 연초재배업과 판매업은 몰락했으며, 조선인들은 비싼 전매 연초를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한 종류의 물품에 대한 판매를 법률상 독점하는 것을 전매라고 하며, 이에 대한 사업을 전매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라의 담배 전매사업은 1921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05년부터 담배 전매사업이 실시됐는데 이 무렵 일본의 담배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대거 한반도에 진출했다.



1936년 방어진 연초원매소(煙草元賣所)의 담배를 배달하는 수레. 왼쪽 수레 세로 연초원매소(煙草元賣所) 글씨 위에는 가로 방어진 한자가 보인다. 이 수레를 이용하여 각 소매점에 담배를 납품한 것이다(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연초원매소가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원룸이 들어서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199) 매일신보(1925. 1. 27).

200) 동아일보(1932. 9. 16).

201) 조선총독부관보(1914. 3. 16).



일제강점기 담배 판매점. 중앙의 간판에는 일본어로 다바코(たばこ), 우측의 간판에는 연초(煙草)라고 쓰여 있다(출처:네이버 블로그/시간과 공간의 향기).



일제강점기 담배 판매점의 간판(출처:한국담배민속 박물관).

당시 담배 판매점의 간판에는 일본어로는 다바코(たばこ), 한자로는 연초(煙草), 한글로는 담배를 당시의 글자체로 표기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곰방대에 잘게 썬 담뱃잎을 넣고 불을 붙여서 피웠지만, 일본인이나 유한 조선인들은 현재와 같이 필터가 달린 쫄면 담배를 피웠는데, 당시 방어진 사람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애연가들이 즐겨 피웠던 담배는 해태, 단풍, 참외, 앵무, 송풍, 비둘기 등이었다.

유곽(遊廓)

유곽(遊廓)이란 관의 허기를 받아 일하는 창기들을 두고 손님을 맞아 매음 행위를 하게 하는 집이나 그 집들이 모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일본식 유곽은 1584년 도요토미(豊臣秀吉)가 오사카에 최초로 유곽을 허가함으로써 도입되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²⁰²⁾ 에도시대(江戸時代) 유곽에서 일을 했던 유녀(遊女)들은 예창(藝娼)들로서 단순한 매음에서 벗어나 연극, 음악, 문학, 회화 등 예술적 재능을 갖추었고, 유곽은 대표적 오락 장소로서 문화적 공간의 역할도 했다. 근대 이후 명치시대(明治時代)에 들어와서 유곽은 예술적 문화적 기능이 약화되고, 대좌부 형태의 단순 집장촌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대좌부(貸座敷)란 일본의 독특한 성매매 방식으로 남녀가 은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좌부업자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성을 알선하는 포주(抱主)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곽은 1956년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매춘방지법이 1958년 4월 공식으로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에 일본식 유곽이 처음 들어선 곳은 1902년 부산 좌수토원(左須土原; 현 부평동 일원)으로서 안락정(安樂亭) 등 대좌부 업소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개항 후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대부분 독신 남성들로서의 단순 노무자이거나 영세 상인들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매춘업을 하고자 일본인 성매매업자들은 본국에서 창기들을 모집하고 이송했다. 그러나 시가지의 팽창으로 인하여 성매매업소들은 1907년에서 1912년 사이 녹정(錄町; 미도리 마찌, 속칭 완월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²⁰³⁾

한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주석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기예를 업으로 하

202) 權田保之助(1923). 『娯樂業者の群：社会研究』, 実業之日本社, p.18.

203) 부산역사문화대전.

는 일본 여인을 ‘예기’, 한국 여인으로서 같은 일을 하는 자를 ‘기생’, 불특정다수인에게 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는 ‘창기(娼妓)’라 하여 엄격히 구별하였다. 또한, 술과 요리 그리고 창기(娼妓)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좌부의 경우 특별음식점으로 관리했다.

울산에 유곽이 처음 등장한 곳은 1910년대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였던 방어진이였다. 당시 가난한 일본 여성 수십 명이 소형 배를 타고 와서 일본 어민을 상대로 매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부를 상대로 영업을 했지만 공장이 들어서고 수산업자 및 상인이 들락거리는 등 도시가 변창해지자 매춘의 가능성을 간파한 일본인들이 자국에서 본격적으로 유녀들을 공급하면서 유곽 영업은 확장됐다. 음성적으로 영업을 했던 유곽은 1916년 경상남도 경무부가 방어진의 유곽 거리를 대좌부영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²⁰⁴⁾ 공식화되었다. 이후 1918년에는 유곽 19곳이 영업했으며, 1921년에는 20곳에 398명이 종사하는 등 절정에 달했다.

한편 유곽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자 사회적 비판도 뒤따랐다. 1924년 시대일보는 “눈물 뒤에 숨은 웃음에 매달린 목숨들. 유곽에만 노는 사람이 칠십만 명. 일 년의 유희비는 구백삼십만 원”이라고 비판하면서 전국의 유곽에 종사하는 조선인 여자는 1,142명, 일본인 여자는 2,406명, 유곽촌은 경성에 4곳, 인천, 개성, 대전, 군산, 전주, 목포, 광주, 대구, 마산, 진해, 진주, 울산, 방어진, 통영, 원산, 함흥, 청진, 라남, 회령 등지에 한 곳이 있다고 소개했다.²⁰⁵⁾

방어진 유곽에는 일본인들이 주로 출입했으나 점점 조선인들의 출입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방어진의 지역 사람들은 이곳 유곽 지역을 ‘청루골목’이라고 불렀다. 청루(靑樓)란 기생이 손님을 맞아 영업하는 집을 말하는데 그 문화는 중

204) 조선총독부관보(1916. 6. 24).

205) 時代日報(1924. 5. 26).



어느 유곽의 정면 모습. 2층에 유녀들이 보인다(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국으로부터 들어왔다. 청루는 원래 호화롭게 잘 지어진 누각을 일컬었는데 당나라 때 순전히 화류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다.

방어진에 어둠이 찾아오면 유곽의 거리에는 흥등과 함께 일본의 전통 현악기인 샤미센(三味線, しゃみせん)의 음악 소리가 가득했다. 그 음악 소리에 흘러 남성들은 하나둘씩 유곽을 찾았을 것이다. 무산자 조선인들은 청루골목 요리점의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심부름과 청소 등 허드렛일을 했다. 1929년 말 기준 방어진 유곽에는 일본인 영업자 10명에 일본인 창기 수는 39명, 조선인 영업자는 1명에 조선인 창기수는 8명이 종사했다.²⁰⁶⁾ 1930년 방어진 지도상의 유곽 거리에는 삼도옥(三島屋), 영목광지(領木光枝), 구옥(龜屋), 천길루(淺吉

206) 廓清(1931年 10月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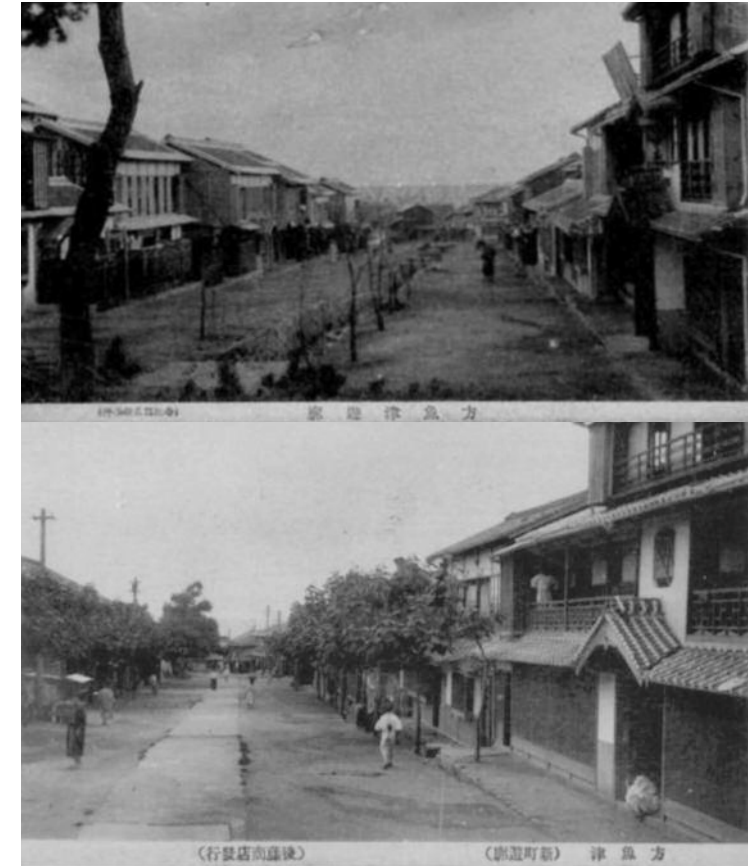
樓) 등이 등장하는데 당시의 유곽으로 추정된다. 이후 유곽은 상당수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1935년에는 기루(妓樓)가 3채, 창기는 약 20명²⁰⁷⁾에 불과하여 일제 강점기 후반으로 갈수록 쇠퇴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전쟁 광기에 따른 방어진의 경제 상황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곽에서는 각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신문 기사를 통해 나타난 방어진 유곽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5. 언론 기사에 나타난 방어진 유곽관련 사건

신문	기사내용
조선일보 (1927. 3. 4)	방어진의 창기 업자 일본인은 병들은 창기에게 약을 안 주고 굶겨 창기 일동이 경찰서에 탄원, 악덕 일본인 누주(樓主)를 고발
조선일보 (1930. 12. 31)	경주군 최모는 같은 동네에 사는 박모가 돈을 팔아서 수백 원을 가진 것을 알고 이것을 탈취하고자 수명이 공모하여 울산 방어진에 기생이 있다고 빙자하여 모두 방어진으로 와서 모 청루에 가서 3-4일 노는 동안 박모가 가져온 50여 원은 다 써 없애고 도로 100여 원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최모 외 2인은 도망가고 박모는 경찰에 구인되어 취조를 받는 중이다.
동아일보 (1937. 11. 15)	김환규라는 사람이 함인숙이라는 여인을 부산에서 유인하여 방어진 봉래관 유곽에 300원에 팔아넘겼다.

207) 日本遊覽社(1935). 全國遊廓案内, p.239.



일제강점기 방어진 유곽거리(현, 방어진 교회 부근. {출처: <http://aucview.aucfan.com/yahoo>}).



유곽거리가 있었던 곳은 현재 길 양쪽으로 아파트와 교회가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제7부

근대 방어진의 각종 사업체

● 임겸상점(林兼商店) - 방어진 최대의 기업

- 조선소
- 여관
- 병원
- 약국
- 수산업
- 상점

방어진
조어의 갈고리

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임겸상점 林兼商店 - 방어진 최대의 기업

임겸(林兼; 하야시카네)상점 창업자 나카베(中部幾次郎)는 오사카 인근 메이시(明石)에서 수산물을 운반하는 단순 유통업자였다. 1904년에 러일전쟁이 발발 때 일본군용 식량의 수요가 급증하자 사업 영역을 일본 서부해역으로 확장했고, 본거지도 메이시에서 시모노세키(下關)로 옮겼으며,²⁰⁸⁾ 조선해 어업 사업에도 착수했다. 1907년경 임겸상점이 소유한 신생환(新生丸)은 최신의 동력 운반선으로서 시모노세키까지 주야에 운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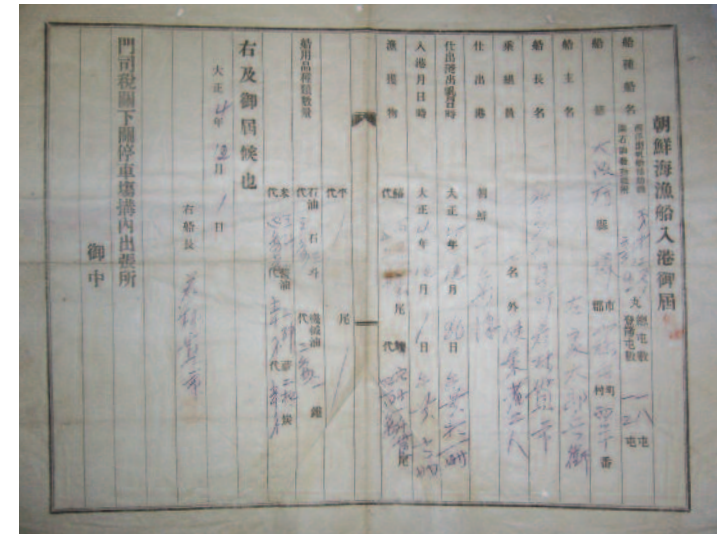


1905년 나카베(中部幾次郎)가 개발한 일본 최초의 석유 발동기가 부착된 선어 운반선인 신생환 (출처:明石市教育会(1941) 中部翁略伝).

208) 香野展一(2011). 일제하 中部幾次郎의 林兼商店 경영과 '水産財閥'로의 성장, 동방학지 153, pp.277-328.

한, 조선에서의 근거지를 확대하여 나로섬, 부산, 여수, 방어진 등에 거점을 늘려갔고, 1910년에는 임겸상점 방어진 영업소를 설치하여 전갱이와 고등어 등을 잡아 얼음에 채워 일본으로 수송하기 시작했다.²⁰⁹⁾ 이후 임겸상점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1915년 근거지를 아예 시모노세키에서 방어진으로 옮겨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박 신생환 등의 동력 운반선을 가동시켜 시모노세키에 어획물을 날랐다.²¹⁰⁾

당시 방어진과 시모노세키 간의 어획물 수송에 관한 내용은 세관신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1915년 12월 1일 임겸상점이 방어진에서 획득한 어획물을 시모노세키에 반입할 때 제출한 세관신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은 신생환(新生丸, 12톤), 출항지는 방어진, 출항일시는 1915년 11월 30일 오전 11



1915년 12월 1일 임겸(林兼)이 방어진에서 획득한 어획물을 시모노세키에 반입할 때 제출한 세관신고서.

209) 長崎県における漁業種別の変遷.

210) 利七屋孫兵衛の日記(2009. 2. 3). 「林兼商店」と「利七屋」の関係.

시였고, 시모노세키 입항일시는 1915년 12월 1일 오전 6시로 기록되어 있다.²¹¹⁾ 이 기록에 의하면 방어진에서 시모노세키 간 소형동력선에 의한 소요시간은 19시간으로 나타났다.

1924년 방어진의 임검상점은 주식회사로 확대되는데 그때 본사를 일본 시모노세키에 옮기고 방어진에는 지점을 두었다. 물론 대표이사는 나카베(中部幾次郎)였고, 방어진 지점장으로는 마루오(丸尾信一)가 임명되었다. 당시 임검상점(주)의 설립 목적은 ①수산물, 어로제조 양식 및 그것을 매매운반 ②수산물의 냉장보관 및 그 제빙 ③선박 및 어업용품 및 그 수산물 처리 용품의 제조 판매 ④조선(造船), 조기(造機) ⑤유류판매, 정미, 제염 ⑥위 각항에 대한 출자 및 자금의 대부 기타 부대사업 등을 하는 것이었다.²¹²⁾ 즉 임검상점(주)은 수산물을 생산하여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관장했던 수산물 종합상사였던 것이다.

1920년대 임검상점의 어업 상황을 알 수 있는 신문기사가 있는데 “나카베(中部幾次郎)가 경영하는 대부망(大敷網) 어장에서는 작년 12월 28일부터 삼치가 매 야간에 5,000마리 이상의 어황이라는데 가격은 한 마리에 십 원 이상 40원까지라 하며, 5일 밤까지의 어획고는 약 100만 원 이상이므로 부근 주민들은 공전의 대풍어임을 경탄한다더라”²¹³⁾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대부망은 크게 길그물과 삼각형의 통 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길게 뻗은 길그물은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길그물의 바깥쪽 끝에 설치된 삼각형의 통 그물로 생선을 유도하여 잡는 망을 말한다. 지금은 대부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11) 利七屋孫兵衛の日記(2009. 2. 1).

212)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27년).

213) 매일신보(1928. 1. 12).

1931년에는 부산이 임검상점의 지점으로 추가되었고, 목포, 청진, 나로도에는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임검상점은 방어진에 상주하는 일본인 직원을 위한 사택을 지었는데 팔현장옥(八軒長屋) 즉 한 지붕 밑에 8세대가 칸을 나누어 살 수 있는 가옥형태였다. 당시로써는 최대 규모의 가옥이었다. 방어진 최대의 기업 임검상점은 자사의 어선에 종사할 어부와 노동자들을 고용했고, 방어진의



임검상점(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임검상점 방어진 지점이 있었던 곳에는 횃집이 들어서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많은 상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성업을 하자 방어진을 ‘임겸마을’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임겸상점은 방어진 경제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한편 1930년대 일본에서의 임겸(林兼)은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에도 착수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했다. 또한,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세력권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대되면서 임겸의 영업지역도 확대되었고, 경영 규모는 급속히 확장되어 거대한 자회사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결국 1930년대 임겸상점은 일본의 3대 수산회사로 발전했고, 전후(戰後)에는 대양어업(大洋漁業) 주식회사로 변모하면서 수산재벌이 되었다.

1993년부터는 마루하(マルハ)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는데 이 상호는 당시 하야시카네의 로고가 원 안에 일본어로 하(は)라고 표시된 데서 유래되었다. 2007년부터는 구 니치로(ニチロ) 주식회사와 통합하면서 마루하니치로(マルハニチロ)란 상호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0년대부터 임겸상점이 1992년 대양어업이란 상호로 운영될 때까지 사용된 로고. 당시 방어진에 입출항한 임겸상점 소속 선박의 깃발에는 이러한 로고가 새겨졌고, 임겸상점의 각종 인쇄물 등에도 표기되었다. 대양어업은 1993년부터는 마루하(マルハ)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는데 이 상호는 당시 임겸의 로고가 원 안에 일본어로 하(は)라고 표시한 데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대양어업은 1949년 일본 프로야구단을 창설하여 1950년 출범 당시 야구단의 명칭을 다이요(大洋) 웨일즈(ホエールズ)로 정했는데, 대양어업 주식회사의 주 사업이 포경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1989년부터는 요코하마 베이스타즈(ベイスターズ)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수산재벌이자 프로 야구단을 경영하고 있는 현재의 마루하(マルハ) 주식회사는 1915년 방어진을 근거지로 한 임겸상점이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했던 2014년 4월 15일 세월호는 임겸(林兼)과 관련이

있다. 세월호는 1994년 대양어업(大洋漁業)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임겸(林兼) 나가사키(長崎) 조선소(현, 후쿠오카 조선소)에서 만들었다. 건조 당시 총톤수 6,647톤, 최대 승선 인원 840명으로 일본 가고시마와 오사카 사이의 작은 섬들을 연결



2014년 4월 15일 침몰된 세월호는 1994년 임겸(林兼) 상점의 후신인 대양어업(大洋漁業) 주식회사 계열사 임겸 나가사키 조선소(현, 후쿠오카 조선소)에서 만들었다.

하던 여객선이었다. 이름은 나미노우에(なみのうえ)호였으며, 우리나라 청진해운이 수입하기 전까지 18년간 운항했다. 배의 선령이 20년을 넘으면 노후 선박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청진해운이 115억에 인수했고, 2012년 10월 세월호란 이름으로 선적항을 인천광역시로 하여 신규 수입 등록을 마쳤다. 이를 목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넉 달 동안 증개축을 하면서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싣기 위하여 낡은 배에 추가로 선실을 만들었다. 그 결과 탑승 가능한 전체인원은 117명이 증가한 921명이 되었으며 경하중량은 6,113톤으로 늘었다. 청진해운은 개조한 세월호를 독점 운항구간인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했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경 승객 447명, 승무원 29명 등 총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는 무리하게 화물을 실은 채 유속이 빠른 맹골수도를 지나다 갑자기 복원력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 전복되었다. 생존자는 172명, 사망자는 294명, 실종자는 10명이나 되었다.²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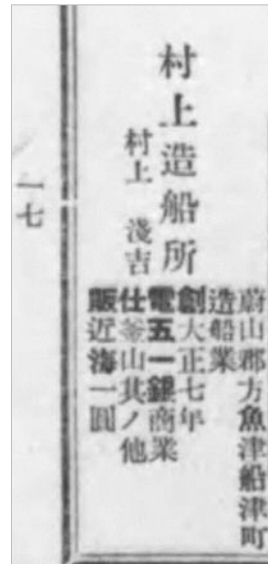
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14),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생각의 길.

조선소

촌상조선소(村上造船所) - 방어진 최초의 조선소

촌상(村上; 무라카미)조선소는 1918년에 설립된 방어진 최초의 조선소였다. 1936년 당시 대표인 무라카미(村上淺吉)였고,²¹⁵⁾ 소형 목선을 제작한 규모가 작은 조선소로 추정된다. 1938년에는 촌상조선철공소로 바뀌었는데 목선건조의 조선소 외 동력 엔진 제작의 철공소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 대표는 무라카미(村上藤三郎)였고, 40명의 인부가 종사했다.²¹⁶⁾

1949년 관 경제연감에 백만득(白萬得) 대표의 촌상조선소(村上造船所)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해방 이후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959년에 조사된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에는 방어리 177번지에 백만복(白萬復) 대표의 목조어선 건조 목적의 환백조선소(丸白造船所)가 등장²¹⁷⁾하는데, 이 무렵 명칭과 대표가 변경되었다. 방어리 177번지는 일제강점기 촌상조선소(村上造船所)가 있었던 위치이다.



일본상공흥신소(1936)의 일본상공흥신소요록에 촌상조선소(村上造船所)는 방어진 배가 정박하는 곳에 있고, 조선업이며, 창립은 대정 7년(1918년)에 했으며, 1936년 당시 대표는 촌상천길(村上淺吉)로 되어 있다.

215) 日本商工興信所(1936). 日本商工興信要録. 昭和 11年 満州, 朝鮮, p.17.

216) 日本商工興信所(1938). 日本商工興信要録. 昭和 13年 朝鮮, p.35.

217)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명부.

방어진철공조선소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선소

우리나라 근대적 개념의 조선소는 1887년 일본의 조선업자가 부산에 전중조선철공소(田中造船鐵工所)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제가 한반도에 진출하면서 일본인들이 부산, 청진, 인천, 목포, 진남포, 충무, 원산, 군산, 마산, 포항 등지에 조선소를 설립했는데 규모나 시설 그리고 기술력을 고려하면 대부분 재래식 조선소들로서 비동력의 목선 위주로 선박을 건조했다. 우리나라 조선사(造船史)에서는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조선소를 1929년에 세워진 방어진철공소로 보고 있는데²¹⁸⁾ 그 이유는 본격적으로 엔진 제작을 통한 동력어선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즉 방어진철공조선소는 철공소와 조선소 사업부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철공소는 엔진제작을 담당하였고, 조선소는 목조 어선을 건조했던 것이다.

방어진철공조선소의 설립자 나카베 이쿠지로(中部幾次郎)는 1916년 일본에서 중부철공소(中部鐵工所)를 창업했고, 1919년 임겸조선철공소(林兼造船鐵工所)란 상호로 개칭하여 운영했는데 이미 철공조선소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방어진에서도 조선사업의 유망함을 간파한 나카베는 조선소 건립을 위하여 1910년에 조성된 방과제에서 1928년에 조성된 방어진 방과제 사이의 공유수면 약 1,000평을 매립(방어리 204-2번지)하여 1929년 4월 20일 자본금 10만원을 들여 조선·선박 수리·선박용 발동기 수리제작 및 기타 선박 부분품의 수리 제작 등의 목적으로 방어진철공조선(주)을 설립했다. 대표는 나카베의 아들인 나카베 켄키치(中部謙吉)가 맡았고, 전무이사는 오오바야시(大林金治郎), 감사는 히라마츠(平松秀太) 그리고 공장장 격인 지배인은 요시다(吉田安一)가 임명됐으며,²¹⁹⁾ 그해 7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다.²²⁰⁾

218) 김병욱(2015) 세계 최고 경쟁력, 한국의 조선산업, 김스정보전략연구소, p.80.

219)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31년).

220) 매일신보(1929. 6. 26).



방어진철공조선소 건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지. 사진은 국가기록원의 조선총독부(1929년) 자료이며, 그 위에 필자가 설명을 덧붙였다.

방어진철공조선소의 부지는 1천 평이었고, 1개월 조선 능력은 평균 백 톤과 엔진제작능력은 백 마력이었으며, 직공은 40명이었다. 나카베의 임겸상점(林兼商店) 소속 어선 및 수산물 운반선의 건조 및 수리뿐만 아니라 주문 생산하기도 했다. 1938년 5월에는 자본금 20만 원으로 증자했으며, 1939년에는 200명 이상의 직공을 거느린 조선 최대 조선소 중의 하나로 성장했다.²²¹⁾ 당시 방어진 사람들은 방어진철공조선소를 ‘방철’이라고 약칭하여 불렀으며, 방어진철공조선소는 방어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방어진철공소에 근무했던 조선인 직공의 대우는 열악했는데 다음의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다.

“지난 7일 방어진읍에서는 방어진철공소 직공 김말용이 가족과 함께 한 방에서 램프 등을 켜 놓은 채 잠이 들었는데 석유가 발산되어 파열되자 이불에 불이 붙어 불길에 방안에 퍼지게 되자 자고 있던 김말용의 처 박 씨와 장남 부열, 장녀 남이, 2녀 연이 등 4명이 무참히도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다. 아우성

소리로 인근 사람들과 가족이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구조활동을 하였으나 장남 부열은 즉사하였으며, 모(母)와 두 자매는 중상으로 부산철도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나 생명이 자못 위태롭다고 하며, 가구 전부와 현금 4백원이 소실되었는바 자식과 재물을 잃은 김말용은 당일 벌이의 직공 신세로 노상에서 통곡. 부근 주민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²²²⁾

한편 방어진철공주식회사는 1937년 태평양전쟁 이후 군수공장으로 탈바꿈했고, 해방과 함께 폐쇄됐다. 해방 이듬해 조선경제위원회에서는 일제에 의하여 파탄된 조선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휴업상태에 있는 전국의 17개 공장에 대하여 원료, 연료, 발전기계, 기타 각종 설비품 및 노무 등을 지원하여 가동을 시켰는데 그중에 방어진 철공조선소가 포함됐으며, 230명이 근무하게 됐다.²²³⁾ 이후 1946년부터 대동공업사 사장을 지냈던 동경제대 경제학과 출신의 장병찬(張炳贊)이 1954년부터 1958년 전반기까지 방어진철공조선의 대표를 맡았다.²²⁴⁾

방어진철공조선은 1960년 청구조선공업사로 바뀌고, 1999년 INP중공업, 2007년 세광중공업으로 변경되는 등 명맥을 유지했으나 2012년 파산되고 말았다. 1929년부터 80여 년간 한 자리에서 조선사업이 영위되었던 그곳에는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조선소는 기억 저편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21) 이현호(2008), 일제시기 이주어촌 '방어진'과 지역사회의 동향, 『역사와 세계』 33, p.66.

222) 동아일보(1938. 5. 11).

223) 동아일보(1946. 3. 17).

224) 매일경제(1974. 2. 11).



1936년 방어진철공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선박(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1936년 폭풍우에 피해를 입은 방어진철공조선소(출처: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왼쪽 원 안이 방어진철공조선소 자리이며, 오른쪽 원 안이 방어진철공조선소 제2공장이 위치했던 곳 (사진 속의 공장은 방어진철공조선소의 후신인 2000년대 세광중공업).



선박을 건조하여 진수시켰던 도크가 화석이 되어 남아 있다(사진은 2015년 9월 현재 방어진 방파제에서 찍은 모습).

여관

찬기옥(讚岐屋) 여관 – 방어진 최초의 3층 건물

찬기옥(讚岐屋; さぬきや) 여관은 1909년에 창업했다.²²⁵⁾ 당시 방어진에 일본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자 가옥을 짓기 전 공사 관계자들이 묵을 여관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이 처음부터 3층이었던지는 알 수 없지만 방어진항 축조(1928년) 이전의 사진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909년과 1928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방어진항 중앙에 위치했던 찬기옥 여관 3층 건물은 당시 최고층 건물이자 방어진의 랜드마크였다.

1930년 방어진 지도상의 찬기옥 건물을 보면 중앙에는 여관, 오른쪽에는 잡화 및 석탄을 판매했고, 왼쪽은 오복소간물(吳服小間物) 즉 의류와 화장품, 붓, 칼 등 자질구레한 물건 등을 판매한 만물상 등이 찬기옥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 이는 일종의 찬기옥이란 브랜드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건물은 1933년 7월 26일 요시모토(吉本吉次郎)가 찬기옥(讚岐屋) 건물에 승객 운송 및 하물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찬기옥(讚岐屋) 회조점(回漕店)’을 설립하면서 업종이 전환됐다. 회조점(回漕店)이란 해운 대리점이라는 뜻의 일본식 표현으로서 여객운송과 선편의 하물을 취급하는 부두터미널을 의미한다.

1936년 찬기옥여관은 제 관공서 지정 여관이었고, 기선하객취급(汽船荷客取扱)과 해운업을 병행하여 해물산 중매했으며, 대표 요시모토(吉本吉次郎)는 방어진 소방조(消防組)의 부조두(副組頭)²²⁶⁾였는데, 여관이 주업이었고, 부수적으로 회조점과 해운을 통한 해산물 중매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찬기(讚岐)는 일본어로 사누끼(さぬき)라고 하는데 시코쿠 섬 카가와(香川)현의 옛 지명으로서 우동이 유명한 곳이다. 방어진 이주 어민 중에는 카가와현 출신이 다수 차지했는데 사누끼(讚岐)란 상호는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1912년경 방어진과 부산 간에는 조선우선회사(朝鮮郵船會社)가 우편물을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여 왕래가 시작되었고,²²⁷⁾ 점점 수송의 양이 많아지자 1911년부터 부산대지회조점(釜山大都回漕店)에 근무하고 있던 우에스기(上杉義太郎)는 1926년 독립하여 조선우선(朝鮮郵船) 방어진대리점을 경영했다.²²⁸⁾ 방어진과 부산 간에 우편물 외 인적·물적 이동의 수요가 늘자 1925년 나카무라(中村) 일가가 방어리 347번지에 합자회사 중촌회조점(中村回漕店)을 설립했다.²²⁹⁾ 1933년경 방어진과 부산 간에 정기선 운항은 월 15회였고, 소요시간은 5시간이었다.

특히 조선총독부 7대 우가키(宇垣一成) 총독은 경남북도의 한해 상황과 농작물의 영향이 어떠한지 또는 국민정신, 총동원연맹 애국반 구성을 알고자 1936년 6월 24일 방어진항을 시찰하고 다음 날 부산을 시찰했는데,²³⁰⁾ 당시 가장 규모가 크고 관공서 지정 여관이었던 찬기옥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것으로 여겨진다.

225) 日本商工興信所(1936). 日本商工興信要録. 昭和 11年 滿州, 朝鮮, p.20.

226) 日本商工興信所(1936). 앞의 책, p.20.

227) 매일신보(1912. 1. 7).

228)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인사흥신록 p.56.

229) 조선은행회사요록(1925년).

230) 동아일보(1936. 2. 25).



방어진항 축조 이전에 찬기옥(讚岐屋) 건물이 보인다(출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1920-30년대 방어진항 사진에는 3층의 찬기옥(讚岐屋)건물이 단연 돋보인다
(출처: <http://buyee.jp/item/yahoo/auction>).



1930년대 찬기옥(讚岐屋). 중앙의 3층 건물이 찬기옥(讚岐屋) 여관이었고, 오른쪽 2층 건물에는 잡화 및 석탄을 판매했고, 오른쪽 2층 건물은 오복소간물(吳服小間物) 즉 의류와 화장품, 모, 칼 등 자질구레한 물건 등을 판매했던 만물상이었다(출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사진으로 보는 동구 100년사).



찬기옥(讚岐屋)이 있었던 곳. 중앙의 백년죽말 3층 건물이 찬기옥(讚岐屋) 여관이었는데 당시 3층을 개조했고, 오른쪽 2층 건물은 잡화 및 석탄을 판매했던 찬기옥(讚岐屋)이었는데 당시의 형체가 남아 있다. 그리고 왼쪽 노래 공간과 포교원 건물은 오복소간물(吳服小間物)을 판매했던 만물상이었는데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2016년 4월 현재 사진).

기타 여관

1909년 찬기옥 여관은 일본인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들어섰으나 이후 방어진이 수산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번성하자 일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들락거렸고, 이들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한 여관들이 증가했다. 당시 유명한 여관으로는 찬기옥여관 외 강산여관(岡山旅館)과 삼신옥여관(三神屋旅館) 등이 있었다.



오른쪽 2층 건물이 강산여관이 있었던 곳으로 당시 건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병원

1910년대 방어진에 일본인 이주자들이 증가하자 이들을 위한 병원도 들어섰을 것이다. 1930년 방어진 지도상에 병원은 동해의원(東海醫院)과 대곶의원(大串醫院) 등 2곳이 등장한다. 1937년 “방어진우편소 앞에서 하상선이라는 7세 아이가 놀고 있다가 울산방면에서 질주해 오던 자동차에 치여 중상을 입어 즉시 부산 철도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²³¹⁾라는 기사를 보면 방어진의 병원은 의원 수준이어서 대수술이 요구되는 병은 외지의 큰 병원으로 가야 할 정도였다.

동해의원(東海醫院)

동해의원은 당시 방어진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으며 원장은 한국인 박영주(朴永周)였다. 동해병원은 당시 몇 건의 신문기사에도 등장하는데 기사 몇 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젊은 아내를 둔 사나이의 사랑 갈등. 나이 많아 싫다고 달아난 아내를 추격하여 삶는 듯한 더위 백주 대로에서 대 난투극을 연출하여 간부와 같이 중상을 보게 한 사건이 방어진에서 발생하였다. 경주군 양남면에 사는 강춘길은 나이에 비교하여 훨씬 젊은 최순이(25세)라는 미모의 처를 두었는데 그들 사이에는 6세 되는 딸자식까지 있었다. 처 되는 최순이는 항상 나이 많은 강춘길이가 마음에 안들어 젊은 가슴에 불타는 애정을 줄 곳이 없었던 차에 때마침 이웃에 사는 옛장사하는 최돌이(26세)라는 젊은 청년과 서로 눈이 맞아 나이 많은 남편을 버리고 둘이서 손을 잡고 멀리 방어진에 와서 단꿈을 맛볼 사이도 없이 질투의 불에 타는 강춘길이가 곧 추격하여 난투극을 연출하였다.

231) 동아일보(1936. 5. 11).

곤봉으로 때려 간부 최돌이는 중상을 입었고, 처되는 최순이는 당시 동해의원
에서 입원치료 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²³²⁾

“지난 1일 방어진을 서부리 양조장 배달부 이재조는 자전거에 술을 싣고 동
리 남쪽 도로를 질주하던 중 부근 우차의 소가 놀래 뛰는 바람에 이 소를 피하
려다 방어진을 서하리 김봉생의 처(장 씨)를 들이받았는데 장 씨는 두부에 중
상을 입고 곧 방어진을 동해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로
사망하였다.”²³³⁾



동해의원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사진은 2015년 9월 현재).

대곶의원(大串醫院)

대곶의원은 1934년 신문기사에 “방어진 후지무라(藤村新太郎) 소유의 구조
선 축도환(祝島丸)이 방어진을 떠나 항구 밖으로 행하는 도중 청년 남녀의 시

232) 동아일보(1936. 7. 2).

233) 동아일보(1938. 12. 9).

체가 표류하므로 곧 인양하여 방어진 주재소에 고발한 결과, 대곶공의(大串公
醫)의 검사에 의하여 사후 약 5-6일이 지났다고 하여...(중략)”²³⁴⁾라고 소개되
어 존재를 알 수 있는데 동해의원과 더불어 1930년대 방어진의 2대 병원으로
서의 역할을 했으며, 공의(公醫)를 두었다는 점에서 공공목적의 의료기관 역할
도 했음을 알 수 있다.

234) 동아일보(1934. 9. 19).

약국

방어진이 1910년대 식민이주도시가 건설되자 자연스럽게 약국도 유입되었고, 1918년에는 8곳의 약국이 성업했다.²³⁵⁾ 1930년 방어진 지도상에는 평송매약점(平松賣藥店), 평송매약지점(平松賣藥支店), 국지매약화장품(菊池賣藥化粧品), 후등매약점(後藤賣藥店) 등 4개의 약국이 등장한다. 평송매약점은 방어진 내에서 다소 외곽에 위치했는데 영업확대를 위해 상점이 즐비하고 인구가 밀집된 곳에 지점을 두게 된 것이다. 1913년 평송지점(平松支店)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기사²³⁶⁾를 볼 때 평송매약점은 1910년 초 일본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지매약화장품은 상호를 볼 때 매약 이외 피부 관리와 관련된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가게는 키쿠치(菊池淺太郎)가 약종 매약 및 자양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1931년에 설립한 호리아상점(합자회사)²³⁷⁾의 전신으로 추정된다. 호리아상점에서 호리(ほり)는 얼굴 등의 윤곽, 야(や)는 집을 뜻하는 일본어로서 결국 화장품과 관련된 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후등매약점은 원래 방어진에서 가장 큰 양품잡화점이었는데²³⁸⁾ 1930년 지도상에는 약국으로 소개되고 있어 지도제작 시기 전후에 업종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방어진 약국의 공통점은 모두 상호에 매약(賣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매약이란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질병에 대한 약방문(藥方文)에 의하여 조제해 놓고 파는 약을 말한다. 다음의 광고²³⁹⁾를 통해서

235) 조선시보(1918. 9. 2)
 236) 매일신보(1913. 4. 5).
 237) 조선은행회사조합요목(1933년).
 238) 神谷丹路(2003). 『韓國歷史漫遊』, 明石書店.
 239) 동아일보(1920. 4. 14).

당시 매약을 이해할 수 있는데 광고 속에 두 모녀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 복희야 그 꽃을 왜 따느냐?
 (여) 어머니 이 꽃은 향취가 대단해요.
 (모) 그러면 그보다도 더 향기로운 것을 사주랴?
 (여) 그것이 무엇이예요? 그런 것을 사주세요.
 (모) 청심보명단(清心保命丹)이란다. 가서 사줄게 일어나거라.
 (여) 그 청심보명단(清心保命丹)은 어디에서 제조한 것이예요.
 (모) 남대문 안 태평통 제생당(濟生堂)에서 제조하고 각처 양약국에서 다 판매하느니라.

광고 속에 청심보명단(清心保命丹)은 상화산보(賞花散步), 원족운동(遠足運動) 즉 기분을 전환하거나, 정신피로(精神疲勞)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피부와 관련된 유명한 화장품은 일본 평미찬평상점(平尾贊平商店)의 레토(レト) 브랜드였는데, 백분(白粉), 크림, 비누 등을 생산하여 판매했다. 국지매약화장품점에서도 이러한 화장품을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레토 백분광고(동아일보, 1928. 11. 9).



레토 비누광고(동아일보, 1928. 11. 10).



평송매약지점이 있었던 곳은 현재 도명사란 사찰이 들어서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평송매약점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주택이 들어서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국지매약화장품(菊池賣藥化粧品)이 있었던 곳에는 현재 정음판매센터가 들어서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후등매약점(後藤賣藥店)이 있었던 곳으로 건물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수산업

방어진의 수산물 관련 업체는 크게 직접 어획하는 업, 어획물을 일본 등지로 운송하는 업, 수산물 무역업, 수산물을 배에 싣는 선하(船荷)업, 수산물을 씻고 가공하는 업 등으로 분류된다. 나카베의 임검상점은 수산물 어획에서부터 유통까지 담당한 종합 수산회사였는데 군소 어업조(漁業組)들은 어획물을 대부분 임검상점에 납품했다. 그리고 선하업으로는 풍천선하(豊川船荷), 수산물 무역업으로는 해산무역상변동윤(海産貿易商卜東允), 수산물을 씻고 가공하는 업으로서는 송정어탕(松井魚湯) 등이 있었다.

어업등우조(漁業藤友組)

등우조(藤友組)는 일본 야마구찌(山口)현 출신의 후지모토(藤本友次郎)가 창업한 회사로서 1910년대부터 일본을 대표하는 수산기업으로 성장했다. 당시 등우조는 선박이 30여 척, 어부와 선원이 500명을 넘었고, 지점은 일본 연



어업등우조가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동화다방, 간이역, 경산식당이 들어서 있는데 당시 건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해뿐만 조선과 만주 등 각지에 설치됐다. 방어진의 어업등우조(漁業藤友組)도 이러한 차원에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정상상점(井上商店)

임검상점(林兼商店)의 창시자 나카베(中部幾次郎)는 당시 어업 분야 사업의 선구자이자 패자(覇者)였는데, 그가 큰 성과를 거두자 여러 신규업자들이 참여했다. 참여 업자 중에서 고등어건작망어업이 전문인 정상조(井上組)가 있었는데²⁴⁰⁾ 정상상점(井上商店)은 곧 정상조(井上組; 이노우에쿠미)의 직영어업회사의 명칭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남국송(南國松)

1931년 남국송(南國松)의 업종을 알 수 있는 신문기사가 있는데 “1931년 11월 오후 11시경, 남국송의 발동선이 동래군 일광면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고장이 생겼는데 때마침 심한 바람에 밀려 울산 방어진 앞섬에 얹혀버렸다. 선원 이승관(제주도 우면 서기리)은 해염을 쳐서 육지에 나오다가 그만 행방불명되었다.”²⁴¹⁾라는 내용이였다. 이 기사에서 남국송은 어선을 운영한 회사임을 알 수 있으며, 제주도 출신의 선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어업조

그 밖의 어업조로는 오카다(岡山)현 히나세(日生) 출신의 이소노(磯野)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야어업부(磯野漁業部), 아키다(秋田)현 쓰찌자키(土崎) 항에서 건너 온 어업조직으로 추정되는 토기어업부(土崎漁業部) 그리고

240) 吉田敏市(1954). 「朝鮮水産開發史」, 下關: 朝水會 p.305.
241) 동아일보(1931. 12. 20).



토기어업부(土崎漁業部)가 있었던 곳에는 현재 어인숙이 들어서 있는데 건물의 형태는 유지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송정어업부(松井漁業部) 등이 있었는데 이들 업체는 대부분 임검상점에 어획물을 납품한 것으로 추정된다.

풍천선하(豊川船荷)

도요카와(豊川)는 아이지겐(愛知県) 남동부에 위치한 시(市) 또는 일본 성씨의 하나로 추정되며, 선하(船荷)는 배에 싣고 나르는 짐을 일컫는다. 결국 풍천(豊川)이라는 상호로 방어진에서 일본으로 해산물을 일본으로 공급하고자 했던 선박에 짐을 실어주는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다.

해산무역상변동윤(海産貿易商卜東允)

변동윤이 경영했던 해산물 무역상. 변동윤(卜東允)은 방어진항 해산물거상(海産物巨商)으로서 명성이 높았고 사교성이 좋아 방어진 상인으로부터 인기

가 많았다. 가옥은 빈약했지만 방어진야학과 방어진보교에 많은 금액을 회사 하기도 했다.²⁴²⁾



1937년 동아일보에 소개된 변동윤.

송정어탕(松井魚湯)

우리나라에서의 어탕(魚湯)은 생선을 넣고 끓인 국 또는 각종 민물고기에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끓인 탕을 말하며, 예로부터 강을 끼고 있는 고장에서는 어탕을 많이 먹었다. 이러한 음식을 일본에서는 먹지 않았고, 어탕이란 음식의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1930년 방어진 지도상의 송정어탕(松井魚湯)은 송정(松井)이란 상호로 우리식 어탕을 판매한 음식점이 아니라 어획된 생선을 씻어 가공할 수 있게 하는 업으로 추정된다. 즉 활어를 일본으로 유통시키지 못할 경우 이곳에서 생선을 씻어 통조림용이나 생선 어묵 등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42) 동아일보(1937. 7. 25).

상점

1910년 전후 방어진에 일본인 어부들이 이주하자 이들에게 선구 및 어구 그리고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이후 일본인의 거주가 증가하자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방어진의 유명 상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등상점(齊藤商店)

사이토(齊藤)는 일본 성씨 중의 하나로 자신의 성을 붙인 상점으로 추측된다. 방어진의 제등상점의 업종은 알 수 없지만 1930년경 포항의 제등상점으로부터 그 업종을 유추할 수 있다. 당시 포항의 제등상점은 사이토(齊藤規一)가 설립했고, 선구, 어구, 도료페인트, 로프 등을 판매했는데 방어진의 제등상점도 이와 유사한 물품을 취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30년경 포항의 제등상점
(출처:www.nekonote.jp).

천변상점(川辺商店)

일본 히나세(日生) 출신의 카와나베(川辺)가 운영했던 상점으로서 그는 일생탕(日生湯)도 경영하였다.²⁴³⁾



천변상점(川辺商店)이 있었던 곳에는 현재 플러스마트가 들어서 있는데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전변상점(田辺商店)

전변상점(田辺商店)에 대한 기록은 가미야(神谷丹路)의 『한국력사만유(韓國歷史漫遊)』라는 책 속에 방어진의 김영식(金榮植)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언급되고 있다. 김영식은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방어진의 일본인 상점에 취직하여 방어진의 일본인 사회를 본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 조선인은 모두 가난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중학교에 갔고, 형과 큰아버지가 일본에 있

243) 利七屋孫兵衛の日記(2010. 2. 9).

는 사람은 일하러 일본에 갔다. 그 어느 쪽도 아닌 나는 학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소개로 방어진 일본인 상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김영식 씨가 취직한 곳은 전변상점(田辺商店)이라는 양품 잡화상이었다. 방어진에서 두 번째로 큰 가게로서 취급품은 기성복, 나파(ナッパ)²⁴⁴⁾ 의류, 화장품, 메리야스 속옷, 펠트, 짚신, 나막신, 슬리퍼 등으로 첫 월급은 3엔이었다고 한다. 그의 기억에 의하면 그 당시(1937년) 나파 옷 한 벌이 1엔 20전으로 짚은 노란색은 어부와 선장용이고, 감색은 기관부용이었다고 한다. 주인인 타나베 부부는 히로시마 현 출신이었다. 그는 “방어진은 일본인의 산업 지역으로서 경기가 좋았습니다. 방어진에는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였습니다.”라고 회고 했다.²⁴⁵⁾



장옥(長屋)의 건물에 전변상점(田辺商店)과 석정상점(石井商店)이 있었던 곳. 밀양보리밥집과 부산이불관이 전변상점이었고, 진식당이 석정상점이었다. 건물의 형체는 유지하고 있으나 개조된 모습이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244) 어업자의 작업복.

245) 神谷丹路(2003). 『韓國歷史漫遊』, 明石書店.

키비아(キビヤ) 이물점(履物店)

키비아(キビヤ)라는 상호의 신발가게. 이물(履物; はきもの)은 일본식 짚신·나막신·신발 등 발에 신는 것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전통 나막신을 일명 게다(下駄; げた)라고 하는데 이 가게를 하현옥(下駄屋)이라고 한다.



명치(明治) 시대 일본의 하현옥(下駄屋) 모습. 방어진의 키비아(キビヤ) 이물점(履物店)도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출처: 日本放送大学附属図書館).



키비아(キビヤ) 이물점(履物店)이 있었던 곳으로 현재도 건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1층은 가게, 2층은 가정집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편산상점(片山商店)

편산(片山)이라는 상호의 간장과 식료품 가게.²⁴⁶⁾

오복생과과자공익사(吳服生果菓子共益社)

견면직물 및 모직물 등 의복과 과일, 과자를 판매했던 상점.



오복생과과자공익사(吳服生果菓子共益社)가 있었던 곳에는 현재 장녹수 식당이 들어서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천구상점(川口商店)

선구점이 본업이었고, 여객터미널인 천구회조점(川口廻遭店)도 운영했다. 1930년 신문기사에는 본점을 방어진에 둔 천구선구점의 강원도 주문진출장소에 금품절취 사건이 보도됐는데²⁴⁷⁾ 이 기사에 의하면 천구선구점은 1930년 이

246) 神谷丹路(2003), 「韓国歴史漫遊」, 明石書店.

247) 중외일보(1930. 9. 9).



천구상점(川口商店)이 있었던 곳(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주문진에 출장소를 낼 정도로 규모가 있었던 상점임을 알 수 있다.

대림선구회사(大林船具會社)

오오바야시(大林金次郎)는 어릴 때에 남방진출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남양 방면으로 경제 시찰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는데 아버지의 부음 소식을 접하고 귀향하여 유업 계승을 위해 조선으로 건너왔으며, 이후 방어진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²⁴⁸⁾오오바야시는 1923년 2월 11일 방어리 388번지에 어망, 어구, 선구, 잡화 판매 및 어선, 어구, 선구 매매와 중개업. 기타 부수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방어진어망반구상회(方魚津漁網般具商會)의 대표를 맡았다. 그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업무의 집행과 회사대표권을 가

248) 조선공로자명감.

졌지만 실제 출자자는 나카베(中部幾次郎)와 그의 아들 나카베(中部謙吉)이었다. 1929년 나카베가 방어진철공조선주식회사를 설립했을 때 오오바야시는 전무를 맡았다.

1930년 방어진 지도상의 대림선구회사(大林船具會社)의 위치가 방어진어망반구상회의 위치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방어진어망반구상회의 대표였던 오오바야시의 성을 따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대림선구회사(大林船具會社)가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편의점 건물이 들어서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에비스야(エビスヤ)상점

하시즈메(橋詰隆一)가 잡화 및 피복류 판매를 목적으로 1925년 2월 11일 방어리 344번지에 설립한 상점. 에비스(エビス)란 상점은 1896년 오사카에 창립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산본상점(山本商店)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1919년 ‘에비스킷술(エビスはぶらし)’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그리고 1971년에는 에비스주식회사(エビス株式会社)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

르고 있는데 칫솔을 주력으로 하는 구강용품에서 주방과 세탁 등 플라스틱 일용품 제조 판매하고 있다. 1925년 당시 방어진의 에비스야(エビスヤ)상점은 에비스 칫솔을 취급하면서 상호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외 잡화 및 피복류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에비스야(エビスヤ)상점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고추 방앗간이 들어서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입석상점(立石商店) 방어진 지점

입석상점(立石商店)의 창립자 다테이시(立石良雄)는 1911년 오사카에 본사를 둔 송미상점(松尾商店)의 부산지점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납촉(蠟燭)²⁴⁹ 제조판매 및 석유를 판매했다. 1919년에는 송미상점의 영업권을 인수받아 입석상점으로 상호를 바꾸고 독립 경영을 했으며, 1924년에는 방어진 출장소, 1926년에는 구룡포 출장소 설립하여 이 지역을 오가는 각종 어선에 석유, 경유, 중유, 카바이트 등을 공급했다. 1931년 12월에는 유류 일체의 수입 및 제조

249) 밀랍으로 만든 초.

가공 판매, 카바이트, 납촉 제조판매, 자동차 및 그 부속품의 수입 제조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부산부 본정(本町) 1정목(丁目) 25에 주식회사 입석상점을 설립하고 대표로 취임했다.



사진은 1926년에 설립된 입석상점(立石商店)의 구룡포 출장소로서, 방어진 출장소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출처: <http://nekonote.jp/pusan.html>).



입석상점이 있었던 곳(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교힐회조미곡점(橋詰回漕米穀店)

교힐(橋詰)이란 상호로 여객터미널인 회조점(回漕店)을 운영하면서 쌀을 비롯한 갖가지 곡류를 판매한 상점.

옥내옥(玉乃屋)

일제강점기 방어진에는 음식점과 술집이 다수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영세한 규모여서 1930년 방어진 지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유곽 거리 입구에 있었던 옥내옥(玉乃屋; たまのや)은 음식점으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 초후(調布)시 진다이지(深大寺) 입구에는 옥내옥(玉乃屋)이라는 350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소바(そば) 전문 음식점이 있으며, 또한 일본 곳곳에 옥내옥(玉乃屋)이라는 상호로 소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진의 옥내옥(玉乃屋)도 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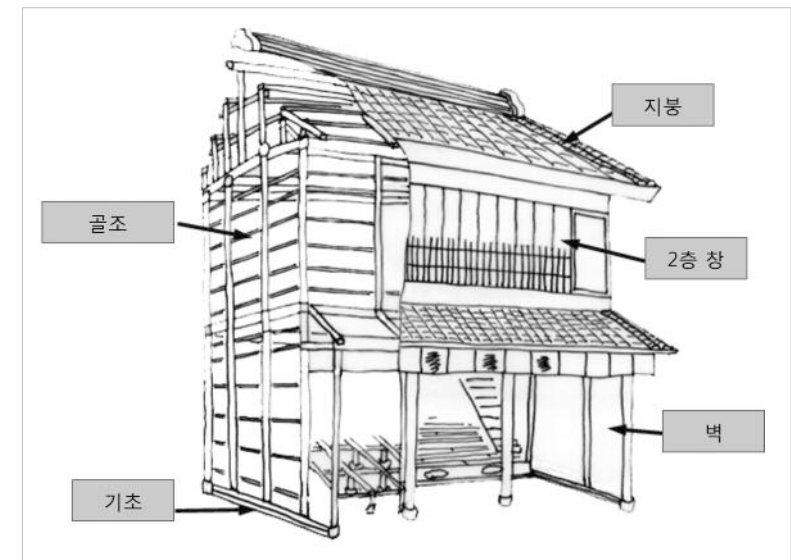


옥내옥(玉乃屋)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제일약국 건물이 들어서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소도재목점(小島材木店)과 장도재목점(長島材木店)

당시 나무는 건축 및 선박제조의 주요 자재라는 점에서 방어진의 재목점은 성업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의 명칭은 재목점이었지만 각종 건축자재의 판매는 물론 건물을 짓기 위한 목수 등의 필요 인력도 공급했으며, 주요 건축용 자재와 다다미 등은 일본에서 수입했다. 1930년 방어진 지도에는 소도재목점(小島材木店)과 장도재목점(長島材木店) 두 곳이 등장하는데 상호가 하나는 소도(小島)이고, 다른 하나는 장도(長島)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일본식 주택과 상점 등의 가옥은 대부분 2층 목재건물이었는데 1층과 2층이 분리되는 비개방적 구조였으며, 창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일본은 습기가 높고 여름이 더워 전통적으로 이러한 주택구조로 지었던 것이다. 또한 방바닥은 다다미를 사용했는데 습기가 많은 여름철이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겨울철에는 방바닥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었다. 여러 세대가 건축비를 절감



일본식 건물의 전형적인 형태. 상점의 경우 1층은 물건을 판매하였고,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거의 단층인데 비하여 일본 주택의 외관은 2층 구조이고, 지붕이 1층과 2층 2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여 주거하기 위해서는 장옥(長屋; ながや)을 지었다. 장옥이란 연립주택 형태로서 기다란 지붕마루 아래 칸막이하여 여러 세대가 주거할 수 있게 만든 주택을 말하며, 들어가고 나오는 현관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기타 상점

1930년 방어진 지도상에는 하리마야(はりまや) 비롯하여 등전상점(藤田商店), 고교상점(高橋商店), 경원상점(鏡原商店), 대화상점(大和商店), 석정상점(石井商店), 칠전상점(七田商店), 내등상점(內藤商店), 소지상점(小池商店) 등이 등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었던지는 알 수 없다.



하리마야(はりまや)가 있었던 자리에는 '롬바롬바' 술집이 들어서 있으며, 바로 옆 도로가 당시의 길이고, 오른쪽 큰 도로는 현대에 와서 새롭게 닦은 길이다(사진은 2015년 9월 현재). 하리마(播磨; はりま)는 일본의 옛 지명(현재 兵庫県)이므로 지명의 이름을 딴 업소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었던지 알 수 없다.



소지상점(小池商店)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방어진 벼다귀 해장국집이 자리하고 있는데 당시의 건물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송가오복잡화상점(松嘉吳服雜貨商店)과 대화상점(大和商店)의 자리에는 현재 와와분식과 럭키인테리어 가게가 들어서 있는데 당시의 건물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사진은 2016년 4월 현재).

● 방어진 근대의 길을 걷다

한편 1930년 방어진 지도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933년 조선인 조형규(趙亨奎)는 제 잡화류 및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합자회사 오복상점(五福商店)을 설립했다.²⁵⁰⁾ 당시의 상점은 절도의 표적이 되기도 했는데 1932년에는 소화상점(昭和商店)에 절도가 침입하여 양속잡화(洋屬雜花) 80여 원어치 절취당했고,²⁵¹⁾ 1939년에는 방어진 뒷골 장백(章百)상점에 양복 등 100여 원어치를 절도 당하기도 했다.²⁵²⁾

화석이 되어버린
방어진의 근대 유산

방어진 근대의 길
탐방안내

250)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35년).

251) 동아일보(1932. 3. 16).

252) 동아일보(1939. 4. 1).

화석이 되어버린 방어진의 근대 유산

번성했던 방어진이 쇠퇴의 길로 접어든 시기는 1930년대 말로서, 태평양전쟁으로 인하여 방어진철공조선소 등의 공장들이 군수공장으로 바뀌고, 방어진에 흥어가 들자 속속 일본 내지로 돌아가거나 부산으로 이주가 늘어나면서²⁵³⁾ 조짐을 보였다. 특히 해방 이전 1940년대는 일본이 전쟁을 위하여 전국의 각 부(府)·군(郡)·읍(邑)민 및 단체구성원들로부터 소위 헌금형식으로 일본군용기 및 각종 병기 제작기금을 거두었는데²⁵⁴⁾ 방어진도 예외는 아니어서 번성했던 방어진의 경제도 침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방어진에 거주했던 일본인들도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방어진의 일본인 호수는 약 500호였는데 그들의 40년 가까이 계속된 이주어촌도 막을 내려야 했다. 급히 떠나려는 방어진의 일본인들은 가재도구를 비롯하여 어선 및 어구 등을 모두 포기하고 밀항선을 이용하거나 화물 선박에 편승하여 겨우 몸만 돌아갔는데 방어진에서 일본 히나세마치(日生町)로 귀환한 자는 54호에 131명이었다.²⁵⁵⁾ 방어진에서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귀환한 사람을 합하면 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방어진에는 일본인 소유의 어선이 많았다는 점에서 일부는 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전국 각지의 일본인들은 70여만 명이었는데 본국에서 보내온 공식 송환선은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져 밀항선을 이용해야 했다.

1930년 방어진에서 태어나 패망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간 히나세(日生) 원적의

253) 동아일보(1939. 4. 7).

254) 매일신보(1942. 3. 6).

255) 日生町の韓国交流史.



1945년 일제 패망 후 일본 군인들과는 달리 일반인의 경우 허술한 어선으로 겨우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다(출처:www.geocities.jp). 방어진에는 일본인 소유의 어선이 많았다는 점에서 일부는 이러한 모습으로 일본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쿠오카에 도착한 일본 귀향인들(출처:www.geocities.jp).

가와사키(川崎; 남)는 “일본 패망 후 서너 가족이 함께 작은 어선을 빌려서 돌아갔다”고 했으며, 히나세에서 출생하여 1932년에 방어진에 이주한 미나미(南友江; 여)는 “가계가 소유하고 있던 배를 팔았지만 네 채의 집은 그대로 두고 태양어업에서 내준 큰 배를 타고 돌아왔다”²⁵⁶⁾고 하여 당시 귀환의 상황을 알 수 있다.²⁵⁷⁾ 어쨌든 그들이 돌아간 방어진에는 황량한 바람이 상당 기간 불었다.

한편 1908년 일본은 국책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를 설립하여 한국의 토지와 자원을 독점하고 수탈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자 그들이 수탈했던 토지와 자원을 그대로 주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들이 남기고 간 건물과 가옥도 적산이 되어 버렸는데 적산(敵産)이란 적국의 재산 또는 적국인의 재산을 뜻하며, 적산가옥(敵産家屋)이란 적국 측 일본인 소유의 건물과 가옥을 말한다. 적산은 다른 말로 귀속재산(歸屬財産)이라고도 한다.

해방이 되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한국 정치를 미군정(美軍政)이 관할했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25일 법령 2호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을 공포하여 남한 내 일본의 국·공유재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하고, 신조선회사²⁵⁸⁾를 설립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재산과 토지 등을 인수했으며,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거래의 제한을 했다. 이에 당시 신문에서는 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사십년이란 긴 동안 우리 농민의 피를 빼앗고 살을 깎아 오던 동양척식회사도 해방과 함께 착취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명칭도 신조선

25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11). 일제강점기 울산 방어진 사람들의 삶과 문화, 채륜, pp.326-327.

257) 가와사키(川崎; 남)와 미나미(南友江; 여)는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 출신으로 2010년 방어진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된 바 있다.

258) 1946년 2월 21일 신한공사로 개칭.

회사(新朝鮮會社)라고 변경하여 조선농촌의 재건과 조선을 복리시키는 기관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회사의 전 재산은 군정청관리로 되어 일본인 직원 967명도 전부 파면하고 조선 사람의 손으로 강력하고 자유로운 독립 신조선을 건설하는데 전력을 경주할 터이라고 한다.”²⁵⁹⁾

1945년 12월 6일에는 법령 33호 ‘조선 내 일본인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모든 일본인재산의 소유권을 미군정이 장악하는 것을 표명했다. 이후 국내의 적산가옥은 대부분 일반인에게 불하됐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12월 9일 법률 제74호로 귀속재산법이 제정되고, 1950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1956년 9월까지 20만 7842건의 귀속재산이 처리되고 8천여 건만 남을 정도로 적산 불하는 빠르게 진행됐다.²⁶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방어진에도 해방 후 주민이 적산가옥을 불하받아서 주거하거나 상점을 운영하면서 살게 됐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도로의 정비 및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적산가옥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고, 일부는 화석으로 남아 있어 당시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다.

“아픈 역사도 역사이다. 그 역사 속에 살았던 방어진 사람들과 일본 이주민들의 삶과 문화는 지울 수 없으며, 우리는 남아 있는 화석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259) 중앙신문, 매일신보(1945. 11. 11, 12).

26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방어진 근대의 길 탐방 안내

방어진 근대의 길 탐방 안내는 당시 역사의 장소와 흔적이 남아있는 적산거리의 건물을 중심으로 2시간과 울기등대가 포함된 3시간 코스 등 2개로 구성했다. 흔히 관광이나 답사는 아는 것만큼 느낀다고 한다. 본서를 탐독한 후 지참을 하고 탐방한다면 당시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들려 올 것이다.



- ① 방어진방파제와 축조비
- ② 방어진철공조선소 터
- ③ 1910년에 조성된 방파제
- ④ 방어진 신사 터
- ⑤ 적산거리 1 : 추본이발관, 토기어업부, 오복생과과자공익사, 장옥(국지매약화장품, 전변상점, 석정상점)

- ⑥ 적산거리 2 : 후등매약점, 키비아이물점, 강산여관, 하야카시네 목욕탕(현, 장수탕)
- ⑦ 유곽 거리
- ⑧ 상반관 극장 터
- ⑨ 방어진면 사무소 터(현, 방어동주민센터)
- ⑩ 방어진심상고등소학교 터(현, 방어진초등학교)
- ⑪ 적산거리 3 : 찬기옥, 어업등우조, 소지상점, 송가오복잡화상점, 대화상점
- ⑫ 슬도
- ⑬ 울기등대

1. 방어진 근대의 길 I

방어진방파제에서 슬도까지의 길(①~②)로서 도보로 2시간가량 소요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승용차를 가지고 올 경우 방어동주민센터에 주차하고 ⑨ → ⑧ → ⑦ → ⑥ → ⑤ → ④ → ② → ① → ③ → ⑪ → ⑩번 코스를 탐방한 다음 차를 가지고 ⑫ 슬도로 가는 것이 편리하다.

2. 방어진 근대의 길 II

방어진방파제에서 슬도를 거쳐 울기등대까지의 길(①~⑬)로서 도보로 3시간 가량 소요된다. 슬도에서 울기등대로 가는 길은 대왕암공원으로 올라가서 울기등대에 이르는 길과 해안을 따라 울기등대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해안을 따라 울기등대로 갈 경우 산책로가 완전하지 않아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동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슬도에서 대왕암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울기등대로 가는 것이 편리하다.

| 저자 |

이정학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 2016 울산학 교양서 |

방어진 그때의 고향길라

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황시영

발행처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TEL.052-283-7715 FAX.052-256-7227
www.udi.re.kr

인쇄처

협진
TEL.052-256-5501 FAX.052-256-5503

ISBN

9791155011485

© 울산학 연구사업은 울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TEL.052-283-7715 FAX.052-289-7227
www.udi.re.kr

비매품

